

유토피아 Utopia

토머스 모어 저 | 주요섭 역 《사랑 손님과 어머니》와 《인력거꾼》을 쓴 주요섭 작가의 필력 넘치는 번역을 음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핍과 착취가 없고 정의와 평등이 나라의 기반이 되는 곳, 존재하기 힘들지만 현재를 반성할 수 있는 국가의 이상향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오스카 와일드는 “유토피아가 없는 세계 지도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토머스 모어가 의미를 만든 셈이다.



Utopia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v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유토피아》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 ‘부산의 벗’이라 불러달라는 익명의 개인 기부자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헤럴드미디어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출판 디자인 전문기업인 캠퍼스헤럴드는 편집디자인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교열 재능을 기부해 주신 서보상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선친의 좋은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북명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부산의 벗





차 례

율진이 서문	6
제 1 부	17
제 2 부	64

《유토피아》 영문판 서문

H.V.S. 옥덴

토머스 모어 경은 참수형 받아 죽은 사람이다.¹ 영국 왕 헨리 8세를 영국 국교의 최고 교주로 받아들이는 서약 강요를 거부한 죄로 목이 잘린 것이었다. 목 자르는 토막 위에 머리를 얹힌 그가 “반역죄를 지은 일이 결코 없는 내 수염을 한 쪽으로 옮겨놓을 테니 처형을 잠깐 늦추어주소요.”하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일화가 참말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 없이, 그의 이 발언은 그의 성격의 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의 이런 성격의 특징이 《유토피아》에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의 휴머니스트² 친구들은 그의 저서인 《유토피아》를 가리켜 ‘흥겨운 잔치’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유쾌하게 살고, 가능한 한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모어의 일부 기분과 일부 깊은 신념을 털어놓은, 일종의 흥겹게 빈정대고 놀리는 담화와 태도를 그려낸 것이 곧 《유토피아》라는 책이라고 규정지은 데에 있다. 《유토피아》라는 책 제목 자체가 이 점을 밝혀주는 하나의 좋은 예다. 《유토피아》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요, 이 책에 나타나는 다른 여러 고유 명칭과 이름들도 모두 다 이런 투로 이름 지은 것이다. 이런 명칭들과 의심할 바 없이 우스꽝스

1 1534년 7월 7일에.

2 16세기 초 모어 에라스무스 그르신 콜렛 등 ‘옥스퍼드 학자들’을 중심으로 영국에 문예부흥운동을 일으켜 옛날 그리스와 로마의 언어 문학 등을 연구한 학자들.

러운 사건들의 진술(예를 들면 아마우로툼 대사에 관한 얘기라든가, 또는 취화기 속에서 까지는 병아리 이야기 등)은 제쳐두고라도, 문장 속에 숨어 흐르는 유머러스한 암류는 한 낱말 혹은 한 문구를 통해, 어떤 때에는 조심성 있게, 어떤 때에는 눈에 띄이지 않게 꾸준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토피아》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고 성실한 저서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특색들 중 하나로 이 책은 한 편의 사회풍자 소설이다. 그런데 이 풍자 군데군데엔 희극적인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자면 종교와 프랑스왕궁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광경이다. 그러나 풍자보다도 인간의 악덕에 대한 비통과 분노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자주 있다. 예를 들면, 탐욕스런 목장 주인에게 쫓겨난 가족들의 참상을 처절하게 묘사한 대목이라든가, 유한계급의 부자들이 순전한 이기심의 발동으로 국가를 착취하는 행동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대목 등이 그것이다. 이런 대목들과 유토피아인들의 사회주의적 생활만을 읽는 데 흥미를 가진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 소설의 인기가 대단하다. 그들은 이 소설을 하나의 사회반향의 기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어는 권력 계급들 간의 교체, 혹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혁명보다는 더 깊이가 있는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진정한 혁명은 도덕혁명이라고 그는 믿었다. 어떤 새로운 제도건 그것이 착한 남자들과 착

한 여자들을 양성하지 못하는 한, 제도의 변경은 무가치하다고 그는 믿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의 본질은 윤리론 이다. 구체적인 사회체계에 기독교의 윤리가치를 투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이 《유토피아》이다. 기독교적 덕성을 전심전력 추구하는 인간들이 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들을 모어는 이 책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세속적인 성공과 실용적인 경험의 결합, 정신적 통찰력과 도덕적 감수성의 결합, 그리고 지성적인 초연성과 식별력의 결합을 시도해보는 일을 모어만큼 해본 작가는 드물다.

모어는 인간 본성에 대하여 희망적 관측을 하기를 거부한다. 유토피아 인들이 선량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라는 조직체의 계획·목적은 전적으로 인간이 범하는 죄의 작용, 그 중에도 특히 자만심을 가지는 과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책 제2부 거의 2/3머리에 가서 자만심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야말로 이 책 전체가 지니고 있는 윤리가치관의 요약이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그의 소설 《걸리버의 여행》 제4부 2/3머리 몇 구절에서 인간이 가진 자만심을 비난하여 자기가 품고 있는 윤리관을 요약해 말한 것과 모어의 그것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그런데 《유토피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종교문제가 아니라 윤리문제다. 그러나 윤리의 기초는 종교에 두어야한다고 고집하는 모어인 만큼 이 책의 중심사상은 전

적으로 기독교 사상이다. 유토피아 인들이 신봉하는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했던 자연신교 간에 유사점이 발견되는 것은 모어의 참된 의도를 곡해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유토피아》에 제시된 모어의 종교관은 역사상 그의 뒤에 오는 에드워드 허버트³ 같은 이가 주장하는 자연신교를 예견한 것이 아니라, 옛날 성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주장한 종교관을 차용했을 따름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호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⁴

유토피아 인들은 이성의 지도, 즉 ‘자연법칙’의 지도를 받아 산다. 그리고 유토피아에 있는 신부 직분, 그들이 사용하는 예배식과 기도문, 그리고 특히 기독교 신봉에 열심인 것 등으로 보아 그곳 주민은 자유신교 교도가 결코 아니다.

신의 계시의 도움 없이도 착한 생활을 하는 유토피아 인을 그리는 것이 모어가 노

3 체버리(Cherbury) 영지의 최초 남작(1583~1648).

4 로마서 13~15절.

린 사회풍자의 근거다. 참벌스 교수는 이 점을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신의 계시
받음 없이 단지 이성의 지도 아래 사는 유토피아 인들은 착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
구하고, 신의 계시를 받는 우리 영국인들과 우리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은
왜 이 꼴인가! 하는 것이 《유토피아》가 보여주는 기본정신이다.” 서구 세계 사람들
이(그것이 17세기 사람이건 20세기 사람이건 불구하고) 자만심을 억제하고 도리에
맞는 생활을 추구하기만 하면 이상적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
하고 그렇지가 못한 모순을 웅변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곧 유토피아 인들의 행복스
런 생활이다.

얼핏 볼 때 유토피아 인들이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그들의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현대’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성만의 지도를 받아 사는 그들이 만큼 정말 하나
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그들이다. 그들 중 더러는 태양, 혹은 어떤 유
성, 혹은 어떤 옛날 성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주민은 창조
물들 중 아무것과도 동일시할 수 없는 어떤 전능하고 알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전부가 신교 신자인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 이 한계
안에서 그들의 이성만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는 것을 허용한다. (신약성경의 복음
서에 정통한 유럽 사람들에게는 거부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다.) 그러나 이 신앙의
자유는 엄격히 시행된다. 한 유토피아 인이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아도 좋

은 사유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의견은 자기 혼자 품고 있어야 한다. 남에게까지 불신을 설득하려고 들었다가는 시민권이 박탈되고 노예로 전락되며, 그런 과오를 여러 번 범하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형된다는 것을 모어는 명백히 제시했다.

《유토피아》는 작가자신의 생활 모습을 밝혀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자아낸다. 영국 왕 헨리 8세는 유능한 인사들을 많이 등용했다. 왕을 돕는 대부분 인사들은 왕이 가진 야망과 동기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조력했다. 그러나 모어만은 헨리 8세의 신하 노릇을 하기는 하면서도 자기가 반대하는 목적 성취를 위해 만부득이 일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면 그는 왕의 신하가 된 사실과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었을까? 문제를 좀 넓혀 말하자면 착하고 양심적인 한 인간이 어떻게 포악한 임금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된다. 이 문제를 모어는 《유토피아》 제1부에서 논의했다. 왕이 주는 고관직을 모어가 맡은 목적은 설사 좋은 정책을 추구하거나 시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쁜 시책은 제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으리라고 분명히 볼 수 있다. 왕의 주견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모어는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충돌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아차린 그였기 때문에, 그는 죽기에 앞서 오래전부터 가족에게 만반 준비를 갖추도록 힘썼던 것이다. 헨리 왕도 모어의

속셈을 잘 알면서도 그를 좋아했던 것이다. 모어의 강직성을 간파한 왕은 모어가 신하의 직책을 맡는 동기가 어디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유토피아》 제1부에 나타난 것처럼 모어는 왕이 맡기는 직책을 맡는 첫날부터 그들 둘의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피차 다 알고 있는 야릇한 관계였을 것이다. 모어의 벼슬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왕이 가진 전쟁욕과 정복욕을 꺾는 데 번번이 실패하는 모어와 왕과의 야릇하고도 불안한 관계는 점점 더 짙어간 것이었다. 모어의 선견지명은 일종의 극적인 조짐이었다. 예측했었던 결렬이 정작 오게 되자 모어는 비극 연극에 등장하는 영웅이 가지는 아량과, 또는 백절불굴하는 순교자가 가지는 도량을 가지고 사형대로 끌려간 것이었다. 헨리 왕은 모어를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를 매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모어를 죽인 헨리 왕의 행동이 《유토피아》 제1부에 모어가 등장시킨 히슬로다에우스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왕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이론을 전개시킨 것의 타당성을 크게 강화한 셈이 된다. 모어가 왕의 신하가 되려고 결심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던가? 그의 관계 출세는 과오였던가? 그의 죽음은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윌킨이 노트

H.V.S. 옥텐

모어의 《유토피아》를 맨 처음 번역⁵한 사람은 랄프 로빈슨이요, 출판된 해는 1551년이었다. 두 번째 번역자는 길버트 버넷인데 1685년에 출판되었다.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매우 우수한 번역이었고 중판을 여러 번 냈다. 그러나 이 두 번역본의 번역은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았고 현대 독자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 번역본은 전적으로 새로 번역한 것이지만 로빈슨과 버넷 두 분(그 중에도 특히 후자의 것)의 번역본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참고했고, 가끔 가다 그들의 문구를 그냥 따르기도 하고 혹은 개작하기도 했다. 이 번역본 차례를 꾸밀 때 제2부에 나열된 부제목 16개 중 8개는 내가 추가해 단 것이고, 8개는 라틴어 본에 있는 그대로다. 이 밖에는 원본을 변경한 것이 없다.

5 원문은 라틴어로 쓴 것이어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함.

《유토피아》 한국어판 서문

주요섭

토머스 모어 경(1478~1535)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다. 젊었을 시절 한 동안 몰튼 추기경 댁에 기숙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리처드 3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은 것은 이 몰튼 추기경의 입을 통해 얻은 것이리라고 추측한다. 모어가 ‘리처드 3세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한 해가 1534년인데, 그 이전에 남들이 쓴 역사책들과 비교해볼 때 구성의 통일성으로 보나 극적 효과로 보나 매우 월등하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는 여가 시간을 대부분 문학작품 감상으로 소비했고, 그 당시 명성을 널리 떨쳤던 네덜란드 인 휴머니스트인 데시테리우스 에라스무스(그는 영국을 무척 자주 방문했음)를 비롯하여, 영국의 기독교 휴머니스트 중 으뜸이었던 존 콜렛, 그리고 성바울 학교 교장인 윌리엄 릴리 등과 친교는 두텁고 깊었다.

26세 때 모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플랑드르에 전권특명공사로 가 있는 동안 상상적인 유토피아 섬에 대한 초고를 라틴어로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탈고되어 출판된 해가 1516년이다.

1529년부터 1532년까지 3년 동안 모어는 영국 대법관직에 있었다. 그 당시 영국 왕인 헨리 8세가 새로 제정한 ‘왕립계승법’을 충실하게 준수한다고 약속할 생각은 모어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식에서 정식으로 선거까지 하는 것은 교황의 권위를 의심하는 일이 되리라고 믿은 그는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비위가 상한 왕은 그를 체포하여 런던탑 감옥에 수감해버렸다. 감금생활 초기에 그는 ‘고난을 극복하

는 대화'라는 책을 쓸 준비를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논문을 쓸 준비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선서를 거부한 것을 대역죄로 몰아 사형언도를 받은 그는 1535년 단두대에 올라 죽었다.

비평가인 모어는 미술 후원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홀베인 화가는 모어의 집에 3년이나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여가에 모어의 초상화는 물론 온 가족의 초상화까지 그려주었다고 한다.

《유토피아》내용에 대한 해설은 서문에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유토피아》외 라틴어로 쓴 작품을 열거하면 《루시안의 대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경구들, 그리고 신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논문들이 있으며, 영어로 쓴 작품으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리처드 3세의 역사》와 《미란돌라의 백작 존 피키스의 생애》(1510) 등이 있다.

그리고 《토머스 모어 경》이라는 제목을 가진 희곡 원고가 1844년까지 존재해 있었는데, 작자는 미상이나 글씨 모양으로 보아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것 같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 희곡의 내용은 모어의 일생을 주축으로 하면서 '선'과 '악'을 인격화시켜 무대 위에 올려 투쟁시키는 추상적인 '모럴리티 플레이'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라틴어로 씌여진 《유토피아》가 출판되자 대인기를 끌어 출판된 지 10년 후에 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등으로 번역·출판되었고, 라틴원본이 나온

지 35년 뒤인 1551년에 비로소 영번본이 나왔고, 그 뒤 다시 1685년에 판 사람의 영번본이 나왔다.

내가 번역한 책은 미국 미시건 대학 H.V.S.옥덴이 영어로 번역하여 1949년에 출판한 것인데, 라틴어에 능하지 못한 나인만큼 영번으로부터 증번하였음을 여기 밝히둔다.

제 1 부

제 1 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분이요, 남들과는 견줄 수 없는 군주다운 모든 덕을 구비한 영국 왕 헨리 8세와 가장 침착하고 부드러운 카스티야¹ 국왕인 카를로스 간에 얼마 전부터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왕 간의 불화를 조절하는 교섭을 해보라는 사명을 나에게 내리며 헨리 8세는 나를 플랑드르로 파견했다. 수석대표인 커스버트 턴스톨의 동료 겸 친구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이 박학하고 덕이 있는 이 턴스톨 씨는 얼마 전 영국 정부의 기록보관 장관으로 임명되어 이 임명은 모든 사람들을 다 크게 만족시킨 바 있었다. 이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려다. 한 친구로서의 증언이 의심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학식이나 덕은 내가 무어라고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않겠다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그의 넓은 지식과 높은 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 논평 따위는 불필요했고, 혹시 내가 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옛날부터의 속담 마찬가지로 ‘등불로 태양을 빛나게 해주려는’ 꼴이 될 것이다.

1 스페인 중부에 있었던 옛날 왕국.

우리와 만나 교섭을 진행시킬 대표로 카를로스 왕이 임명한 사람들은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인데, 미리 약속한 대로 브뤼게 시에서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그쪽 대표단의 수석은 브뤼게 시의 방백으로 상당히 저명하고 공훈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대표단 중 가장 현명하고도 능변인 사람은 카셀의 수도원장인 조지 템스였는데, 그의 웅변은 타고난 소질에다 오랜 훈련과 연습으로 완벽해진 것이었고, 법률 지식이 풍부했다. 또한 타고난 재질에 오랜 경험과 실습이 가미되어 실무자로서의 기술이 여간 아니었다.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지고도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상대방 대표단은 며칠간 휴회를 요청하고 자기네 왕의 새로운 지시를 받으려고 브뤼셀로 갔다.

그때에 나는 안트베르펜로 갔다. 회담 재개에 앞서 우리 측 대표단도 그곳에 불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안트베르펜에 체재하는 동안 여러 사람이 방문해 왔는데, 그들 중 가장 내 성미에 맞는 사람은 피터 힐러스였다. 안트베르펜 태생인 그는 고향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이었다. 이 사람보다 더 높은 교양과 품격을 가진 젊은이를 세상 어디서고 나는 여태 본 일이 없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말로 가장 광범하고도 최고도의 학식을 가진 분이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친절·정녕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절친한 친구들을 어찌나 사랑하고, 어찌나 신임하고, 또 어찌나 깊은 우정으로 대해주었던지 그와 같은 친구는 세상 어디서건 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더 솔직한 사람도 세상에 없었다. 이 사람보다 더 소박하고도 분별력 있는 사람도 세상에 없었다. 야비한 점이 전혀 없는 기지에 찬 이 사람과의 대화가 나에게 어떻게나 큰 쾌락을 주었던지, 고향과 아내와 자식을 보고 싶은 열렬한 나의 욕망(너 달 이상 고향을 떠나 있어서 가족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도 이 사람과의 교우로 인해 많이 감소되었다.

안트베르펜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성당인 노트르담 성당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참석하고 나오던 어떤 날, 내가 유숙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참에, 그 청년이 어떤 꽤 늙은 사람, 나로서는 처음 보는 사람 하나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 처음 보는 늙은이

의 얼굴은 폭양에 그을린 양 고동색이 되어 있었고, 턱수염을 길게 길렀으며, 어깨에는 외투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그의 용모와 옷차림으로 보아 그는 뱃사람이 틀림없다고 나는 단정했다. 이때 나를 본 피터는 내게로 가까이 와 인사했다. 내가 맞인사를 하자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그 처음 보는 노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사람 보이십니까? 지금 막 그 분을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선생님 숙소로 모시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당신이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갑게 맞이하겠소”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이를 혹시 아셨더라면 그이 자신 때문에도 그이를 꼭 만나보시려고 하실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나라들과 국민들에 대한 얘기를 저이만큼 잘 들려 줄 수 있는 사람이란 세상에 둘도 없으니까요. 그런 미지의 나라와 주민들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데는 선생님만큼 열심히 분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그럼 내 짐작이 과히 틀리지 않았군요. 첫눈에 보자마자 저이는 뱃사람이라고 나는 판단했으니까요.”하고 나는 말했다.

“글쎄요, 꼭 맞지는 않았는데요. 선생님 추측은 틀렸어요. 저 분이 항해를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에니아스’²가 탄 배를 운전한 팔리누루스 같은 항수로 항해한 것이 아니요, 차라리 율리시스처럼, 아니 도리어 플라톤과 같은 인간으로 항해를 하신 거지요.³ 성은 히슬로다에우스⁴요, 이름은 라파엘이라고 하는 저분은 라틴어에도 아주 무식하지는 않고, 그리스어에는 조예가 깊은 어른이십니다. 그이가 특히 그리스어를 치중해 공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이가 연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철학인데, 로마 인들 가운데는 세네카와 키케로를 제외하고는 철학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온 세상을 남김없이 두루 두루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는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자기 집 유산을 형제들 간에 미리 나누어가지고는(그는 포르투갈 태생입니다) 자기 운명을 항해자 아메리고 베스푸치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베스푸치가 감행한 네 번 원양 항해 중 마지막 세 번 항해에 동행했어요. 그 항해 기행문이 지금 출판되어 나왔지요. 그런데 마지막 항해를 마친 뒤 그는 그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항해 때 제일 멀리 가서 정박했던 가장 먼 지방에 쌓은 요새에 스물네 명을 주둔시키고 귀로에 오르는 베스푸치에게 졸라 자기도 뒤에 남아 있어도 좋다는 승낙을 얻었거든요.

- 2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사람, 트로이 성의 왕자였으나 그리스 군대와 의 십 년 전쟁에 패배한 백성을 배에 태우고 지중해를 횡단하여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 다다라 왕국을 세웠음.
- 3 뱃사람을 율리시스와 플라톤에 비교·대조한 이유는 르네상스 기간 중 유럽 학자들은 율리시스가 인간성을 깊이 연구하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정부형태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한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
- 4 그리스 단어로는 ‘헛소리’ 혹은 ‘무의미한 짓’이라는 뜻.

자기 죽은 뒤 시체가 어디 묻힐까 하는 관심보다도 여행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에게는 그런 벽지에 떨어져 있게 된 것이 대만족이었대요. 무덤이 없는 사람은 하늘이 가려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거리가 꼭 같다고 그이는 늘 말씀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시지 않았던들 그의 그런 기질이 치명적인 타격을 그에게 주었을 거예요. 베스푸치가 출발한 후 다섯 명의 동료들과 함께 요새를 떠난 그이는 별의별 나라들을 정처 없이 헤매다가 천만다행으로 실론에 겨우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캘리컷에 이르러서야 다행히 포르투갈 배 한 척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천만뜻밖에 그이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피터에게 이런 사연을 다 듣고 난 나는, 나와 만나 대화하게 되면 커다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소개해주겠다는 성의에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라파엘에게로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가자 라파엘과 나는 인사를 교환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흔히 치르는 예의방정한 인사말을 나누고 난 우리는 다 함께 내 집으로 왔다. 그리하여 정원 풀밭 언덕에 앉은 우리는 얘기를 시작했다.

먼 나라 요새에 그를 남겨두고 베스푸치가 떠나 간 후, 뒤에 남아 있는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곳의 주민들을 자주 만나봤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만날 때마다 피자 좋은 말과 의젓한 말로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차차 그곳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리 얼마 오래지 않아 그들은 그곳 사람들과 섞여 아주 안전하고, 또 친밀하게 살게 되었다고. 그뿐 아니라 그 나라 임금까지도(그 나라 이름과 왕의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다) 그들을 존경하기에 이르렀다고. 그들을 존경하는 왕이 모든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바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배를 빌려주고, 육지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차량을 빌려주어 모든 여행에 편의를 봐주더라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가서 그 나라들의 왕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 이 왕은 충직한 안내자를 팔려주어 길 안내도 해주고, 다른 나라 왕에게 소개 또는 추천까지 해주더라고. 여러 날 걸리는 여행 끝에 그들은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 그리고 여러 공화국을 구경했는데, 그 모든 곳의 주민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고, 마을이나 도시나 공화국 정부는 제각기 자기 관내 주

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선정을 베풀고 있더라고 말해주었다.

적도 아래 좌우 쪽 태양이 움직이는 거리 안에는 한시도 쉬지 않고 영원히 내리쬐는 폭양에 바싹 말라버린 넓고 넓은 사막이 가로놓여 있었다. 전체가 황량하고 침울하며 농사짓는 땅이란 단 한 패기도 없는 이 사막에 서식하는 동물이라고는 흥명한 야수들과 뱀 따위, 그리고 야수 못지않게 사나운 몇 명 안되는 토인들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자 상황은 차차 부드러워졌다. 태양열의 온도는 차차 낮아지고, 푸르른 땅도 있고, 야수들까지도 좀 덜 사나웠다. 마침내 그들은 여러 나라, 여러 도시, 여러 마을들을 발견했는데, 그 여러 곳의 주민들은 한 동네 안에서 자기네끼리 교역하고, 이웃 동네들과도 교역하고, 멀리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해로와 육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 지방에 도달한 뒤부터 그들은 사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었노라고 그는 말했다. 방금 항해를 떠나려는 배를 찾아가기만 하면 어떤 배든지 그들을 반가이 맞아 어서 타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맨 처음 본 배의 모양은 밑창이 평평했고, 갈대 혹은 버들가지를 촘촘히 엮어 만든 돛을 달고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돛을 단 배들도 발견했다. 좀 더 멀리 가니 영국 배와 비슷하게 만든 배도 있었다. 즉 둥그런 뱃바닥이 평평하고, 굵은 삼베로 만든 돛을 단 배였다. 뱃사람들은 다 항해술에 능숙하더라고. 그러나 그들이 전에는 구경해보지 못했던 콤파스를 보여주며 용도까지 설명해주자, 뱃사람들은 무척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라파엘은 말했다. 콤파스가 없는 그들 인지라 이전에는 극히 조심스럽게 항해했고, 또 여름 이외에는 감히 바다를 항해하려고 들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콤파스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임하게 된 지금에 와서는 겨울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안전한 항해에 대해 도리어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크게 유익한 발견이라고 생각되지만, 콤파스를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을 경솔하게 만들어주어, 그 결과 도리어 커다란 화근이 될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라파엘이 견문한 얘기는 너무나 많아, 지금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그건 너무 지루할 것이요, 또 지금 우리의 목적에서는 이탈되는 객담이 될 것이다. 꼭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 특히 문명화 된 나라들을 방문하는 동안 라파엘이 관찰한 바 있는 현명하고도 분별력을 가진 여러 기관의 제도에 대한 얘기는 이후 다른 장소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기로 한다. 가치가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치를 물어봤고, 라파엘은 흔연히 모두 잘 대답해주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우글우글하는 괴물들에 대한 얘기는 숫제 물어보지도 않았다. 대답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것이다. 머리가 여섯 개나 달렸다는 괴물이나, 얼굴과 옷통은 여자이지만 새와 같은 날개와 발톱을 가진 욕심 많고 무도한 괴물들이나, 식인종 야만인들은 어딜 가나 쉽게 발견되지만 현명한 선정을 베푸는 정부를 가진 나라들을 발견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물론 그는 새로 발견한 여러 나라들의 언짢은 점들도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도시들이나 왕국들이 범하는 과오들을 시정하는데 참고 될 수 있는 본보기도 적지 않게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이 그런 것들은 다른 자리에서 기록하련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가 들려준 유토피아인들의 생활양식과 법률에 대한 것을 주로 기록하기로 한다. 우선 그가 이 유토피아이라는 공화국에 대해 얘기를 꺼내게 된 사연부터 기록해야겠다. 라파엘은 자기가 방문한 여러 나라들이 범하는 술한 과오와, 또는 현명한 제도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가며 슬기롭게 얘기했는데, 그가 방문한 개개 나라 백성들의 풍속·습관과 정부형태를 어떻게도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그 나라에 평생 살아보거나 한 듯이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이었다. 여기에 피터가 감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피터가 말했다.

“라파엘 선생님, 선생님께서 왜 어떤 임금의 신하가 되지 않았는지 이상스럽습니다. 세상 어떤 임금이란 선생님 같은 분을 고문관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임금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선생님의 학식은 어느 임금이건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요, 선생님의 충고와 본보기의 가치는 무한대일 것이 아닙니까. 왕의 신하가 되시면 선생님 자신의 포부도 살려 왕께 봉사하시게 되는 동시에, 여러 친구들에게는 큰 이익이 될 텐데요.”

“내 친구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들에게 대한

내 의무는 이미 완수했으니까. 내가 아직 젊고 건강할 때 내 재산을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한 셈이지요. 대개 인간들이란 늙고 병들기 전에는 재산을 절대로 나누어주지 않거든요. (그것도 자기로서는 그 재산을 그냥 차지하고 있을 수 없게 돼서 분배하면서도 유쾌한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 나는 어떤 왕에게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종살이 해달라고 기대할 리 없고, 이미 분배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하고 라파엘이 말했다.

피터가 대답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께서 왕의 노예가 되시라는 뜻이 아니라, 왕의 고문관이 되어 봉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단지 어휘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의미는 다를 것이 없지.”하고 라파엘이 대답했다.

“생각하시기에 달렸지만, 임금의 고문관 노릇하시는 것이 선생님 자신의 좀 더 행복스런 생활이 될 뿐 아니라, 친구 분들과 일반 대중에게 이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 외 판 뜻은 없습니다.”하고 피터가 말했다.

“좀 더 행복하리라고?”하고 노여운 기색으로 소리 지르고 난 라파엘은 말을 이었다.

“내 성질로는 용납할 수 없는 생활양식이 내 생활을 행복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신하들 중 제멋대로 살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총애를 받기 위해 아첨하는 군상이 너무도 많아 걱정인 오늘날, 왕들이 내가, 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무어 그리 큰 손해는 느끼지 않을걸요.”

이때 내가 말참견을 했다.

“라파엘 선생님, 선생님이 재산이나 권세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저는 선생님을 더 아끼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같이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현명하신 분이 만일 대중의 복리를 위해 시간과 정력을 제공해 주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기쁨도 못 느끼신다 할지라도 인류를 위해서는 큰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임금

의 고문관 역을 맡으셔서 고귀하고도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권고하시면 그것은 전체 국민에게 주는 큰 봉사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일 그런 직위를 맡으신다면 그런 큰 봉사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그치지 않고 솟아나는 샘이 흘러 강을 이루는 것처럼, 국민의 행복이나 불행은 전적으로 왕의 정치 여하에 의존하는 것인 만큼, 선생님의 노력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술한 경험이 가미되지 않고도 선생님의 학식은 완숙하신데, 거기다 아무런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현명하게 해주는 풍부한 경험까지 가지고 계신 선생 같으신 분이야말로 세상 어떤 왕에게나 둘도 없는 훌륭한 고문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라파엘이 말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평가, 그리고 사태 자체에 대한 판단, 둘 다 틀렸습니다. 모어 씨,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나는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설사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지라도 여가를 희생하는 것이 대중 생활을 개선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대부분 임금들은 이용가치가 있는 기능을 평화 측구에 사용하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에만 사용하려고 드는데, 내게는 전쟁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기술도 없으니까요. 왕들이란 대개 다 그들이 이미 영유하고 있는 나라를 잘 다스릴 궁리보다도 좋은 방법이건 나쁜 방법이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 데만 눈이 빨개 돌아가거든요. 그뿐 아니라 왕의 고문관은 또 그들대로 각자가 너나 현명하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적어도 그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동시에 왕의 고문관들이란 대개 다 왕에게 곱게 보이기 위하여 왕이 아무리 어리석고 주책없는 말을 할지라도 무조건 지당한 말씀이라고 시인하면서 갈채를 보내거든요. 그뿐 아니라, 인간이란 대개 자기 주관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믿는 자아기만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늙은 까마귀가 자기 새끼를 무조건 사랑하고 원숭이도 자기 새끼들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 아닙니까.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남들을 모두 시기하는 신하들로 가득 찬 궁전에서, 만일 어떤 자가 역사책을 읽어 얻은 지식, 혹은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어떤 정책을 왕에게 제

안한다면, 나머지 신하들은 자기네가 현명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의심받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를 느낌과 동시에, 제안하는 자의 의견은 씌가 먹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반박하지 않으면 왕이 자기네를 바보 취급하리라고 생각되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반대하고 반박하다가 그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경우는, 이리저리한 것이 우리 조상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감생심 선조들의 총명에 도전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대들어 비호를 받으려고 들곤 하지요. 이런 역설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최종결정을 내리거나 한 듯이 크게 만족하면서 무슨 일이나 우리의 선조들보다 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것처럼 위험한 인물은 둘도 없다고 규정짓고 말지요. 선조가 한 것이면 무엇이건 다 으레 가장 잘한 것이라고 우겨대는 그들은 선조가 한 대로 추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고집하지요. 그래서 어떤 보다 나은 제안이 있을 때마다 과거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핑계를 걸고 그 핑계에 결사적으로 집착하지요. 이런 건방지고, 어리석고, 부조리하고, 기분 나쁜 판단을 내리는 예를 나는 여러 곳에서 보았고,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한 번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는 영국에도 살아보신 일이 있습니까?”하고 내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콘월 주민들이 왕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뒤 얼마 안된 때 몇 달간 나는 영국에 살았지요. 그때 그 반란에 가담했던 가난한 인민들이 대량학살 되었지요.⁵ 그 당시 나는 캔터베리 성당의 대주교로 고위 성직자이신 존 모턴 추기경님⁶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었지요. 그분이 그 당시 영국 대법관이었는데, 그의 높은 지위만이 일반의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지혜와 덕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이의 키는 중키고, 나이는 많이 잡수셨지만 허리가 굽지는 않았었어요. 그분의 모습은 경외심을 일으키기보다는 도리어 존경심을 일으켜주었지요. 그이와 대화할 때 어렵지가 않고 자연스럽기는 했으나 하시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진실하고 정

5 1497년에 일어났던 반란사건으로 천여 명이 학살당했음.

6 1420년경~1500년. 모어가 열두세 살 때 이븐 닥에 기숙했고 뒤에 옥스퍼드로 보냄을 받음.

중했지요. 그분과 어떤 사무 타협을 하려고 끈덕지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백과 정신상태를 시험해보기 위해 무례한 태도는 아니지만 거친 음성으로 말을 걸어보기 좋아하는 때가 그에게는 가끔 있었어요. 그리하여 아주 건방진 점에까지 미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소질을 가진 인물을 발견하기 좋아했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사무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자격자라고 그는 생각하시더군요. 확실히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은 이해력도 풍부하고 경탄할 만한 기억력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심오한 연구와 경험을 쌓음으로써 타고나신 비범한 재질을 보충하고 개선하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었어요. 내가 영국에 살고 있는 동안 영국 왕은 이 대법관님의 조언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정부를 움직이는 주된 인물은 바로 그분인 것처럼 내게는 보였어요. 소년티를 벗어나자마자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궁정으로 들어간 그는 한 평생 충실하게 정부 일을 맡아보셨지요. 운명의 무쌍한 변화를 여러 번 몸소 맞으며 건디어진 그분은 막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풍부한 지혜를 갈무리할 수 있었지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야 획득한 지혜였기 때문에 쉽사리, 또는 빨리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었지요. 어떤 날 나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인 변호사 한 분도 동석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그 당시 도둑놈들에게 가해지고 있던 가혹 준엄한 처벌을 한참 극구 칭찬하더군요. 도둑놈들을 얼마나 빨리 체포해서, 얼마나 빨리 사형에 처하는지, 한 교수대에서 이십여 명이 한꺼번에 처형되는 때가 가끔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처형을 면하는 도둑놈의 수효가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도둑놈들이 횡행하고 있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는 알 수 없노라고 한탄하더군요. 그때 용기를 가다듬은 내가 감히 추기경님 앞에서 한마디 발언을 했지요. 이렇게 나는 말했어요.

“그런 현상이 이상할 건, 도무지 없습니다. 도둑놈을 사형에 처하는 극형은 도둑놈 자신에게 부당한 처벌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악형입니다. 과도한 엄벌만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대상은 아니니까요. 좀도둑까지가 사형 받을 만큼 중한 죄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계를 이을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지독한 형벌도 도둑질할 마음을 억누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맡아 가르치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 선도할 생각은 않고, 별주기에만 더 급급한 악질 교원들을 흉내 내는 위정자들을 나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에서 목격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도둑질 방지책으로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도둑질 안하고는 살 수 없는 세태를 그냥 버려둔 채 도둑놈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것은 졸렬하기 그지없는 정책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직장은 충분히 마련되도록 배려되어 있어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정당한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수공업과 농업이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나는 다시 말했어요.

“그건 안 될 말씀. 외국과의 전쟁과 내란으로 부상해 불구자가 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혹시 간과할 수도 있겠지요. 얼마 전 콘월 주민들의 반란사건, 그리고 그전 당신 나라와 프랑스 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불구의 몸이 된 사람들 말입니다. 임금과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불구자가 된 그들이 전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정인데다, 그렇다고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기에는 그들은 너무 늙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란 늘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 일어나곤 하는 것인 만큼 전쟁 불구자들의 취직문제는 간과할 수 있으나, 매일 생기는 일들은 간과할 수 없고 신중히 고려해야지요. 꿀벌통의 게으름뱅이 수벌들처럼 소작인의 노동력에만 의존하여 놀고먹고 사는 귀족들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소작료를 징수하여 소작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귀족들 말입니다. (낭비벽을 가진 그 귀족들, 낭비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몸소 나서서 비력질하는 것조차 꺼리지 않는 그들이 그래도 절약하는 예를 보여주는 단 한 가지 예가 바로 소작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몰락하는 귀족들은 수다한 게으름뱅이 식객들을 거느리고 살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돈 한 톨 벌 수 있는 기술은 하나도 배운 일이 없는 놈팡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식객들을 거느리던 귀족 주인이 죽거나 혹은 식객 자신이 병들거나 할 때 그는 당장 쫓겨나오고 말지요. 주인은 게으름뱅이들은 먹여 살리지만 환자 치료는 해주

지 않으려거든요. 그뿐 아니라 한 귀족이 죽은 후, 상속자인 아들은 아버지처럼 많은 군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도 많지요. 귀족 댁에서 쫓겨나는 자들은 그 집 문 밖에 나서는 날부터 도둑질 안 해가지고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도둑질 외 판 무슨 일을 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옷도 헤쳐 누더기가 되고 얼굴에는 굶은 공기가 잔뜩 낀 인간들을 받아들여 일 시킬 생각을 하는 부자가 있을 리 없고, 시골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그런 사람을 받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밤낮 윤택하게 살아 버릇했고, 칼 차고 방패 들고 뿔내며 거리를 쏘다니던 자들은 이웃 사람들 전부를 깔보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네보다는 천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기가 일쑤라는 것을 시골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족 밑에서 놀고먹던 자들이 별안간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일하기는 애초부터 글러먹었고, 설혹 가난한 집에 고용살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푼 안되는 품삯과, 언제나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모자라는 식사에 만족하며 주인의 일을 충실히 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우리 군대의 세력은 그런 사람들의 동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노무자나 농민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용감하고, 더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때 나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어요.

“그런 말씀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도둑놈을 장려해야 된다는 말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당신 말씀은 전쟁의 위기가 존속하는 한, 도둑놈 수효가 절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논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놈들이 간혹 용감한 군인이 되는 예가 있는 반면, 군인들이 아주 부지런한 강도가 되는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둑놈의 생활과 군인의 생활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너무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는 풍속이 이 나라에 있지만, 그것이 이 나라만이 가진 특별한 풍속은 아닙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풍속입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골치덩어리 인간 수효가 다른 나라의 그것

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평화 시에도 전쟁 시 마찬가지로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그런 상태를 평화 시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지불하면서까지 큰 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네 나라 귀족들이 게으른 시종들을 그냥 거느리고 사는 것과 꼭 같은 이유입니다. 강력한 군대, 특히 노련한 군인들로 편성된 군대를 계속 유지하여 전쟁 위기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는 것이 국민 안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하는 현명한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명한 바보들은 전투경험을 못 가진 군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훈련된 군인들과 준비를 갖춘 살인자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러 전쟁 기회를 노리고 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심신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놀려두면 날이 무디어진다고 말한 살루스티우스의 이론을 그들은 실행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그런 짐승 같은 유희 군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프랑스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우게 되었지요. 상비군을 유지하다가 바로 그 상비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옛날 로마·카르타고·시리아, 또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의 운명이 역사적으로 이 위험성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스스로 길러놓은 상비병이 정부를 뒤집어엮고, 시골뿐 아니라 도시까지도 폐허로 만들었거든요. 나이 어릴 때부터 훈련 받은 프랑스 군대가 미숙한 영국 군대보다 언제나 더 잘 싸웠다고 뽐낼 수 없었던 사실을 볼 때 전쟁 준비책으로 상비병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내가 자꾸 이런 말을 계속하면 혹시 내가 당신들에게 아침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르니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으렵니다만, 영국의 도시 노동자들이건 시골 농민들이건, 그들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불구자가 되었거나 혹은 과한 굶주림으로 몸이 허약해지지 않은 한, 귀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게으른 시종배들보다 전쟁에 나가기 더 무서워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역센 사나이들(귀족들이 그냥 먹여 살리며 거느리고 싶어 하는 부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이 게으른 생활로 인해 일시 동안 기력을 잃고 연약해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생계를 벌기 위한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키고 또 사내대장부다운 노동력을 길러

준다고 해서 그들이 약화되리라고 겁을 먹는 것은 필요없는 우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이지요, 전쟁이란 당신네가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발발할 리가 절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기하여 대비책으로 수많은 군식구들을 공짜로 먹여 살리면서, 전쟁 때에나 진지하게 고려되는 시끄러운 문제가 평화 시에, 그것도 너무나 많은 게으름뱅이들로 인해 사회의 안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당하는 사람 수효가 많은 원인이 귀족들이 거느리는 게으른 시종배 때문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만 발견되는 한 가지 독특한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자 추기경님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는 얹전하고 먹이를 조금만 먹고 자라던 당신네 나라 양 떼가 그 한 가지 원인이지요.”하고 대답했어요.

나는 계속해 말했습니다.

“그렇게 얹전하고도 조금만 먹던 양들이 지금 와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탐식하고 또 사납게 되어서, 과장해 말하자면 인간들까지 다 잡아먹고 말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떼가 지금 들판과 가정과 마을들을 모두 유린·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보통 털보다 더 부드럽고 더 값진 털을 산출해주면 줄수록 귀족이나 양반은 물론, 성직자들과 수도원장들까지도 토지에서 소작료로 수입되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이전에는 게으르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삼지 않던 그들이, 목양업으로 큰돈을 벌게 되자, 게으르고 사치스런 생활을 남 보라는 듯이 자랑하지 않고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양업은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작지 전부를 목장으로 변경하여 울타리로 사방을 둘러쌀 뿐 아니라, 교회당만 남겨놓고 그 밖의 온갖 집들을 헐어버리고 마을 전체까지도 파괴하고 있어요. 교회당만 헐지 않는 이유는 그 건물을 양 우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삼림들과 사냥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이미 너무 큰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목장을 새로 꾸미는 사람들은 마을들을 마구 헐고, 경작지를 모두 고쳐 사막으

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에게는 참으로 골칫덩이인 욕심꾸러기 탐
 식가 하나가 수백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울타리로 사방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농토로부터 쫓겨나오고 있어요. 더러는 속임수에 걸려, 더
 러는 강제 추방으로, 또 더러는 착취와 학대에 못 견디어 그들의 연장까지 싼 값
 에 팔아버리고 농토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남녀
 노소, 남편과 아내, 고아들, 과부들, 어린이들의 부모, 온 가족, 가난하면서도 수
 효가 너무 많은 이 사람들(농사짓는 데는 일손이 아주 많이 드니까요)은 강제로 거
 주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난 그들이 새로 정착해 살 수 있는 고장을
 찾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들은 가장집물까지 다 내다 팔아먹
 지만, 사 갈 사람을 지치도록 오래 기다리게 하고도 몇 푼 받지 못하고 싸구려로
 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손에 잡았던 몇 푼 안되는 돈마
 저 다 쓰고 난 때(고만한 돈을 쓰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지요) 그들에게 남는 길이
 라고는 도둑질하다가 체포되어 사형, 물론 공정한 재판을 받아 교수형으로 처벌당
 하거나 그렇잖으면 비력질, 이 두 길 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걸하려고 길에 나다니면 경찰은 그들을 게으른 부랑자라고 체포하여 감옥살이
 를 시키지요. 그들은 일자리 얻기를 갈망하지만 고용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요. 경작하는 토지가 다 없어진 이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농사를 지어 밥벌이
 할 농토가 어디 있어야지요. 같고 거두어야 하는 농토에서는 좁은 땅을 가꾸는 데
 도 술한 일손이 소요되지만, 꽤 넓은 목장에 가득 찬 양 떼를 기르는 데는 단 한 사
 람의 목동으로 족하거든요. 농토가 목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여러 곳
 곡식 값은 오르게 마련이지요. 그런데다 양털 값도 쟁쟁 뛰어나오르기 때문에 양털
 을 사다가 집에서 모직을 짜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사람들이 양털을 살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놀게 되는 사람 수요가 부쩍 더 늘었지요. 양 치는 목장들이 급속도로
 대폭 증가되자 양의 간장을 침범하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 굉장히 많은 양들
 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털 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이 전염병 창궐은 목장 소유자들
 의 과분한 탐욕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만일 그렇
 다면 양들을 병들어 죽게 하는 것보다 목장 주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

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양들이 병들어 죽지 않고 수효가 자꾸 불어나가기만 한다 할지라도 양털 값이 내릴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목장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전매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명 안되는 극소수의 큰 부자들만이 목장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고가격으로 값을 올리기 전에 양털을 팔라고 목장주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양 값이 비싸지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여러 가지 가축 가격도 등귀일로를 밟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촌락이 헐리어 목장이 돼 버려, 시골서 종전에 하던 일 대부분이 소홀해진데다 소를 기르는 손이 모자라게 된 것도 모든 가축의 가격을 올리는 한 가지 큰 원인입니다. 양 기르는 부자 목장주들은 양만 자기네가 번식시키고 소는 자작 번식시키지는 않지만, 여원 소를 혈값에 사다가 자기네 목장에서 길러 살찌워 가지고는 비싼 값에 내팔지요. 그렇지만 이 악영향이 아직은 그리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를 살찌워 가지고야 내다파는 지방에서만 소의 부족을 느끼는 정도지만, 소가 번식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자들이 여원 소를 사들이는 날이 올 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어 도처에서 소의 부족을 결국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네 나라는 목축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비열하고 욕심 많은 자들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목축업은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곡물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부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종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잣집에서 무위도식하던 자들은 해고당한 때 도둑질 아니면 비력질이지, 그 외 무슨 판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개가 높은 사람이면 높을수록 차마 비력질은 못하고 강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비참한 빈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제멋대로의 사치스런 생활이 빈곤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족들 집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는 장사치들과 자작농 농가들과 그 밖의 여러 계급 국민들이 값진 옷을 입는 허영에 빠져 있는 동시에 쓸데없는 미식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술한 요릿집들, 여러 종류의 매음굴들, 선술집들, 맥주홀들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주사위 굴리기, 카드 노름, 축구·정구, 그리고 고리 던지기 등 도박

행위가 성행되고 있는 꼴을 보십시오. 그런 노름판에서 돈은 물 새듯 빨리 소비되고 맙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들의 종국은 결국 도둑질로 직행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병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농토와 촌락을 폐허화시킨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유한 땅을 농사짓기 원하는 지주, 또는 소작인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됩니다. 소수 부자들만이 토지를 매점하는 것을 억제하여 토지 독점을 불가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공짜로 먹여 살리는 게으름뱅이 수효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농업을 복구시키고, 오직 직조 수공업을 부활시켜서 빈곤 혹은 나태로 인해 도둑놈이 되어 쓸모없게 된 대중에게 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비행과 악행을 교정하는 방도의 발견 없이 도둑놈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만을 자랑삼는 것은 어리석은 수작에 불과합니다. 도둑놈을 극형에 처하는 정책이 표면상으로는 올바른 일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옳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적절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잘못된 교육하여 조금씩 타락하고 부패하는 습관을 순차로 기르도록 내버려두어 나쁜 사람을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씨를 나쁘게 먹도록 훈련시켜 놓고는 나쁜 짓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애초 그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 도둑질했다고 잡아다가 처벌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 있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변호사는 연방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의 말을 일일이 다 대답하는 것보다 요점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요약해 반론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는 변론자가 취하는 정식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외국인으로서의 선생님 말씀은 참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은 이 나라의 사정을 확실히 포착한 지식을 근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들으신 풍월을 그대로 옮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들을 직접 명백하게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그대로 밟아 한 가지씩 해명해 드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사정에 어두우신 선생님이 잘못 관찰하신 것을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첫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네 가지 점에 있어서…….”

이때 추기경이 변호사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잠자코 계십시오. 그런 식으로 당신이 말을 시작하는 걸 보니 말이 쉬 끝날 것 같지 않군요. 지금 당장에 대답하시는 노고를 덜어드릴 테니 당신 대답은 요 다음 우리가 만나는 기회에 하기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소. 라파엘 선생님 사정과 당신 사정이 허락한다면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하지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마디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파엘 선생님, 도둑놈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도둑놈 처벌을 좀 더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도둑놈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물론 않겠지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사형까지도 인간의 악행을 억제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떤 힘, 혹은 공포가 범죄자들을 능히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죄를 지어도 목숨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억제할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형벌을 완화시키는 것은 도리어 좀 더 많은 죄를 지으라고 장려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에 나는 아래와 같이 말했지요.

“가장 존경하는 추기경님, 돈을 조금 훔쳤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내게는 생각됩니다. 한 인간의 생명과 꼭 같이 귀중한 것은 세상에 둘도 없으니까요. 사형 받는 사람은 돈 도둑질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배반하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극단적인 법률이나 심판은 극단적인 해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사소한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까지 칼을 뽑는 무서운 법에 우리는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죄와 남의 돈주머니를 날치기하는 죄의 경중 차별을 두지 않고, 범죄는 모두 다 꼭 마찬가지로는 견해를 표명한 스토아 학파의 학설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더러 공정한 판단을 내리라면 살인죄와 절도죄 간에는 아무런 유사점도 없고 관련성도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살인하는 것을 엄금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돈 조금 도둑질한 자까지 잡아다 죽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그래 옳은 일이란 말입니까? 인간이 제정한 법률 조문에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는 선언이 있으면, 그 조목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률 조목들 중 살인을 금지한다는 조목만

은 제외해도 좋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그 밖의 다른 법조문들, 즉 매음이나 간통이나 위증 같은 중대 범죄까지도 합법화하는 법률 같은 것까지도 인간이 제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남을 죽이는 권리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자살하는 권리까지 박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법률에서는 금지된 사형을 집행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형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피차 합의하기만 하면 천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만일 성립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률보다도 인간의 법률을 더 존중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그런 논의가 용허된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률들 중 어느 정도까지만 인간이 지키면 된다는 한계성을 인간이 결정짓는 중한 죄를 범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모세가 제정한 법률은 노예근성이 몸과 마음에 배고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백성을 다스릴 필요상 몹시 엄격하고 가혹했으면서도 도둑놈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벌금형 정도의 벌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새로이 제정하신 법률은 옛날 유태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제정했었던 전날 법률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잔인한 행동까지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도둑놈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도둑놈과 살인자를 동등한 처형으로 벌하는 것이 사회의 복리를 위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조리하며,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절도범도 사형, 살인범도 사형, 꼭 같은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벌이 조금도 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도둑놈들은 그냥 돈이나 강탈하고 살려 보냈을 피해자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절도범과 살인범이 받는 벌이 꼭 같은 이상 도둑질할 때 증인을 살려두었다가 죄가 탄로 나는 것보다는 증인까지 죽여 없애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죄를 숨기기에 더 쉬울 것이므로 무작정 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에 넘치는 무자비한 형벌을 부과하여 도둑놈들을 무섭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에는 도리어 도둑놈들로 하여금 무죄하고 결백한 사람들까지 살해하라고 충동하는 결과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적절한 처벌방법 발견 문제에 대하여서는 심한 형벌방법 발견보다 좀

가벼운 처벌방법 발견이 더 쉽다고 나는 자신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기술을 최고도로 발달시켰던 옛날 로마 제국 정부가 범죄자들에게 부과시킨 형벌 양식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인들은 범죄자들 몸에 고랑을 채우고 평생토록 채석장에서 노동하는 벌을 주었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보다도 내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페르시아 여행 중 내가 관찰한 방법입니다. 보통 ‘폴릴레리트’⁷라고 불리는 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처벌방법 말입니다. 이 나라 인구는 상당히 많고 대체로 좋은 정치체제 아래 살고 있는데, 최고 통치자인 왕에게 해마다 한 번씩 조공을 바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 사람들 자신이 제정한 법률로 자치생활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망은 거의 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풍부한 이 나라 백성은 국내 소산품으로 자급자족하여 외국과의 통상은 없습니다. 영토 확장을 노리지 않는 전통적인 정책을 가진 이 나라는 만 나라에 전쟁을 걸 생각은 전혀 없고, 조공 국민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과 사망 둘러싸인 험준한 산맥이 국방 역할을 잘 해주어 외국으로부터의 침범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모르고 사는 국민입니다. 호화스런 생활은 아니지만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는 그들은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인접해 있는 나라 사람들 외에는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도둑질한 죄가 발각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때 그 도둑놈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주면 그만이지, 다른 나라에서처럼 도둑놈의 재산이 왕에게 몰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의 소유권이 그 도둑놈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에게도 없다는 법률을 그들은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돈이나 물건이 이미 소멸되고 없는 경우에는 그 도둑놈의 재산을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도둑놈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양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죄판결 받은 그 도둑놈은 그 나라 공공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라는 선고를 받지만, 그의 죄가 극악하지 않는 한, 옥에 가두거나 몸에 고랑을 채우지는 않

7 모어의 고어로서 ‘전혀 무의미’라는 뜻.

습니다. 공공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죄수들이 만일 일하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에는 매를 맞게 됩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질책도 없는 좋은 대우를 받되, 단지 밤이 되면 호명을 끝내고는 침실에 잠금됩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노동을 계속하는 고통 외에, 그들은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만큼 정부 소유 상점들에서 공급해주는 식량으로 그들은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 죄수들을 일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경비 조달방법은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지방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지요, 기부금 모집이란 확실치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폴릴레리트 인들 대개가 다 자선심이 풍부하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죄수들 생활 유지비를 지방청 예산에 편성시켜 지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방 주민 전체에게 인두세를 부과해 비용을 염출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지방에서는 죄수들을 공공 사업장에 취업시키지 않고 일반 주민이 임시로 고용해다가 일을 시키게 하기도 하지요. 하루쯤 임시로 일 시킬 노동자가 필요한 주민은 죄수 직업소개소로 가서 일당 얼마의 품삯을 준다는 약속으로 죄수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일을 시키는데, 죄수에게 주는 품삯은 자유인 노동자에게 주는 품삯보다 조금 적지요. 이렇게 고용해간 죄수가 일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죄수를 때리는 것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죄수들이 일자리 못 얻는 일은 절대로 없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방청에서는 죄수들의 생활을 보장하고도 남는 돈이 약간 생겨 지방청 창고에도 약간의 수입이 있기 마련이지요. 죄수들에게 입히는 옷의 빛깔은 일정합니다. 그들의 머리를 박박 다 면도로 밀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두 귀 위만 짧게 깎아주고, 한 쪽 귀를 조금 잘라주지요. 죄수의 자유인 친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옷(죄수 옷 빛깔과 꼭 같은 빛깔의 옷에 한해)을 선사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돈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돈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사형으로 처벌됩니다. 죄수로부터 자유인이 돈을 받는 것도, 어떤 이유로 받았건 막론하고 사형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죄수들, 실은 죄수라고 부르지 않고 노예라고 부릅시다만, 이 노예들이 무기 다루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각 지방에 따라 지방 자체가 정한 특별한 표식을 노예들의 몸에 달아주어 자유인과 구별하고 있지요. 이 표지를 없애버리거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노예, 다른 지방 노예들과 얘기하는 노예도 사형에 처합니다. 도망을 기도하는 노예도 사형감이고, 노예가 도망가는 것을 방조해주거나, 어떤 자유인의 독점 노예가 되는 것도 사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시도하거나 도망간 노예의 행방을 관청에 밀고해주는 자유인에게는 돈으로 포상하고, 노예에게는 자유를 주어 상을 줍니다. 그리하여 도망갈 궁리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노예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그 나라의 법률이요 정책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형벌을 내리는 목적이 악을 제거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으므로 형벌들이 것처럼 경(經)하고 또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그 식으로 다루어, 범죄자들은 여생을 정직하게 보내는 것이 곧 속죄라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안내인을 고용할 때 자유인보다 노예를 더 신뢰하여 길잡이로 세우고 가다가, 한 지방 경계선에 다다르면 해고하고 입경하려는 지방의 노예를 새로 고용하곤 하지요. 노예들은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혹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그들이 다시 도둑질할 도리는 영 없습니다. 죄를 다시 범하다 발각·체포되면 즉석에서 처벌되는 것이고, 어디서건 도망할 희망을 걸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한 지방 자유인들이 입는 옷과 노예들이 입는 옷이 유표하게 다른 이상, 노예가 도망가려면 벌거벗고 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벌거벗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한쪽 귀가 조금 잘린 것이 도망한 노예라는 것을 폭로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들이 계속하여 정부를 둘러엮을 음모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참말로 하나의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노예는 다른 지방으로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타 지방 노예들과 만나 전국적인 반란음모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방 노예들과는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서로 건네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란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위험

하고, 밀고자의 입장이 그렇게도 유리한 만큼 음모를 꾸미는 모험을 시도할 노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예들 중 누구든지 복종 잘하고 참을성 있고 개전의 정이 보여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망을 보이면 종국에 가서는 자유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를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없어, 도망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인내성의 보상으로 특사를 받아 자유인으로 환원하는 노예들의 수가 상당히 많 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끝낸 나는 이런 방법을 영국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없고, 만일 영국에서도 그 방법을 적용한다면 조금 전 변호사가 극구 칭찬한 소위 ‘정당한 심판’보다 더 유리하게 제정할 수 있으리라는 말을 덧붙였지요. 나의 이 말에 대해 변호사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각오 없이는 그런 제도를 영국에서는 채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머리를 저으면서 얼굴을 찌푸려가며 이 말을 하고 난 그는 잠잠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동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호사의 의견에 동감인 것 같이 보이더군요.

그러자 추기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여태 시험해보곤 일이 없는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예언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도둑놈에게 사형을 언도 하고 나서 범인이 도망가 숨으면 법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비호소의 특권은 주지 않고 임금님께서 얼마 동안의 형 집행유예를 주어 기다려 보아 그런 제도운영이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타나는 때에는 그런 제도를 확립하고, 실패할 때에는 종전에 사형선고 받았던 범인을 사형에 처해버리지요. 이런 시험을 해보는 것은 사형집행을 좀 일찍 하는 것보다 무어 더 불리할 것 없고, 부정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 큰 위험이 개재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도둑놈들뿐 아니라 부랑자들까지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루어보면 좋으리라고 내게는 생각됩니다. 부랑자 단속법은 수없이 통과시켰지만 아직 별 특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깐요.”

내가 제의했을 때에는 비웃기만 하던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의사를 추기

경이 발표하자 모두들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더군요. 특히 부랑자들도 같은 식으로 다루어 보자는 의사에 그들의 찬사는 유난하더군요. 남이 아닌 추기경님께서 부랑자 얘기를 첨가했기 때문이었지요.

그 다음 생긴 일은 하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얘기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의 화제와 관계가 있는 재미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 연방 서성거리면서 돼먹지 않은 농담을 던지는 식객 하나가 있었는데, 어리석은 농담들을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 사람 자신이 바로 멍청이처럼 보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농담들이 어떻게든 케케묵고 진부하고 우둔했던지 우리가 웃는 것은 농담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우스워서 웃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그도 제법 재치 있는 말도 던지곤 했어요. 이를테면 주사위를 자주 던지는 자는 혹시 운수 좋은 주사위를 던질 때도 더러 있다는 속담이 옳다고 증명이나 해주는 것처럼. 동석자들 중 한 사람이 나의 얘기로도 독놈들에 대한 훌륭한 법률이 발견되었고, 추기경의 얘기로 또한 부랑자들을 단속하게 되었으니, 지금 남은 문제는 질병 혹은 노쇠로 인해 일을 못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는 방도를 연구하는 일 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바보가 맞받아 말했어요.

“그건 나에게 맡겨두세요. 내게 맡기기만 하면 아주 적절하게 처리할 테니까요. 만 부득이 가난해졌으니 한 푼 적선해 달라고 애소하는 자들처럼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은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그 자들이 제아무리 애처로운 목소리로 구걸해도 내게서 한 푼이나마 뜯어내기에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지 못합니다. 한 푼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마음조차 애초 생기지 않거니와, 설혹 마음이 동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줄 돈이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 성미를 잘 아는 거지들은 나에게 아무리 빌어봤댔자 피천 한 푼 안 나올걸 알고 있으므로 아무 소용도 없는 구걸로 나에게 시끄럽게 굴지 않고, 내가 그들 앞을 순순히 지나쳐버리도록 둔답니다. 내가 신 부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거지에게 절대로 적선하지 않아요. 그 대신 거지들을 다 쓸어다가 절간으로 보내 수용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쓸래요. 시내

거지들은 베네딕트 회가 경영하는 수도원으로 보내 수도자 아닌 돌종을 만들고, 여자 거지들은 수녀원으로 보내 수녀가 되게 하고.”

바보의 이 말을 추기경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신중히 고려하고요. 그러나 이 바보의 말이 신부들과 수도사들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한 탁발승, 신학 지식이 풍부하고 보통 때는 냉혹하다고 보일 정도로 엄숙한 탁발승이 바보를 마구 놀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우리 탁발승들까지 돌봐주지 않는 한, 당신은 거지 떼의 성화를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하고 그가 대들더군요.

그러자 바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추기경님의 제안에 의해 당신들은 이미 훌륭한 대우로 돌봐줌을 받게 된 셈이 아닙니까. 부랑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일을 시키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네 탁발승들은 세상 제일가는 부랑자들이 아닙니까.”

바보의 이 말을 추기경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를 확인하려고 그의 표정을 살피던 모든 사람은 추기경의 기분이 상하지 않은 것 같은 기색을 보자, 모두 바보의 농담을 재미있게 여기는 데 반해, 유독 탁발승은 화를 내더군요. 여러분도 쉽사리 상상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별안간 화를 내는 그 탁발승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바보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바보를 망나니라느니, 뒤에서 남의 험담만 하는 놈이라느니, 중상모략에 능한 놈이라느니 하고 욕설을 퍼붓고 난 그는 이어서 지옥으로나 가라고 저주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독하게 무서운 협박을 마구 쏟아놓더군요.

그러자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바보는 극히 침착한 태도로 욕설을 퍼붓는 탁발승을 놀려댔어요.

“착하신 탁발스님, 무어 그리 화내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는 구절이 있으니까요.” 하고 말하더군요.

이 말에 탁발승이 대답한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 사기꾼아, 난 화를 낸 게 아니야. 아니 혹 화는 내되 화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구약 시편의 작가인 다윗 왕이 ‘화는 내되 화로 인하여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자 추기경이 탁발승더러 흥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그러자 탁발승은 추기경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추기경님, 제가 화를 낸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성직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놀리는 놈을 저주할 따름이올시다. 성현들은 악한 자를 저주하는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성경에 '당신 덕의 저주가 저를 삼켜버렸나이다'라는 구절이 있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 올라가는 엘리사를 보고 그가 대머리라고 조롱하던 아이들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엘리사가 저주하는 바람에 형벌을 받았도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⁸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들을 조롱하는 저 고얀 놈, 저 사기꾼, 저 상스러운 놈도 응분의 벌을 받으리라고 저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추기경이 말했어요.

“당신의 의도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익살꾸러기 말재주꾼과 대항해 말씨름을 하려면 좀 더 거룩하게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는 못하더라도 좀 더 현명하게는 놀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탁발승이 대답했어요.

“추기경님, 제가 좀 더 현명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웠던 솔로몬 왕도 '바보의 말에 대답할 때에는 그 어리석은 말과 대등되는 어리석은 말로 대답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꼭 솔로몬 왕이 말한 대로 본받아 행동하는 거예요. 저 바보가 조심하지 않으면 홀렁 빠질 구렁텅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대머리인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그의 저주로 인해 사십여 명이 몰사했는데, 단 한 놈의 조롱자가 대부분 대머리라고 자작 느끼고 있는 수많은 탁발승들을 조롱할 때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직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파문하라는 교황의 교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간파한 추기경은 바보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몸짓을 하고나서 우리의 화제를 탄 데로 돌렸어요. 조금 뒤 일어선 그는 우리와 작별

8 구약 열왕기하 2장 23~24절.

하고 탄원자들의 소청을 들으려고 탄원실로 가버리시더군요.

“모어 선생, 내가 너무 긴 얘기를 늘어놓아 선생은 무척 지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선생께서 내 얘기 듣기를 진심으로 요청하지 않으셨던들, 나는 이런 얘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경청하고 계시는 것같이 내게는 보이더군요. 내 얘기를 거두절미 짧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어떤 제안을 내놓을 때 처음에는 나를 비웃던 자들이, 추기경이 내 제안에 싫어하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마자 즉각 모두 내 제안을 찬성하는 추태를 부리던 자초지종을 좀 자세히 얘기하노라니 그만 얘기가 자연히 길어졌군요. 추기경이 내 제안을 성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한 바보의 농담으로 여기고 찬성하는 듯한 기색을 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기경이 찬성한다고, 처음에는 비웃은 자들이 무조건 내 제안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아첨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보아 조무래기 궁정 관리들이 나 자신 혹은 내 충고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리라는 것은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척 현명한 말씀을 매우 재미있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파엘 선생님 말씀 듣고 있노라니 나는 소년으로 환원되어 내가 자라난 고장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얻었어요. 소년 시절의 나를 길러주신 그 추기경님의 가족을 회상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다른 일들로도 선생님은 저에게 귀하신 분이지만, 날 길러주셔서 다정한 추억을 지니고 있는 추기경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신 것으로 얼마나 더 선생님이 제게 귀하신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아마 상상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 소견은 지금에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왕궁에 대한 혐악을 극복하실 수 있어서 왕의 고문관이 되어서 왕을 충고하면 그것은 전체 인류에게 크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개개인의 주된 의무가 아닐까요. 나라가 행복스럽게 되려면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그렇찮으면 왕이 철학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왕의 고문관이 되어 왕을 도와주는 것이 치사한 일이라고 싫어하는 철학자들이 있는 한, 행복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파엘이 대답했다.

“철학자들은 선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몰인정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가까이 왕들을 충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저서를 통해서 왕들을 충고했어요. 그들의 의견을 진술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권세 잡은 자들이 철학자들의 좋은 충고를 듣고 싶으면 그 책들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란 어려서부터 그릇된 가치 관념과 판단에 스며들고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철학자가 되지 못하는 한, 철학자들의 충고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파한 플라톤의 판단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정확한 것입니다. 시라쿠사의 폭군 디오니시오스⁹와 접촉해 본 결과 어렸을 때의 그릇된 교육이 철학자의 충언을 무시한다는 예를 플라톤 자신이 발견했지요. 내가 만일 어떤 왕에게로 가서 그에게 현명한 법률들을 제정·실시하라고 제안하는 동시에 근위 성격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씨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시도해 본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궁에서 쫓겨나오거나 그렇잖으면 조롱의 대상이나 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프랑스 왕의 고문관이 되어 어전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상해 봅시다. 왕이 직접 사회하는 회의에서 많은 현명한 고문관들이 제각기 발언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왕은 어떤 음모 또는 권모술수라도 써서 지금 손아귀에 쥐고 있는 밀라노를 굳게 지키고, 손아귀에 넣었다가 놓쳤다 해온 나폴리를 도로 찾고, 베니스 정부까지 전복시켜 이탈리아 전부를 정복하고 나서, 그 밖에 플랑드르와 브라반트과, 심지어는 부르고뉴 전역까지 자기 영토로 만들고, 다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침범하려고 계획하는 데, 어떤 수단방법을 쓰면 이 야망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현명한 고문관들이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श्य.

9 시칠리아 시라쿠사를 다스린 폭군(B.C. 405~367년). 늘그막에는 문학과 예술을 진흥시키려고 예술계 대가들을 궁전으로 초청해 환대했는데 손님들 중 플라톤도 끼어 있었음. 플라톤은 이 디오니시오스를 극력 충고했지만 아무 보람도 없었음.

한 사람은 베니스 정부와 군사동맹(단지 일시적 방편으로)을 체결하여 다른 지역들과 나라들을 정복하는 계획에 참가시키고, 정복에 승리하는 때에는 전리품까지 베니스와 더불어 나누어 가졌다가, 그 뒤 이쪽 치밀한 계획이 성공되면 베니스를 정복해버리고 이전에 나누어 주었던 전리품을 도로 빼앗는 정략을 세워야 된다고 왕에게 강력히 진계하겠지요. 다른 한 사람은 독일인 용병을 고용해 전쟁에 앞장 세우고, 스위스는 중립을 지키도록 돈 주어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황금을 신성한 제물처럼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왕을 달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라곤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나바라 지역을 아라곤 왕에게 반환해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진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카스티야 왕에게 군사동맹을 맺자는 미끼를 던져 함정에 빠뜨려놓고, 그 나라 신하들에게는 연금을 지불하여 프랑스에 이롭도록 매수해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영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영국과는 가장 강력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교섭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진언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동맹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사슬로 묶어놔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세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국인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원수처럼 의심해야 하며, 영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동요되는 기색을 보일 때에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즉각 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반란의 준비를 갖추도록 비밀리에 공작하는 것이 좋다고 진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왕으로 하여금 프랑스 왕과의 평화조약을 엄수하도록 만드는 압력을 가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영국에서 추방당한 귀족들 가운데 영국 왕위를 노리는 자를 물색하여 그를 비밀리에 지지(공개적 지지는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니) 해야 된다고 진언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재기에 넘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전쟁 수행에 대한 공동계획을 세우느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좌중에,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들이 꾸미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에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프랑스 왕국은 이미 너무 비대해져서 이 나라 하나만도 한 사람이 잘 다스리기에는 너

무나 큰데,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늘일 생각은 아예 말고, 이탈리아 정복의 꿈도 그만 꾸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나 잘 유지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제의를 나 같은 사람이 낼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를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토피아 섬 동남쪽 가까이 살고 있는 아코르¹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법령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매우 오래전에 이 나라 백성들이 다른 왕국과 전쟁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멀고 먼 옛날 이 나라 왕의 선조가 그 나라 왕족과 결혼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합할 취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나라를 정복하고 보니 그 나라를 유지하기 힘든 것은 그 나라를 빼앗을 때 힘들인 것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어요. 이 새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은 설 새 없이 각처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외국 침략군들은 또 그대로 항시 침범해 들어오더라요. 새로 편입된 지역 백성들이 일으키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과, 외국의 침략으로 그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설 새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 아코르는 군대해산이란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대요. 그러노라니 본국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자주 올라가기 마련이요, 전쟁 때문에 막대한 돈이 소모되어 국가 경제가 파선에 직면하면서 정복된 나라 백성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보장이나 희망은 조금도 없이 단지 왕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은 피를 흘려야 했어요. 오래 끄는 전쟁으로 인해 국민의 도의심은 썩을 대로 썩었지요. 노략질과 폭력행사, 욕망은 더욱 더 강화되었지요. 두 나라 다스리기에 경황없는 왕이 양쪽 백성을 다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법률은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지요. 이런 사회악 근절이 부지하세월이리라라는 것을 간파한 본국 백성들은 왕에게 탄원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10 그리스어로 '없는 곳'이라는 뜻.

두 나라를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 어느 쪽 나라든 왕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하나만을 골라잡아 다스려 달라는 탄원이었어요. 그들은 국왕이 두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다는 사실과, 자기네들을 반쪽 임금에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효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비천한 노새몰이들까지도 노새들을 따로따로 맡아 몰지, 혼자서 노새 두 마리를 몰수는 없다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래서 이 착한 임금은 그럼 하는 수 없다고 단념하고 본국만을 골라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새로 편입되었던 나라는 어떤 친구에게 양도했어요(그 친구는 얼마 못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지만).

끝으로, 전쟁을 여러 번 하면 국민 전체는 사회적 혼란에 빠지고, 국고 금이 소진되어 왕 자신이 자기의 국민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며 그런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자칫하면 어떤 부군을 만나 싸운 보람이 하나도 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그 프랑스 왕의 고문관 회의에서 내가 꺼내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나라나 잘 돌봐 가능한 한 국민생활의 개선에 노력하라고 나는 그 왕에게 강권할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고 피통치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진언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 틈에 섞여 살면서 선정을 푸는 데만 노력을 기울이고, 그가 지금 맡아 다스리고 있는 나라 자체는 혼자 다스리기에는 너무 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넉넉히 큰 만큼, 판 나라들까지 병탄하려는 생각은 아예 말고 그들대로 내버려두라고 나는 왕에게 충고할 것입니다. 이런 나의 발언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리라고 선생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럼 말을 계속 하십시오. 왕의 금고를 채우기 위한 돈을 거두는 방법을 왕의 고문관들이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기로 합시다. 왕이 빚을 갚을 때에는 돈의 평가를 올리고, 세금 또는 기타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평가를 절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건의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나라와 금방 전쟁을 시작하는 척하여 전쟁 준비금 조로 돈을 긁어모으고, 돈을 거둬들인 후에는 곧 평화조

약을 맺었다고 공포하면, 전쟁 발발 일보 전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임금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큰 데 기인한 것이라고 국민은 생각하는 동시에, 백성의 생명을 아끼시는 임금님의 고운 마음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기뻐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건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런 제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먼 옛날 실시되다가 중단된 법률, 즉 법률가들은 시대에 뒤진 소용없는 법률이라는 규정을 내렸고,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린 국민들은 그 법에 저촉되는 죄를 무의식중에 범하게 되는 케케묵은 법을 되살려가지고 강행하여 위반자에게서 벌금을 징수하면 막대한 돈이 왕의 금고로 들어올 뿐 아니라, 옛날 법이기는 하지만 법을 강력히 시행하여 국민 간에 준법정신을 양양하는 좋은 일을 하는 데 대한 왕의 신임도가 국민 간에 높아지리라고,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또 이런 건의를 하겠지요. 즉 위반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는 새 법령의 제정·실시, 특히 건전한 공동 사회생활에 이롭지 못한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자들에게는 막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왕은 백성의 호감을 사면서 국고수입은 배가 될 것이라고. 공동사회체에 이롭지 못한 영업 면허를 얻으려면 막대한 금액을 바쳐야만 되는 제도를 수립해 놓으면, 그런 영업 면허증을 많이 팔면 팔수록 국고수입은 느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왕이 국민의 복리를 위해 크게 심뇌하시느 착한 분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재판관 전원에게 명령을 내려, 무슨 소송사건이건 전부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판사들을 궁으로 자주 불러들여 왕과 관계된 소송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논쟁점을 왕이 직접 듣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왕의 청구권이 아무리 부당하다 할지라도 판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내세워 왕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모순되는 판결을 내리기 좋아해서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판사는 남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괴상한 행위를 자랑하려고, 또 어떤 판사는 왕에게 곱게 보이기 위해 법률의 맹점이나 뒷구멍을 발견해서라도, 혹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조문 해석을 왜곡해서까지라도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만일 판사들로 하여금 서로

의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논쟁점과 진실을 문제로 모아 왕에게 보고하게 하라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법률조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판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협박·공갈로 왕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그리되면 그들이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데 대담해지리라는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하기에 편리한 구실은 언제나 얼마든지 있다고. 예를 들자면 관습법이 왕의 편을 들어준다는 구실, 혹은 법률조문 용어해석이 왕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구실, 혹은 법률용어의 의미가 복잡하고도 애매하다는 구실 등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판사라면 왕의 의지가 언제나 법률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왕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최고심판관인 왕에게 상고케 하여, 왕 자신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세워 재판관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왕의 고문관들은 크라수스가 내세운 원리에 모두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라수스가 주장하는 원리에 의하면, 군대를 유지해나가야 하는 왕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그것은 언제나 부족하며, 왕은 언제나 공정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서, 설사 그가 부당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모든 재산은 물론 인신까지도 모두 왕의 소유이므로 왕의 착하신 마음이 동하여 백성들에게 재산을 좀 하사해주고 싶어질 때 하사해주는 재산 외에 백성들은 재산을 가질 수 없고, 백성이 가난하고 부자유하면 할수록 왕에게는 더 유리한 만큼 가능한 한, 국소액의 재산을 백성에게 하사하는 왕이 현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부유와 자유를 가진 인민은 잔인하고 부당한 통치자 앞에 굴복하는 일이 극히 적고, 가난해야만 그 가난이 인민을 둔하게 만들어주고 인내하게 만들어주어, 만일 그렇지 않았던들 반역을 일으킬 정신을 가난이 억누르고 깨뜨려버린다는 주장이 곧 크라수스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 말입니다, 이 따위 건의들만 토의되고 있는 고문관 회의 좌석에서 만일

내가 일어서서 지금까지의 모든 진언이나 충고는 왕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파감을 가져다 줄 그릇된 고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발언은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왕의 명예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토대는 왕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인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나는 강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택하는 목적은 왕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 자신을 위해서라고, 즉 그들이 택한 왕이 그들에게 편안하고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노력해 달라고 택한 것인 만큼, 양치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양 떼를 더 잘 돌봐주어야 하는 것처럼, 왕도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에 노력하는 대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나는 역설할 것입니다. 인민의 가난이 공중의 평화를 보장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오류입니다. 거지들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자가 어디 또 있습니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보다 더 사회질서의 변경을 갈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폭동에 누구보다도 더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자들은, 그 폭동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것은 하나도 없고, 소득만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실정으로 인하여 왕다운 권위를 잃고 단지 백성을 모욕하고 학대하며, 백성의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을 가난에 몰아넣어 가지고야 겨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의 미움과 경멸을 받는 왕이라면 그런 왕권을 유지해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왕의 자리를 버리고 물러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부유하고 행복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지 떼나 다스리는 왕은 왕의 권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로 봐야 한다고, 그래서 왕족 따위의 이름을 듣기 거북해 하는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인 파브리키우스¹¹ 같은 분은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기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신음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치자 혼자만이 부유하고 쾌락한 생활을 즐긴다면 그가 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니고 감옥소 간수의 일이라고,

11 기원전 3세기경의 로마의 집정관. 청렴결백으로 유명하였음.

한 환자의 병을 치유시켜주지 못하고 그 환자를 다른 한 환자에게 떠맡기는 의사는 엉터리 의사라고, 인민의 쾌락을 박탈해야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임금 은 자유 인민을 다스릴 줄 모르는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민이 왕을 미워하고 경멸하도록 만드는 원인은 왕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 증 혹은 자만심에 있는 것이므로 왕은 그런 결점을 뿌리째 뽑아 없애야 된다고, 왕은 남을 해치고 빼앗은 돈을 가지고 살 생각을 말고 자기 자신의 정당한 수입만으로 생활해야 되고, 그의 생활비 지출은 수입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왕은 인민의 범죄를 억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율 증가를 못본 채 버려두었다가 사후에 처벌할 궁리만 하지 말고, 왕 자신이 현명한 처신으로 본보기를 보여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아 이미 폐지된 법률들, 특히 잊어버린 지 오래고 국민이 절대로 원치 않는 법률들을 부활·시행하는 따위 경솔하고 지각없는 일을 왕으로서는 결코 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피의자가 변 돈이 악랄한 수단과 사기로 변 돈이라는 사실이 판사에 의해 규명됐을 때에는 그 피의자에게 벌금형만 부과하여 재산만 몰수하고 체형은 면제해 주는 등의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충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유토피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라인 마카렌스¹² 사람들이 쓰고 있는 법에 대한 얘기를 왕의 고문관 회의 석상에서 들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나라 왕은 통치를 시작하는 날 엄숙한 취임식 식당에서 국민 앞에 서약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는 국고금으로 황금 일천 파운드, 그것이 은인 경우에는 금 일천 파운드 가격에 해당하는 양의 은 이상 더 요구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서약입니다. 이런 법을 처음 만든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전 어떤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알려주더군요. 그 왕이 이런 법을 만들게 된 의도는, 그 나라 인민 전체의 번영보다도 왕 한 개인의 부유에 더 관심을 두는 왕이 혹시 등극하게 되는 경우 인민을 피폐하게 만들면서까지 왕 개인의 재물에 대한 욕심만 채우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었대요.

12 그리스어로 '축복 받은 나라'라는 뜻.

그만한 돈을 가지면 국내 반란을 진압하는 경비, 혹은 외국의 침범을 방어하는 전쟁에 드는 비용의 충족에는 넉넉하고, 왕이 다른 나라들을 침벌하려고 욕심내기에는 부족한 액수입니다. 이 법을 제정한 몇 가지 목적들 중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한 왕은 국고금으로 그만한 액수의 돈만 확보해 놓으면 왕실의 일상 생활비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 법으로 정해진 액수에 초과되는 돈이 국고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왕이 그 돈을 인민에게 분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탄압할 마음을 먹지 않으리라고 까지 생각했대요. 이런 류의 왕은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선한 국민들에게는 사모의 대상이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견해와는 정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견해를 내가 억지로 권한다면 그것은 귀머거리 귀에 입을 대고 소리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귀가 완전히 먹은 자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될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귀머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것 없지요! 바르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타일러도 염두에도 두지 않을 자들에게 선생님이 충고할 필요가 없지요. 충고했잖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가지신 목표와는 정반대의 목표에 대한 선입관이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는 자들에게 그런 대담한 충고가 과연 얼마만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여 자유토론을 할 때라면 그런 학구적인 철학론을 전개시키는 것이 조금도 불유쾌하지 않지만, 정부의 공적 사무가 진행되고 있는 왕의 고문관 회의에서는 학구적 철학론이 다루어질 여지는 없습니다.”

라파엘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여하한 철학론도 전개할 여지가 없지요.”

내가 말했다.

“없다니요?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기회에나 어떤 자리에서나 다 적당히 토

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변철학 논의는 그런 자리에서는 토의가 불가능하지만, 사변철학보다는 더 우아하고 세련된 융통성 있는 철학이 있어, 말하자면 상연되고 있는 연극에 적합한 대사를 스스로 맡아가지고 그 맡은 바 역을 적절하고도 우수하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고문관 회의 때 제출해도 통하는 철학은 이런 종류의 철학입니다. 플라투투스¹³가 쓴 희극 상연에 등장시킨 노예들이 농담을 서로 주고받을 때 철학자 복색을 한 선생님 같은 분이 난데없이 별안간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세네카가 네로 황제에게 가르치는 말을 ‘팔행시’에서 그대로 뽑아 인용·낭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반대되는 것을 뒤섞어 상연해 어리석은 희비극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아무 말 말고 침묵을 지키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당장 상연되고 있는 연극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각본에서 따온 대사라 할지라도, 상연되고 있는 연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조화가 안되는 대사를 무대 위에서 읽으면 그 연극을 망쳐놓는 일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니까 당장 상연되고 있는 연극에 가능한 한 적응해 나가되, 선생님 마음속에 더 재미있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그걸 크게 외쳐서, 그때 상연되고 있는 연극을 망쳐놓지는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살고 계실 때나, 어떤 왕의 고문관 회의에 참석하실 때 그때그때 기분에 어울리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악독한 의견들을 설혹 뿌리째 뽑아 내지는 못한다더라도, 습관화되어버린 태도들을 선생님이 바라시는 대로 섭정하는 데 실패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 나라를 버리셔서는 안되겠습니다. 거센 바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폭풍우 속으로 향해하던 배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의 생각이 선생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실 때에는,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충고를 들으라고 강요하셔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책 지도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왕을 착하게 만드는 데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덜 악한 사람이 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13 고대 그리스의 희극작가. B.C. 254~184년

모든 인간이 다 착해지지 못하는 한,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착하게 될 날은 요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내가 만일 왕의 고문관이 되어 고문관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내가 기대할 것은 단 한 가지 밖에 더 없습니다. 그것은 미친놈들의 미친 증세를 치유해보려고 애쓰던 나 자신까지가 중국에는 미쳐버려 그 미친놈들과 한데 어울려 날뛰며 지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 충고에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충고가 어째서 부조리에 가까운 주제 넘는 충고라고 그들이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플라톤이 그의 저서 《국가》에 묘사한 정책들을 옹호하거나 혹은 유토피아 인들이 현재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 즉 내가 강조하는 정책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유토피아인들의 정책들을 내가 아무리 옹호하고 창도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이 나라에서는 발붙일 곳을 발견할 수 없다는 확실한 사실을 나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재물이 개인 각자의 사유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플라톤이 그려낸 국가나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물건이 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정책들을 아무런 자리에서건 강조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 얘기가 유쾌한 기분을 줄 리 만무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만, 내 얘기가 그들의 악행을 제지하는 역할과, 그들의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풍속이 세상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조잡하고 부조리하다고 결정지어버리고, 사물의 본질 자체까지를 무시하려 드는 것을 묵인해준다면 기독교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성명 대부분을 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묵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가르침심을 남에게 전도할 때 방구석에

서 속삭이지 말고 지붕 위로 올라가 만천하를 향해 크게 외쳐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그의 가르치심을 무시해버려도 좋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정책들과 우리의 실제 일상 생활양식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우리 생활방도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 대부분과는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영리하기 짝이 없는 성직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모여 선생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간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 원형에 맞추어질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을 간파한 성직자들은 예수의 가르치심(그것을 마치 무기력한 법칙이라고 인정하는지)을 인간의 풍습에 갖다 맞추어 이력저력 일치점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만큼 내가 볼 수 있는 결과란 곧 인간은 오래 악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보다 더 굳게 확신해 놓았다는 단 한 가지 결론입니다. 왕궁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것뿐일 겁니다. 즉 나 혼자만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나더러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따돌릴 것이고, 내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면 나는 미친놈들의 보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테렌티우스가 등장시킨 미티오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¹⁴ 정책지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접적으로 하여 최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되,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악하기는 그냥 악하면서도 악한 중에나마 가능한 한 최소한의 선을 바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씀, 나는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고문관 회의에서는 침묵이나 마지못해 하는 복종이나 묵인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법이니깐요. 아무리 졸렬한 계획이나 가장 해로운 결의를 통과시키거나 승인할 때도 고문관 개개인은 찬성한다는 의사를 공개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빨리 해야지 잠시라도 우물거리다가 마지못해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적의 간첩 아니 심지어는 반역자라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패시킬 힘을 가진 동료들 틈에서 혼자서 동료들을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4 테렌티우스(B.C. 185~159), 고대 로마의 희극작가. 그의 희곡 《형제들》에 미티오라는 인물이 등장함.

왕의 고문관이 되면 동료들의 꼬임과 압력에 못 견디어 부패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못한 놈이라고 동료들로부터 규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속 건전하고 순진한 생각을 품고 있거나, 양자택일의 판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정책 지도로 사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실제와는 거리가 너무 먼 망상에 불과합니다! 플라톤이 기가 막히게 훌륭한 비유로, 현명한 사람들은 나라 정치에 부질없는 간섭을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¹⁵ 곧 비 오는 날 술한 사람들이 거리가 메일 정도로 나다니며 비를 흠뻑 맞고 있는 것을 본 현인은 비 내리는 거리로 나가서 비 맞으며 다니는 군중더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인이 나가봤댔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자신까지 비만 맞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현인은 집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의 어리석은 것을 시정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만은 안전하니까요.

그렇지만, 모어 선생,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 사회에 사유재산제도가 그냥 남아 있고, 금전의 다과가 모든 것의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는 한, 한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린다거나 국민을 행복스럽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물건은 가장 나쁜 놈들의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공정한 정치가 될 수 없고, 모든 것을 몇몇 사람들끼리만 나누어 가지게 되니 대중은 행복스럽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몇몇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가지기는 하지만 실은 그리 넉넉히 가지는 것이 못되고, 나머지 대중은 비참하게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현명하고도 신성한 유토피아의 여러 가지 제도와 기관과 관습을 회상해 보곤 합니다. 아주 몇가지 안 되는 소수의 법률들만 가지고도 나라를 참 잘 다스리거든요. 그 나라 인민들 간에는 미덕이 포상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균등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15 플라톤의 《국가》.

새로운 법률들을 자주 만들어내면서도 어떤 일인지 만족할 만한 사회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과 유토피아를 대조·비교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개개인이 제각기 자기 재산을 모아 소유하고 있노라고 말들은 하지만, 매일같이 통과시키는 술한 법령들 때문에, 정작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모으거나 보존하기란 매우 어렵게 되는 동시에, 제 것과 남의 것을 만족스럽게 구별할 도리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재산소유권 쟁탈소송이 매일 제기되도 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권의 한계가 명백치 못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나는 플라톤의 의견에 더욱 더 찬사를 보냅니다. 모든 것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를 거부하는 인민을 위하여서 법률 만들기를 거절한 플라톤의 태도에는 이상스러울 게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그인지라 인민을 행복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도는 재산의 균등소유제도 설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¹⁶ 개개인에게 재산소유권이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균등을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개인이 자기만이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눈이 빨개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 전체의 재산을 몇몇 소수인들만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대중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지요. 이런 제도가 가져오는 일반적인 결과는 두 가지 종류의 인민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쓸모는 도무지 없으면서도 탐욕이 강하고 악독한 종류의 인민과 그와 대조되는 주체넘지 않고 겸손하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국가에 봉사하는 종류, 이 두 가지 인민으로 갈리는데, 이 두 종류의 행운은 서로 바뀌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도가 근절되지 않는 한, 물품의 공정한 분배는 불가능하고, 동시에 행복스럽게 다스림 받는 세상이 올 리 만무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유재산제도가 존속하는 한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훌륭한 축에 속해 있는 인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근심 걱정과 불안한 짐에 눌러 신음할 것입니다.

16 디오게네스 래티우스가 플라톤의 일생기를 쓴 글에서 플라톤이 경험한 한 사건기록을 뽑아 예로 든 것임.

이 짐을 약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도는 있다고 나도 시인합니다만 전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하는 방도는, 한 개인이 어떤 제한된 넓이의 토지 밖에 더 소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제한된 액수 이상의 돈은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들을 제정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또 왕의 세도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는 법률, 그리고 인민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엽관운동이나 매관매직행위, 또는 관리들이 소비하는 비용을 과중하게 짊어지는 일들을 불법화하는 것도 한 방도겠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관리들은 그 자리를 살 때 패물 주어 손해 본 돈을 회수하려고 부정한 방법과 권력을 남용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십상이고, 일이 그 지경이 되면 마땅히 현명한 사람들이 차지했어야 할 관직은 돈 많은 부자들을 찾아 매매가 되지요. 좋은 간호가 위독한 환자치유에 필요한 것처럼 이런 류의 법들이 큰 효과를 거둘지도 모르지요. 이런 법들로 사회악을 약간 감쇠시키고 완화할 수는 있지만, 사유재산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사회의 병폐를 완전히 치유시켜 사회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쪽에 생긴 병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도리어 다른 쪽 병세를 악화하게 하는 수도 있으니 까요.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에게 무엇이고 주려고 하면은 딴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줄 수 있는 사회제도 하에서는 한 가지 악을 교정하려면 다른 악을 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선생님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회에서 행복스런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다 일을 중지해버릴텐데 어떻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노리는 동기나 희망이 없는 자는 남에게 의존하려 들어 게을러지게 마련입니다. 남이 번 돈을 가로채고 싶어 하는 극빈자가 많아질 텐데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 모은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더구나 치안관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기풍이 없어진다면 거기 따를 사태는 끊임없는 유혈과 소란 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상하의 차별이 없이 개개인이 균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에

서 권위가 존중되리라는 징조를 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파엘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지식을 못 가지시고, 아니 혹 가지셨더라도 왜곡된 지식 밖에 가지지 못하신 선생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기에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도 나와 같이 5년간이나 그 나라에 체류하면서 그 나라 풍속 · 습관 · 제도 · 기관 등을 직접 보셨더라면, 선생도 그 나라처럼 질서가 정연히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을 평생 본 일이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 새 나라 사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들 나는 그 나라를 떠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피터 힐러스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아무리 말씀 잘 하셔도 그 새 나라가 이미 알려져 있는 나라들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 쉽게 납득시키지는 못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 나라 사람들보다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가 그 나라 정부의 역사보다 더 길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랜 경험이 우리 생활상 편리한 여러 가지 발견에 도움을 주었고, 인간의 보통 재능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파엘이 대답했다.

“당신이 그 나라 역사책을 먼저 읽고 말했더라면 그 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나라 역사책들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는 인간이 거주하기 전에 벌써 그 나라에는 여러 도시가 서 있었어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행운, 혹은 재간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타고난 재능은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을 능가하지만, 배우려 드는 열성과 근면성은 우리가 그들보다 멀리 뒤떨어져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 나라 역사책을 읽어 보면 약 1200년 전에 외국 배 한 척이 폭풍 풍랑에 밀려 유토피아 섬까지 와서 해변에서 파선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우리가 그 나라에 상륙하던 날까지 적도 저

쪽 사람들(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더군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었다고 말들 하더군요. 그때 파선된 배로부터 몇 명의 로마 인들과 이집트 인들이 구조되었는데, 그들은 그 섬에서 떠나가지 않고 여생을 거기서 보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 배 한 척이 그 나라 근처에서 파선당해 외국인 몇이 그 나라에 머물러 살게 된 기회를 부지런히, 또는 열심히 이용한 그들은 큰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문명의 소산인 유용한 모든 기술들을 표착한 로마인들로부터 유토피아 인들이 잘 배웠다는 점입니다. 로마인들의 강의를 들어 직접 배우기도 하고, 그들이 질문하는 데 대한 로마인들의 대답을 들어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몇 명의 유럽 인이 그 섬에 내렸다는 단순한 한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우연으로, 가령 그 나라 사람 몇이 이 땅에 왔다고 가정해 볼 때, 이 땅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도 않을 거고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왔던 일까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나라에 갔다 온 일까지도 때가 이르면 이 땅에서는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토피아 인들은 조그만 우연이라도 잘 붙잡아가지고 외국 문명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발명한 온갖 문명이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쪽 제도나 기관들이 우리네 것보다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저쪽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내게는 생각됩니다. 몇 백 년 뒤에는 또 어떨는지 모르나. 이 배우고 싶은 수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나 재산 정도가 그들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정치를 더 잘하고 우리보다 더 행복스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다.

“라파엘 선생님, 그것이 참말하라면 그 섬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약해 간단히 말씀하실 생각은 아예 마시고 그 나라의 토지 · 강, 마을과 읍들, 주민들의 생활양식, 제도와 기관들, 법률들 등등 저희가 알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하신 것 전부를 차례차례로 다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다 알고 싶어 하는 심정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 나라 모든 광경이 아직 내 머리에 싱싱하게 살아 있는 만큼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내게는 없겠소. 그러나 얘길 다 하자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우선 우리 점심 요기나 하십시다. 식사 뒤 우리는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하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려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끝낸 뒤 도로 밖으로 나온 우리는 아까 앉았던 그 벤치에 다시 앉았다. 우리 담화를 방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나는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피터 힐러스와 나는 라파엘에게 아까 약속한 대로 차례차례로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의 듣고 싶어 하는 태도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마침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2 부

제 2 부

그 나라와 농업

유토피아 섬의 중앙지대, 즉 가장 폭이 넓은 지대의 넓이는 2백 마일이고, 섬 양쪽 꼬트머리들만을 제외하고는 섬 어느 지대나 그 폭이 이 중앙지대 넓이보다 별로 좁지 않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이 섬 둘레의 길이는 굴곡을 합쳐 5백여 마일에 달합니다. 조각달 형의 양쪽 끝은 서로 11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 버그리진 사이로 바닷물이 퍼져 들어와 하나의 큰 만을 형성했지요. 삼면 육지가 바람을 막아 주므로 이 만에는 큰 파도가 용솟음치는 일이 없어 마치 고요한 호수 같은 기분을 주지요. 그러기 때문에 안쪽 해변 거의 전부는 하나의 천연 항구가 되어 상호 간 해운업을 편리하게, 또는 크게 조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 안으로 들어오는 양쪽 입구 한쪽은 수심이 상당히 얇고 다른 한쪽 입구에는 바위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 한복판에는 돌산이 하나 있지만 그것은 수면 위로 돌출되어 있으므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 돌산꼭대기에는 성곽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 잠겨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이지요. 그런데 그중 안전한 수로들이 어디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은 유토피아 인들 뿐이므로 유토피아 인 수로 안내인의 도움 없이 배를 몰고 들어오는 외방인은 자칫하다가는 암초에 걸려 파선당할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유토피아 인 수로 안내인이라 할지라도 해변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표지들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들의 위치를 조금만 옮겨 놓아도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외국 함대는, 그 기세가 아무리 당당하다 할지라도 전멸당하기가 십중팔구지요. 섬 저쪽 해안에도 항구들이 상당히 많고 해안 거의 전 길이가 천연요새 또는 인공으로 쌓은 요새들로 철통같은 방어진이 완비되어 아무리 큰 군력을 거느린 적군이 습격해 오더라도 이편에서는 소수의 병력만으로 넉넉히 격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땅이 본래는 섬이 아니고 대륙에 붙은 땅이었다는

데, 그곳 지세로 보아 그들 말이 옳은 것이 증명되요. 그 땅이 대륙에 붙어 있을 시절 어느 때 우토피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와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유토피아라고 고쳤답니다(그 전 국명은 아브락사였었대요). 본시 거칠고 불학무식한 원주민을 우토피스가 어떻게든 잘 다스리고 교육했던지 얼마 안 돼 그들은 이 세상 다른 어느 곳 주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게 되고 더 인간다운 생을 영위하게 되었답니다. 우토피스가 그곳 원주민을 완전히 굴복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은 그 땅이 대륙에 붙은 모가지에 15마일에 달하는 운하를 파, 그 땅을 사면으로 바다가 둘러싼 섬으로 만든 일이었대요. 그 운하를 파는 데 많은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켰으나 자기가 끌고 온 군대도 풀어, 같은 일을 시켜 원주민으로 하여금 노예 대우 받는다는 반감을 품지 않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해 운하 파는 일을 서둘렀기 때문에 공사는 단시일에 완성을 보았고, 처음에는 어리석은 짓 한다고 비웃던 이웃 나라 인민들은 그 공사가 성공된 것을 보자 모두 일변 감탄하면서 일변 공포심으로 떨었습니다.

이 섬에 총계 54개의 도시가 있는데, 모두 다 상당히 크고 구조가 썩 잘되어 있어요. 그 도시들 전체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풍속·제도·기관들, 그리고 법률 등이 다 꼭 같습니다. 그 지방 지세가 허용되는 한, 시가지 구획도 꼭 같습니다. 한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적어도 24마일 떨어져 세워져 있고, 가장 먼 도시도 사람이 걸어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마다 한 차례씩 각 도시에서 가장 현명한 장로 세 명을 뽑아 아마우로툼¹⁾으로 보내어 그 나라 전체의 공통되는 문제들을 상의케 합니다. 아마우로툼이 그 나라 수도인데 섬 중앙지대로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각 도시의 사방 주변으로는 최소한 10마일 길이의 농토가 마련되어 있어서 넉넉한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들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마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좀 더 넓은 경작지를 각기 가지게 되지요.

1 '희미한도시' 혹은 '불확실'이라는 뜻.

이 농토 주민들은 자기네가 지주라는 생각보다 농민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계선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골 전역에 걸쳐 지은 농가 구조는 무척 잘 돼 있고 농경기구들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들에 와 사는 사람들은 도시인들인데 윤번제로 기일을 정하고 번갈아 시골로 와 농사지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 평균 40여 명의 남녀 도시인들과 두 명의 노예가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질이 성실하고 나이 성숙한 남자 가장 한 명과 여자 가장 한 명이 각 농가의 관리를 맡고 있지요. 30세대 단위로 치안관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농토 주민은 매년 반씩 교체되는데 도회에서 와서 2년 동안 농사지은 20명은 도시로 도로 가고 그 대신 도시인 20명이 농토로 내려오지요. 일 년 동안 농사 지어 농업 기술을 습득한 20명이 새로 온 20명 도시인들에게 농작법을 가르쳐주지요. 일 년 뒤 그들은 그 해에 새로 농촌으로 오는 20명 도회인에게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요. 농촌으로 와 사는 전체가 한결같이 농작법에 무식하면, 그 무식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번제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농사짓는 일은 다른 일에 비해 상당히 더 어려운 일인 만큼 농사짓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2년 이상 강제로 농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윤번제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촌 생활에서 자연을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오랫동안 농사짓게 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하지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토를 경작하는 동시에, 가축도 기르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장작을 패기도 하며, 통나무와 장작을 도시로 운반해 가는 일까지 합니다. 편리에 따라 육로로 운반하거나 수로로 운반하거나는 자유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병아리를 까서는 기르는데 그 방법이 참말 신기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어 병아리를 끼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파스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계 속에 달걀을 넣어 사람들이 병아리를 깬다는 말입니다. 껍질을 벗고 세상에 나오는 병아리들은 나오자마자 암탉을 알아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 많이 기르지 않지만 모두가 다 혈기 왕성하고, 청년들의 승마기술 연마

만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밭 가는 데나 물건을 끌어 나르는 데는 황소만 사용합니다. 말이 황소보다 힘이 더 세다고 그들이 생각은 하지만 황소가 말보다 더 꾸준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동시에, 병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황소를 기르는 것이 비용도 덜 들고 힘도 덜 드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황소가 일 못할 정도로 늙으면 도살해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으니깐요.

곡식은 식량용으로만 생산합니다. 그들이 마시는 음료는 대개 포도주·사과, 혹은 배로 만든 사이다·맹물, 혹은 그 나라 도처에서 풍족하게 생산되는 꿀이나 술을 탄 물 등입니다. 개개 도시와 마을이 일 년간 얼마 만큼의 곡식을 소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실제 소비량보다는 좀 더 많은 곡식을 심고 가축도 좀 더 많이 길러 잉여 생산물은 이웃 도시나 마을에 나누어주지요. 농촌에서 소용되는 물건으로 현지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시청에 청구하여 무상으로 배급받습니다.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물건 나르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사짓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하루쯤 특히 공휴일에는 도시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추수 때에 이르면 시골 관리들은 추수하는 데 일손 몇몇이 소용된다는 것을 도시 관리들에게 통고하지요. 그리하여 추수 도와줄 사람들이 제때에 농촌으로 와주기 때문에 맑은 날이면 하루에 전체 농토 추수를 끝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시들, 특히 아마우로툼

이 나라 도시 하나만 알면 전체 도시들을 다 아는 폭이 됩니다. 지대 때문에 할 수 없이 약간 다르게 꾸미는 외에 어느 도시나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런 만큼 아무 도시든 하나만 골라 묘사하면 내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들이 장로를 뽑아내어 매년 한 번 회의를 열어 특수성이 인정되는 도시인 동시에 내가 5년 동안이나 줄곧 살아보아 잘 아는 아마우로툼을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마우로툼은 그리 가파르지 않은 산허리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데, 모양은 거의 정방형입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약 2마일 아래 흐르고 있는 아니드루스 강² 언덕에서 시작된 시가지가 그 강 물줄기를 따라 서너 마을 내려가서 끝나 있습니다. 아니드루스 강의 원천은 아마우로툼에서 약 80마일 먼 산꼭대기에서 솟아나는 조그만 샘인데, 이 원 줄기가 아마우로툼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지류들, 그 중에도 폭이 상당히 넓은 두 지류들과 합류했기 때문에 아마우로툼을끼고 흐르는 강폭은 반마일 가량이나 되게 넓습니다. 아마우로툼을 지나 점점 더 폭을 넓히며 60마일 더 흘러 이 강은 바닷물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아마우로툼으로부터 몇 마일 상류로부터 바다에까지 미치는 강물은 여섯 시간마다 한 번씩 밀물이 오르고 빠지고 하여 물살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 아니드루스 강 물줄기를 탄 밀물이 올라올 때마다 약 30마일 위까지 바다의 짠 물이 기어올라 담수를 그리로 올려 밀곤 하지요. 짠 물에 쫓기어 상류로 올라가는 물은 몇 마일에 걸쳐 소금기가 섞여 있으나, 좀 더 올라가 산꼭대기 아마우로툼 시가지를 끼고 도는 물은 아주 깨끗한 담수입니다. 밀물이 다 빠지고 나면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는 직전까지 담수입니다. 강 위에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건축한 다리가 아니라 돌 여러 개를 아치형으로 웅장하게 세운 위에 놓은 다리지요.

2 '물 없는 강'이라는 뜻.

바다로부터 뿜 수 있는 대로 먼 상류 위에 이 다리를 놓아 배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시가지 전체로 돌아다닐 수 있게 했지요. 아니드루스 강처럼 크진 않지만 잔잔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다른 강 하나의 혜택을 그 도시 주민은 누리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강은 상당히 경사진 시가지 중간을 흘러 아래로 내려가 아니드루스 강도 합류했지요. 이 도시 윗목 경계선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이 강의 머리 샘터는 요새로 둘러싸서 방어진을 쳐놓았습니다.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경우, 적군이 이 강물 줄기를 막아버리거나 물줄기의 방향을 돌려 놓거나, 혹은 물에 독약을 타지 못하도록 방비한 것입니다. 시가지 낮은 구역으로 는 수도관을 통해 이 강물이 공급됩니다. 이 적은 강물을 공급받기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저수지를 만들어 빗물을 받아쓰지요.

도시 주위에는 높고 두꺼운 성이 둘러싸 있고 그 성 위에는 수많은 탑들과 요새들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가지 삼면에는 넓고 깊은 마른 호를 파고 그 호 속에 가시덤불을 하나 가득 심어 가시 울타리를 쳐놨지요. 강이 이 도시 제 사면을 끼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지 길들은 차보은행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 닦아 놓은 동시에, 바람막이도 썩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가를 통해 길 좌우 쪽에 즐비하게 마주서 있는 주택들 모양은 참으로 웅장합니다. 거리의 넓이는 모두 20척 이고요. 그리고 전 시가의 주택마다 집 뒤에 울타리 두른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주택마다 길거리로 통하는 출입문 하나와 정원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지요. 이 출입구들은 모두 두짝 문으로 열기 쉽고 닫을 때에는 사람이 밀지 않아도 문짝이 빙글 돌아 저 혼자 닫히지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사유재산이란 통 없는 도시인 만큼 드나드는 사람들을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한번씩 시민들은 제비 뽑아 주택을 바꿉니다. 시민들은 모두가 정원을 꾸미는 게 좋아하고 아깁니다. 정원에는 포도나무 · 과일나무 · 채소, 그리고 꽃을 심어 기르는데 어떻게나 잘 손질하고 잘 가꾸는지, 그들이 가진 정원들처럼 소산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다른 나라에서는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원 꾸미고 가꾸는 흥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원 가꾸는 데서 맛보는 유쾌감이 그것이요, 둘째는 동네끼리의 일종의 경쟁입니

다. 다른 동네보다 더 좋은 정원을 가꾸려고 각 동네 주민들은 서로 겨루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지 무엇보다도 이 도시 전체 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들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정원을 꾸미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창건한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도 정원들을 더 주의 깊게 배치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최초로 이 도시계획을 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토푸스 왕이었다고 말할 하더군요.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전대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는 만큼, 장식을 가미하거나 개선하는 일들은 후세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이 섬을 정복한 해는 1760년 전으로 소급되는데, 그 뒤 줄곧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안전하게 보호해왔어요. 초기에 세웠던 집들은 오두막집이 아니면 가난한 농가처럼 아무런 목재로나 기둥을 세우고, 담은 흙벽, 지붕은 짚으로 이은 작은 초가집들이었던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집은 전부 삼층 높이의 건물이고, 앞면은 돌·시멘트, 혹은 벽돌로 쌓아 올렸고, 사방 담벽 속은 돌 부스러기 아니면 자갈로 채워져 있어요. 평퍼짐한 지붕은 일종의 석고 기와를 이었는데, 이 석고 기와는 값이 헐할 뿐 아니라 불이나 물에 저항하는 힘이 연판보다 더 강합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에 끼우는 것은 대개 유리고, 더러는 얇은 삼베를 바르기도 하는데, 이 삼베에는 기름 혹은 송진을 먹여 채광도 잘 되고 바람막이도 잘 됩니다.

공무원 제도

매년 한 번 30세대가 한 명의 공무원을 선출합니다. 이 공무원 명칭이 이전에는 시포그란투스였었는데, 지금은 명칭을 고쳐 필라르쿠스³라고 부르지요. 열 명의 시포그란투스들과 각기 시포그란투스가 다스리는 300세대를 통치하는 공무원 한 명을 선출하는데 그의 명칭이 이전에는 트라니보루스였으나 지금은 그냥 프로토피라르쿠스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총수 2백 명에 달하는 시포그란투스들이 모여 비밀투표로 왕을 선출합니다. 왕 후보자는 네 명인데, 아마우로툼 4개 구 주민들이 각기 한 명씩 공천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선출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시포그란투스들은 가장 적임자를 뽑는다는 서약을 하고나서 투표에 임하는 것입니다. 왕의 임기는 종신직이나 단지 독재자가 되어보려고 시도하는 왕이 있으면 당장 면직입니다. 트라니보루스는 해마다 선출하지만 대개 다 재선·삼선 유임하게 되고 낙선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 밖의 모든 공무원의 임기는 단 1년입니다.

왕과 더불어 국사를 토의하거나 혹은 국민 개인들 간의 분쟁(그리 혼치는 않지만)을 토론하기 위해 트라니보루스들로 구성된 상원회의는 사흘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지고 필요 시에는 언제나 임시회의를 엽니다. 이 트라니보루스들의 상원회의가 열릴 때에는 언제나 두 명의 시포그란투스를 불러 회의에 참석시키되, 매번 한 시포그란투스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따로 모이는 상원회의에서 세 번의 토의를 거치지 않고는 국사에 대한 안전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원회의 밖에서나 혹은 시민 전체 회합에서 국사를 의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왕이거나 또는 트라니보루스들이 제멋대로 국체를 변경하여 인민을 노예화하려는 음모를 못 꾸미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안전들은 일단 먼저 시포그란투스 회의에 상정·부의하기로 되어 있지요. 시포그란투스들이 제각기 각자 소관인 세대들과 그 안전에 대한 토의를 하고나서 다

3 '한 부족의 추장'이라는 뜻.

시 그들끼리 모여 검토한 후에 결정된 것을 상원에 보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을 섬 전체 인민회의로 돌리기도 하지요. 어떤 안전이고 상원에 제출될 때 제출된 그날에는 토의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토의나 논쟁으로 들어갔다가는 공익의 이익을 미처 고려해 볼 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내키는 대로, 혀가 돌아가는 대로 어리석은 발언을 했다가 후에 체면상 그 발언을 옹호하고 고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의를 다음 회의로 미루는 것이지요. 깊은 연구 없이 조급한 의사표시 발언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만일 자기 발언을 취소한다든지 판소리를 하게 되면 남들에게 조심성 없고 근시안적인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공중의 복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는 허세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신속한 토의보다 더디더라도 현명한 토의를 하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직업

남녀를 막론하고 유토피아 인들은 전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사짓는 경험을 못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농사짓는 기술을 배우고 실습까지 하는데, 학교 교육과 실습을 이용해 배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들은 가까운 들판으로 놀러나가곤 하는데, 거기서 그들은 남녀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들어 주어 농사짓는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일을 국민 전체가 거들어 줄 뿐 아니라 그 밖에 각자가 독특한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직이나 삼베 짜는 일, 석공 · 철공 · 목수 일 등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술 공업으로는 위에 나열한 일 중 목 외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혼자들과 미혼자들을 분간하기 위해 특수한 표시를 한 옷을 입는 것만 제외하고 섬사람들 전체가 비슷한 옷을 입습니다. 의복의 모양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보기 좋고,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여름 · 겨울 할 것 없이 한 가지 옷으로 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족들이 입는 옷은 손수 만들고 남녀 막론하고 위에 언급한 바 있는 특수한 직업기술 중의 한 가지를 골라 배우지요. 몸이 나약한 여자들은 모직, 혹은 삼베 짜는 것 같은 가벼운 기술을 연마하지요. 더 어렵고 힘든 직업은 남자들만이 가집니다. 대개의 경우 아버지가 가졌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데, 대개 자연적인 동일한 취미로 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취미가 딴 직업에 있는 경우에는 그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진 가정에 양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변동이 생기게 되는 때에는 아버지와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아들이 책임감 있고 정직한 집 양자로 들어가도록 돌봐주지요. 이미 한 가지 직업을 배운 성인이 그 직업에 취미를 잃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위에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직업을 바꿉니다. 두 가지 직업을 다 잘 배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한 가지 일에 그를 붙들어 두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한, 당사자 마음대로 한 가지 직업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시포그란투스들의 주된 업무, 아니 거의 유일한 업무는 국민들 중 게으르게 앉아

몽개는 사람들을 적발해 근절시키는 동시에, 개인이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도록 고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짐 나르는 짐승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해 지쳐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토피아 외의 다른 나라 노무자들은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는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유토피아 인들은 하루 24시간 중 여섯 시간만의 노동으로 족한 것입니다. 점심 식사 전에 세 시간 일하지요. 점심 먹고 나서 두 시간 쉬고는 다시 세 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오후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 8시간 잠을 자지요. 일하거나 식사하거나 잠자거나 하는 시간 외의 남은 시간은 개개인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그 시간을 게으르게, 또는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자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유 시간을 윤택하게 소비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여유를 독서로 채우지요.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공개강의를 하는 풍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특히 공부에 건실하다고 선택된 자들 외에는 그 강의에 참석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에 관계없이 각자 취미에 따라 마음에 드는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성적인 탐구를 즐길 만한 교양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 시간을 각자 직업을 계속하는 데 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정부에선 금하지 않고 국가복리를 위해 도리어 장려하지요. 그래서 자기 직무에 여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는 한 시간 가량 오락을 즐기는데, 여름에는 정원에서, 또 겨울에는 식당에 그냥 남아 앉아 음악 감상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지요. 주사위 던지는 도박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외의 어떠한 어리석고 해로운 노름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장기·바둑과 비슷한 두 가지 오락은 그들도 즐기지요. 한 가지는 숫자의 전쟁 놀이인데, 한 숫자가 다른 한 숫자를 때려잡는 놀이입니다. 또 한 가지 놀이는 악과 선의 투쟁놀이입니다. 이 놀이에서는 보통 악들이 어떻게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보통 선에게 도전하여 양쪽이 맞서 투쟁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특수한 선 대 특수한 악의 투쟁도 전개시키면서, 악이 공공연하게 혹은 비밀리에 선을 공격하고 해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이 악의 세력을 꺾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 양쪽 중 어느 쪽이 최후승리를 거두는가 등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생활방식을 보다 더 충분히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점을 특별히 주의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여섯 시간만 노동하는 만큼 얼핏 생각하기에는 생활필수품 공급이 대단히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여섯 시간만 일하면서도 생활필수품을 넉넉하게 생산할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편의를 필요 이상으로 풍부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고먹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첫째로 여자들(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혹시 여자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대신 남편들이 엎드려 쿨쿨 잠만 자고 있지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다른 나라에는 놀고먹는 수다한 신부들과 소위 성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돈 많은 부자들, 그들 중에도 특히 위대한 지주들, 문벌이 좋고 귀족 출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놀고먹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부류(유한계급)의 등에 기대고 놀고먹는 수행원들과 노예들, 번들번들 놀기만 하면서도 세도 피우며 돌아다니는 고용된 장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다시 게으름을 은폐하기 위해 꾀병을 피우면서 구걸하러 다니는 건강하고도 탐욕스런 거지 떼를 가산해 볼 때 놀고먹는 자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살펴보면 실제로 생산업에 종사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물품을 생산·공급해주는 사람들 수요가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적은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소위 일한다는 사람들 중 과연 몇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생활필수품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은 금전에 있으므로 생활필수품이 아니고 공연한 사치품들을 대량 생산하고 또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동자들도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활필수품만 생산한다면 물품 생산이 과잉되어 물가는 폭락하여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하게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만을 생산하는 데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적게 들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고 소용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몰

아다가 좀 더 가치 있는 직업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게으른 생활을 동경하여 번들 번들 놀면서도 노동자보다 배나 더 되는 식량을 소비하는 자들을 몰아다가 유용한 직업에 취직시켜 주기만 한다면 노동시간을 훨씬 줄이고도 풍족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되고 자연스런 오락품과 편의품도 넉넉히 생산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의 이 가정이 유토피아에서는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우로 톱의 경우로 보더라도, 남녀를 막론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 또는 건강의 소유자 전체 중 노동 안 하는 인구는, 시와 근교 합쳐 5백 명도 채 안 됩니다. 노동을 면제 받는 사람들의 한 부류는 시포그란투스들인데, 그들은 법령에 의하여 노동으로부터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 면제받았다고 일 안 하고 노는 시포그란투스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제받은 그들 자신이 노동을 하여 시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 하기가 쉽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학문에 전심하는 사람들도 유토피아에서는 노동 면제의 혜택을 입습니다.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노동 면제를 받으면 신부들의 추천을 얻어 시포그란투스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에 전심시키기 위해 노동 면제를 해주었던 사람들 중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자가 생기는 경우 그는 도로 노동자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노동자가 자유 시간을 다른 데 소비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그의 부지런한 대가로 고도의 학문을 성취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학자계급으로 승격시켜 줍니다. 외국에 보내는 사신들이나, 신부들, 트라니보루스들, 그리고 왕(이 전에는 바르자네스라고 부르다가 얼마 전부터 아테무스라고 불리는)⁴까지도 이 학자계급에서 선출되지요. 극소수인 이들을 제외한 절대 대다수의 국민은 놀고먹지도 않고 소용없는 직업을 가지지도 않고 다 소용 있는 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그렇듯 짧은 시간만 일하고도 풍족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아테무스'는 '다스릴 백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유토피아 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일은 덜 하면서도 성과는 더 올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꼴을 보면 집 한 채 짓고 수리하는 데도 술한 일꾼을 계속 고용하여 일 시켜야 집 꼴을 겨우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집을 지어 잘 간수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낭비벽이 심한 아들은 집수리에는 돈 한 톨 쓸 생각은 않고 탄 데에만 쓰기 때문에 집이 황폐해지는 예가 상당히 많고, 황폐된 집을 물려받은 손자가 집을 수리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지요. 수시로 조금씩 수리해 왔더라면 소액의 경비로 넉넉히 유지했을 집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놓은 집을 상속받은 아들이 무슨 고상한 취미의 소유자라는 미명하에 그 집 모양을 업신여겨 수리 않고 버려두어 황폐하게 만드는 예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집을 그냥 버리고 탄 곳에 대지를 구해 새 집을 지으면서 아버지가 이전 집을 지을 때 들인 비용 못지않은 거액의 돈을 들이지요.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질서가 똑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살던 집이 헐었다고 내버리고 새 터를 물색해 새 집을 짓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이미 쓰고 있는 집수리를 제때 제때 서둘러 해가며 잘 보살피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력을 가지고도 상당한 장기간 그 집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당분간 집짓는 일이 없어 장차 지을 집 재료 준비로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다듬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고려를 요하는 것은 의복 만드는 데 소용되는 노동력의 근소입니다. 그들은 작업복으로 험령한 가죽 옷을 입는데, 한 벌 가지고 적어도 7년은 견딥니다. 외출할 때에는 거친 작업복을 가리기 위한 겹옷을 입습니다. 전국을 통해 겹옷 빗깁은 통일되어 있는데 그 빗깁은 모직물의 자연색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옷 만드는 데 쓰는 천은 다른 나라에서 쓰는 천보다 양이 덜 들고 값도 더 싼니다. 보통 삼베 옷을 많이 입는데, 삼베 옷 만드는 데 수공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삼베는 흰 것을 좋아하고 모직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만, 기질의 미려나 정묘 여부에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이 빗깁이 서로 다른 모직 코트 대여섯 벌에 비단 겹옷 역시 대여섯 벌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옷에 대한 취미가

좀 까다로운 사람은 열 벌을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데 반해 유토피아 인은 대개 일이 년만에 겹옷 한 벌 갈아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요. 유토피아에서는 옷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옷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추위가 덜할 것도 아니요, 옷을 자주 갈아입고 남보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무어 존대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절제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 동시에, 그들 전체가 다 일을 하여 모든 물자를 다 풍족하게 축적해 놓은 뒤에는 수리해야 할 길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 수리하는 일에 종사하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공사업 취무의 필요가 도무지 없을 때에는 불필요한 일에 시민을 절대로 동원하지 않고 근무시간 단축을 선언하지요. 그보다 기관들이나 정부의 최고 목적은 시민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인간생활의 근본 요소는 해방되고 발전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사회와 교제관계

유토피아의 사회조직과 개인 간의 교제관계, 모든 물건의 분배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꼭 해야겠습니다. 개개의 지역사회는 대부분 일가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장성해 결혼하면 남편의 집으로 옮겨가서 살아야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들은 다 그들의 가장 나이 많은 친권자 집에 살면서 친권자가 노망 들지 않는 한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가장 늙은 친권자가 노망 들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가장 나이 많은 이가 친권자 대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 인구가 너무 팽창하거나 너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도시가 6천 세대 이상으로 인구를 늘이는 것을 금하고(도시 근교 인구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한 세대 성인 식구가 열 명 이하로 내려가거나 열여섯 명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구 수효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지만 한 세대가 너무 많은 어린이들을 기르는 경우에는 그들 중 몇은 어린이가 모자라는 세대로 입양시켜 손쉽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도시 인구가 너무 팽창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좀 모자라는 도시로 이주시켜 해결 짓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팽창해지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운하 건너편 대륙으로 이민 갈 세대들을 각 도시에 배정하여 선발해 이민을 보냅니다. 대륙에는 토착민들만으로는 경작할 수 없는 황무지가 참 많거든요. 대륙 토착민 중에서 유토피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사는 부락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흔연히 받아들입니다. 유토피아 인들이 세운 식민지로 들어오는 토착민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토피아인들의 각 기관과 제도와 풍습을 재빨리 채용해 적응하지요. 이렇게 두 민족이 섞여 사는 것은 두 민족에게 다 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 인들이 수립하여 실시하는 정책들은 식민지 주민 전체에게 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두게 해주니까요. 유토피아가 이 대륙에 식민지를 설치하기 이전에 토착민들끼리 농사지를 때에는 토지 면적이 무척 좁게 보였습니다. 박토로 보이던 땅이라도 유토피아 인들이 개관만 하면 옥토로 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식민지 안에 들어와 사는 토착민이 유토피아의 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축출해버립니다. 토착민이 반항하는 경우에는 전쟁도 불사하고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고 간에 그들이 소유하기만 하고 그냥 놀리고 경작하지 않으면서, 탄 민족이 들어와 경작하여 자연법칙이 허여해 주는 삶을 영위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빼앗아 경작하려고 일으키는 전쟁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또 어떤 한 도시의 인구가 대폭 줄어들어 국내의 다른 도시들로부터 시민들을 이주시키면 그 도시들 인구마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대륙으로 이민시켜 인구를 늘인 식민지들로부터 시민들을 도로 국내로 이주시켜 온답니다. 이런 일은 그 나라 창건 이래 두 번 있었는데, 국내 도시들의 인구가 격감되었던 원인은 전염병 창궐이었습니니다. 국내 도시들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민지들이 망하는 것까지도 불사하고 식민지 인구를 국내로 도로 이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화제를 시민 상호 간의 교제관계로 되돌린다면,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가족의 가장 나이 많은 가장이 가족을 다스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자식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동생은 언니에게 복종합니다. 어떤 도시건 한 도시를 4등분해 4구로 행정구역을 정하고, 이 4구의 중앙지대에 각기 시장을 세워 모든 종류의 물품을 거기서 공급합니다. 각 가정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모두 이 시장으로 날라다가 시장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저장해 두는데, 물품 종목을 잘 분류하여 종목별로 간추려 보관합니다. 한 가족이 어떤 물건이고 소용될 때에는 호주가 이 시장에 나타나서 소용되는 물품을 골라 그냥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건 값을 당장 낸다거나 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가져 가져가는 것이지요. 누가 무슨 물건을 가져가든 거부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무슨 물건이고 풍족치 않은 것이 없는 곳이라서 누구든지 자기가 소용되는 물건 외에는 가져갈 생각을 하리라고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물건이 모자라거나 동나는 때가 절대로 없는데, 어느 누가 필요 이상의 물품을 요구하리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이 욕심을 내고 인색해지는 이유는 품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탐욕이니 인색이니 하는 악이 깃들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창고들 옆에는 식료품 시장들이 있는데, 각종의 채소들과 과일과 식빵 등이 이 시장으로 운반되어 옵니다. 그리고 생선과 쇠고기와 닭과 오리 등도 이 시장으로 운반되어 오는데, 이것들은 성 밖 강변으로부터 성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 밖 강변에서 노예들이 소와 닭 등을 잡고 내장을 굽어내고 깨끗이 씻어 들여오는 것입니다. 노예를 제외한 시민들이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등동물들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진 고상한 감정은 연민의 정 그것이라고 믿는 유토피아 인들은 도살행위가 이 연민의 정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불결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은 무엇이건 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금지합니다. 시내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더러운 것이 원인이 되는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지요.

거리 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웅장한 공동주택이 서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들은 제각기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포그란투스들이 이 주택에 살지요. 그리고 한 시포그란투스의 통치 하에 있는 30세대들 중 15세대가 이 공동주택 한쪽에 살고, 나머지 15세대는 딴 쪽에 삽니다. 식사는 그들 모두가 한 식당에 모여 하지요. 공동주택 관리인들은 식료품을 가져오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시장에 갔다 오곤 하지요.

유토피아에서 식량 배급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영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입니다. 도시마다 4개의 국영병원이 있는데, 대개는 성 밖에 설치되어 있고, 규모가 어찌나 큰지 웬만한 마을처럼 보입니다. 입원실이 넉넉히 있어서 아무리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도 환자가 불편을 느낄 정도로 입원실들이 좁거나 부족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는 물론 격리하여 입원시키지요. 이들 병원들은 설비가 완전히 되어 있고, 환자 치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완전히 비치되어 있으며, 언제나 보살펴 주는 상냥한 간호원들의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가장 훌륭한 기술을 가진 의사들의 임상진찰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든 사람으로 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꺼리는 자는 하나도 없고, 집에서 치환하는 것보다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을 모두 더 좋아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환자들을 위한 식료품을 병원관리인이 먼저 받아 가면, 나머지

지 식료품은 각 공동주택에 공정하게 배급되지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비례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왕과 대사교와 트라니보루스들에게는 직위에 상응하는 존대를 표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배급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신들 혹은 그 밖의 외국인들이 때마침 와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배급해 주지요. 외국인이 이 나라에 오는 일은 상당히 드물고, 또 극소수이지만 그들이 오면 특정된 좋은 집으로 모시어 우대하지요.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늦최로 만든 나팔을 불어 시간을 알리지요. 나팔 소리에 따라 공동주택 식구들은 식당으로 모여들지요. 병들어 침실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공동주택들에 공급하는 식료품을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다 가져간 뒤에 시장에 남아 있는 식료품을 한 개인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집으로 식료품을 가져가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물론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식당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식당으로 가면 금방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별로 맛도 없을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모두 생각하지요. 시포그란투스들과 그가 통치하는 세대들이 공동 기거하는 주택 내 가장 더럽고 가장 어려운 일들은 노예들만이 해치웁니다. 그리고 매끼 음식을 만들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시중드는 일은 매 가족 주부들이 윤번제로 번갈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 수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서너 식탁을 놓고 둘러앉아 식사 합니다. 남자들은 전부 창가에 앉고 여자들은 남자들과 마주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는 이유는 여자들 중 혹시 갑자기 아픔을 느끼는 이(임신 중인 여자에게는 가끔 있는 일이 아닙니까)가 있을 경우에 남들을 방해 않고 살그머니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다른 방이란 몇몇이 어린애들을 간호원들이 지키고 앉아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은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술한 요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깨끗한 물과 불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간

호원들이 아기들을 요람 안에 눕힐 수도 있고, 기저귀를 갈아 채워주고 따스한 불 앞에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또 데리고 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들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어린애는 생모가 양육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앓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시포그란투스의 아내가 빨리 유모를 구해주시요. 유모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인이고 그러한 일에 자진해 나서서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유토피아 인 전체가 그런 여자의 친절을 극구 칭찬해주니까요. 그리고 유모가 기르는 애기도 유모를 친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만 다섯 살 미달된 어린이들은 전부 간호원들과 함께 어린이 방에서 식사합니다. 다섯 살 위이지만 아직 결혼할 수 있는 연령에 미달된 소년소녀들은 전부가 식당으로 들어가서 상 심부름을 하고, 상 심부름할 만한 나이에 미달된 어린이들은 식탁 곁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어른들이 가끔 집어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이 식사하는 시간은 따로 정해 있지 않습니다.

식당 윗목에 첫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그 테이블 중앙에 시포그란투스 내외가 앉습니다. 이 자리가 상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이 상석 테이블은 가로 길게 놓여 있어서 거기 앉은 사람들은 식당 내 모인 사람들 전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4명씩 짝지어 앉는 풍속인 고로, 시포그란투스 내외 옆자리에는 시민들 중 가장 나이 많이 먹은 분 둘이 앉습니다. 그 거리에 교회당이 서 있는 경우에는 신부님 부부와 시포그란투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식사를 주관하지요. 그 다음 좌석들은 좀 젊은이와 좀 나이 먹은 이가 사이사이 섞여 앉지요. 이렇게 하여 온 식당은 거의 같은 나이 또래 남녀들로 가득차지만, 나이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골고루 섞여 앉게 되는 것이지요. 좌석을 이렇게 배정한 목적은 식사 중에 젊은이들이 혹 위장된 말을 주고받거나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더군요. 젊은이의 좌우편에는 존대를 받는 권위 있는 노인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젊은이의 언동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환기를 자아내게 하므로 젊은이는 겁이 나서 언동에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앉은 자리에는 어떤 표지를 붙여 보통 자리들과 구별해 놓고, 음식 접시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늙은이들에게 먼저 갖다 드리지요. 그 다음 남은 음식은 온 식구가 꼭 같이 나누어 먹지요. 가장 맛 좋은 음식 조각이 골고루 돌아가기에는 부족한 경우, 늙은이들이 자기네 몫을 할애하여 남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하여 늙은이들이 응당 받을 특별한 대우는 해 드리면서도 나머지 사람들도 늙은이들이 잡숫는 음식과 비등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으레 예절 또는 도덕에 대한 명구들을 낭독하지만 낭독이 아주 짧기 때문에 지루한 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늙은이들이 먼저 담화를 시작하는데, 그 담화는 너무 엄숙하지도 않고 활발치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늙은이들끼리만 담화를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담화를 듣기도 좋아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젊은이들의 자연스런 기질을 발견하기 위해 자유 기분이 감도는 식사 때 늙은이들이 일부러 젊은이들에게 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점심은 간략하고 저녁 식사 시간은 다소 길지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먹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얼마 안 가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 잠자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그들은 으레 음악을 감상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접시는 으레 단 음식이구요.

식사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식사 도중 향을 피우고 향수도 뿌리며, 그 밖에 기분 돋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빈틈없이 사용합니다.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쾌락도 금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해 사는 도시에서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공동생활을 하지만 인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는 식사를 모두 자기 집에서 하지요. 그리고 시골 가정들 중 무슨 식료품이건 모자라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시민들이 소비하는 식료품 전부를 시골에서 공급해주시니까요.

여행과 해외무역

누구건 다른 도시 혹은 시골로 여행을 가려면 자기 동네 관리인 시포그란투스와 트라니보루스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당장 그 동네에서 그가 꼭 해야만 할 중요한 일이 없으면 허가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날짜가 분명히 적힌 여행증명서, 즉 왕이 발행한 편지체로 되어 있는 여행증명서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고 다닐 우차가 제공되는 동시에, 우차를 몰기도 하고 차 끄는 황소들을 돌봐주는 노예 한 사람을 달려줍니다. 하지만 여자 동행자는 없이 남자들끼리의 여행일 때에는 우차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것은 공연히 마음만 괴롭히는 것이라고 여겨 우차를 제공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떠납니다. 그렇지만 여행 도중 어디서나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어딜 가나 그들은 자기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니깐요. 어떤 지방에서 하루 이상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직업과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일을 거들어 주면 피차 다 이로우므로 집 주인도 그런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대환영하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고향 관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여행을 하거나 타향에서 왕이 발행한 여행증명서 없이 다니는 것이 발각되면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즉각 체포되어 고향으로 압송되어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실수를 범할 때에는 그의 신분은 노예로 격하됩니다. 자기가 사는 구역 내에 있는 들판을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내의 동의를 얻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시골 어디를 가거나 오전 한나절 혹은 오후 한나절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만 이행하면 그는 자기 구역 내 어디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도시에 살건 시골로 돌아다니건 매일 일하기는 마찬가지로인 고로 국가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아무 데 살건 상관없이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놀고먹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놀 수밖에 없다는

여하한 핑계도, 일할 기회가 없다는 구실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술 집 · 비어홀 · 매음굴 등이 하나도 없고 부패할 기회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비밀 회의도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해오던 일을 계속해야 되며, 여가도 고귀한 취미의 오락으로 소비해야 하며, 언제나 남들이 보는 앞에 개방되어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식의 생활에서는 무엇이건 모두 다 풍족하게 생산이 안 될 수 없고, 그 풍부한 물자를 만인이 다 균등하게 분배받는 이상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거나 헐벗는 사람이 있을 리 없고, 따라서 비력질하지 않고서는 생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우로툼에서 열리는 연차 상원회의(앞서 내가 말한 것처럼 각 도시에서 3명씩 뽑아 보내는 대표들로 구성되는)에서 그 당시 현재로 각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잉여물자와 부족물자의 상황을 보고받고 그 즉시로 잉여물자를 축적하고 있는 지방에 명령을 내려, 물자가 부족한 지방으로 곧 수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잉여물자를 보내주는 지방이 받는 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한 푼도 없으므로 물자 공급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자가 풍부한 곳이거나 부족한 곳이거나 간에 피차 물자를 그냥 주고 그냥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섬나라 전체는 한 가족 같은 기분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전국 국민이 유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혹 한 해쯤 있을지도 모르는 흉작과 생산을 저하 대비책으로 앞으로 2년 동안의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물자를 저장해 놓은 뒤에야 그 나머지 물자를 그들은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다량의 곡물과 꿀과 양털과 아마와 재목과 진홍빛, 또는 자줏빛 염료와 쇠가죽과 밀랍과 수지와 짐승가죽과 가죽들을 수출하지요. 그런데 이 수출품 전량의 7분지 1은 수입하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7분지 6에 해당하는 물자만의 돈을 받는 데, 그 값이 또 그리 비싸지 않고 적절합니다. 그들은 외국무역에서 다대한 금은을 본국으로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사실 말이지 쇠한 가지만 내놓고는 다소나마 생산 못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지요만)들을 수입합니다. 이 대외무역을 하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재고량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들은 수

출품을 현금을 받고 팔건 외상으로 팔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대부분 거래를 약속어음으로 성립시킵니다. 그러나 수입하는 개인의 약속어음을 받지 않고 그 나라 시장이 보충한 어음이라야 받고 물건을 팝니다. 어음을 청산할 날이 오면 외국 도시 당국은 개인 채무자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시 금고에 넣어두고 유토피아 인들에게서 지불 청구서가 올 때까지 그 돈을 적당히 이용하여 시청이 이익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유토피아 인들은 지불 청구서를 영 안 보내고 마는 일이 보내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네에게는 소용이 없는 물자를 외국에 수출했는데, 그 물자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와는 오랫동안 청산 않고 버려두었다가 어떤 한 나라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비로소 유토피아 인들은 수출품 대금의 청산을 해달라고 수입국에 독촉하여 받은 돈으로 빌려달라는 나라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돈이 필요하게 되어 수출품 대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즉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다량의 보물을 국내에 간직해 두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국 군대가 불의에 쳐들어오는 커다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싸움터로 내보내기는 싫어하고 외국인 용병을 돈 주고 사서 대신 나가 싸워 주기를 바라는 그들인지라 보물을 사용하는 주요한 목적은 용병을 고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사기를 꺾어주기 위해서도 그들은 자기네가 고용하는 용병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적군 중에 돈 주고 매수 할 수 있는 군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인지라 적군에게도 몰래 돈을 많이 뿌려 반역자들을 유혹하여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며, 심지어는 반역을 일으킬 의심만이라도 받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 극단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전술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 및 보관방법

이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그들은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금과 은을 축적해 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금과 은을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려 드리면 선생 같으신 분께서도 내 말을 믿지 않으실 것 같아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실은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장담하는 것이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던들 나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상 경험으로 관습화된 것보다 판이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믿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상정이겠지요. 그러나 유토피아인들의 풍속·습관이 우리나라의 풍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 민첩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토피아인들의 금과 은의 사용 목적이 우리의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발견할 때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한 뜻밖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만 사용하려고 금과 은을 간직하는 그들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금이나 은이 다른 광석들에 비해 과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쇠가 더 귀중하다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명백합니다. 인간이 불과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은 없어서는 되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금과 은은 희귀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들을 큰 보배처럼 여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너그러우신 부모님과 같은 자연은 공기와 물, 그리고 땅 자체 같은 가장 귀한 물건은 도처에 공개되어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공연히 허영심만 돋우고 쓸모없는 물건들은 멀고멀며 깊은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유토피아의 집권자들이 만일 금과 은을 탑 안에 넣어두고 밤낮 감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왕이나 상원의원들이 시민들을 속여 가면서 그들 자신만을 위해 어떤 이득을 보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시민들은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일 금과 은으로 식기를 만든다거나 장식품을 만들어 둔다면 전쟁이 터져 용병을 고용해야만 될 때에도 그걸 녹여 금이나 은 조각으로 만들기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던 그들은 우리의 풍습과는

정반대되는 한 풍습을 고안해냈어요. 그들이 짜낸 계획이 우리에게는(아주 현명한 사람들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금을 무슨 큰 가치가 있는 보배처럼 생각하고 조심조심 몰래 감추어 두는 우리이기 때문에 유토피아인들이 금을 보관하는 방법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식기나 컵은 아름다우면서도 값이 싼 사기와 유리로 만들어 쓰는 그들이 가정용이건 공동주택용이건 가림 없이 요강과 대변기는 꼭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쓴답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몸을 매는 사슬이나 발 고랑쇠 따위도 금으로 만들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죄수들의 귀에는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달아주고,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매어 주고, 머리에는 금관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금과 은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내놔야 하는 필요가 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치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싫어하면서 마지못해 내놓는 데 반해, 유토피아 인들은 이를테면 동전 한 푼 내놓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척척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 나라 해변에는 진주가 상당히 많고 금강석과 석류석이 어떤 바위에는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 보석들을 우연히 발견할 때에는 주워다가 닦아가지고 어린이들 장식용으로 쓰지요. 어렸을 적에는 그러한 패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즐기던 아이들도 장성하여서는 그 따위 장난감 같은 물건들은 어린이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모두 내버리고 맙니다. 철이 들자 패물을 던지는 것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 손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네 어린이들이 철들기 전에 늘 가지고 놀기 좋아하던 호도 껍질, 액막이 부적, 인형 따위를 철이 들자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지요. 풍속·습관·제도와 기관이 서로 다름을 따라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태도도 서로 달라진다는 산 증거를 나는 유토피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마우로툼에 살고 있을 때 아네몰리우스⁵ 대사가 그 도시로 온 일이 있었어요.

5 ‘허영의나라’라는 뜻.

이 대사와 유토피아 왕 간에 중요한 일의 토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유토피아 각 도시에서는 세 명씩의 대표를 뽑아 보냈는데, 이 대표들은 회의 개최 훨씬 전에 아마우로툼에 다 모였지요. 이 나라에 한 번이라도 와본 일이 있는 이웃 나라 대사들은 유토피아 인들은 옷차림을 중하게 보지 않고, 비단옷은 경멸하며 금으로 만든 장식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수치로 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전 와본 경험이 있는 나라 대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허술한 옷차림을 하고 왔지요.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토피아 인들과의 접촉이 없었던 아네몰리우스 대사는 아마우로툼에 다다라 모든 국민이 다 꼭 같이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유토피아 생산품은 그런 것 밖에 다른 건 없는 줄로 속단했어요. 현명하기보다는 도리어 자만심이 더 강한 아네몰리우스 대사와 수행원들은 신처럼 영광스러운 빛을 발산하는 훌륭한 몸차림을 하고 거리에 나타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유토피아인들의 눈을 현혹시키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빛깔을 섞어 짠 휘황찬란한 비단옷으로 몸들을 휘감은 백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3명의 대사들이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귀족 계급에 속하는 세 대사들은 금박 올린 겹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두르고 금귀고리를 끼고,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술한 진주와 보석들을 촘촘히 박은 금사슬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토피아 인들에게는 노예에게 달아주는 표지, 죄수에게 달아주는 표지, 모든 어린이에 장난감으로만 보이는 장식품으로 몸단장을 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길이 मे게 구경나온 유토피아 인들 앞에서 그들은 피차의 옷차림을 비교해 보라는 듯이 머리를 위로 치켜들고 뽐내며 걸어 가는데 그것이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아네몰리우스 대사들이 유토피아 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실로 재미있어요. 외국여행을 해본 몇몇 유토피아 인들을 제외한 일반대중의 눈에는 외국 사절단의 그런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외관은 수치의 표식으로만 띄웠거든요. 지위가 낮은 수행원들을 장관들로 오인한 유토피아 인들은 수행원들에게만 경의를 표하고 금사슬로 몸 단장한 대사들은 노예로 오인하여 그 대사들에게는 경의를 전혀 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이 들어 진주와 보석들을 버린

소년소녀들이 외국 대사가 쓴 모자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볍게 치면서 “어머니, 저것 좀 봐! 어린이처럼 진주와 보석을 달고 다니는 저 바보 어른들 좀 봐!”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숙한 표정을 지은 어머니는 “쉬, 저것은 대사가님이 데리고 다니는 바보들일 거야”하고 말했어요. 또 다른 유토피아 인들은 외국 대사들이 몸에 두른 금사슬이 가는 것을 보고는 저런 약한 사슬로 노예를 매어 두었으니 노예가 그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또 금사슬 맨 것이 너무 헐렁헐렁한 것을 보고는 아무리 약한 노예랄지라도 도망갈 생각만 내면 사슬을 훌렁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 텐데 어찌나 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그 외국 대사들이 아마우로툼에 온 지 사흘이 채 못 되어 그들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아네몰리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다루는 금과 은을 유토피아 사람들은 그런 건 다 흔해빠지고 천한 금속물이라고 경멸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 나라 노예 단 한 사람이 몸에 감고 다니는 사슬과 발고랑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과 은 수량이 자기네 세 대사들이 몸에 지닌 금과 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실지로 목격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술한 해물을 몸에 지니고 우쭐거리며 다니던 그들은 몹시 부끄러운 태도로 패물이 달린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수수한 차림을 하고 나섰지요. 그러나 옷을 갈아입는 그들이 어떤 강권에 못 이겨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유토피아 인들과 얘기해 본 결과 이 나라 사람들의 풍습과 사상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철학

어떤 별, 아니 태양 그 자체를 바라보며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나 별빛에 비하면 희미하기 그지없는 보석을 바라봐야 기쁨을 느끼는 족속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유토피아 인들은 참말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질이 좋은 양털로 짠 감으로 양복을 해 입은 것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귀하신 몸이라고 생각하는 열간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질이 제 아무리 좋은 양털일지라도 그 털옷을 먼저 입고 있던 것은 양인데, 양이 제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해도 그것은 그냥 양이지 다른 동물이 절대 아닙니다. 금속 자체에는 아무런 이용가치도 없는 금을 인간보다 더 존중하는 일이 도처에 있는가 하면, 금이 가치를 획득하려면 인간이 사용해주어야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금보다 덜 존중하는 경향이 도처에 있는 것을 유토피아 인들은 무척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뇌가 나무토막보다 더 명석하지 못한 돌대가리의 소유자로 질이 나쁠 뿐 아니라 우둔하기까지 한 자가 단지 다량의 금을 소유한 부자라는 조건 하나로 자기보다 월등하게 머리가 좋은 현명한 사람들과, 착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하인 부려먹듯 부려먹는 일이 다른 나라들에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존재를 인정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유토피아 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돌대가리가 어떤 불운으로 인하여, 혹은 어떤 법률상 속임수에 넘어가(법률상 속임수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은 운수의 영향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 중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 빼앗기는 그날부터 그의 처지는 바뀌어 남의 하인배가 되고 말지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런 인간의 운명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력에 휘둘리는 존재 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면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해 가지고 무조건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유토피아 인들은 무엇보다 더 멸시합니다. 그 부자에게 빚진 일이 없는 이상 그를 두려워 할 아무런 건덕지도 없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을 그가 죽는 날까지 남에게 피천 한 톨 던져주지 않을 만큼 인식하고 탐욕스럽기 한이

없으며, 존경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를 단지 부자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떠받들어 주는 인간들이 있는 것을 유토피아 인들은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유토피아인들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준 원인들 중의 하나는 교육입니다. 보석을 귀하게 여기고, 부자를 존대하는 등 어리석은 관념과는 정반대인 사고방식과 풍습·제도 속에서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관념을 획득하게 만들어준 다른 한 가지 원인은 학구열과 독서열에 있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서 노동하는 일을 면제받고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 사람의 수효는 매우 적습니다. 특전을 받는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비상한 재능을 가지는 동시에 학문하는 기질을 보여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어 모든 소년소녀들이 다 일반 교육을 받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대다수 국민은 여가를 독서로 평생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읽는 책들은 전부 그들 자신의 언어로 씌어져 있는데, 그 언어는 어휘가 풍부하고 발음이 유쾌하며, 의사표시 하는 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 사투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한 가지 표준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에 들리기 전까지 유럽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칭송받는 철학자들에 관해서 그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논리학·수학·기하학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고대에 우리 고장에서 그런 분야를 개척한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발견을 했더군요. 그러므로 고대문명의 발달은 우리들의 것과 거의 같지만, 현대 논리학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현대에 와서 이를테면 우리들의 세계에선 그 어디서고 아이들까지도 배우고 있는 예의 《논리소론》 중에 교묘하게 증언되어 있는 한정이니, 확충이니, 가정이니 하는 법칙의 그 어느 하나조차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제2차적 일반관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철학은 아직 발달되지 못했어요. ‘일반인’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논리학자들이 쓰는 용어지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거인들보다도 훨씬 더 커서 명백히 어마어마한 거인 하나를 내가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면서까지 일반인이 무엇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으나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반면

에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천구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완전무결합니다. 해와 달과 그 밖에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천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그들은 발명했어요.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 별들이 유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점칠 수 있다는 따위 험잡을 그들은 애초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천체들을 오랜 세월 관찰해온 경험으로 그들은 폭우·폭풍, 그 밖의 기후 변동을 예보하는 데 아주 능하더군요. 천기가 변동하는 원인이라든가, 밀물이 오르고 빠지는 원리라든가, 바닷물이 짠 이유, 그리고 지구와 하늘이 생기게 된 기원과 목적 등에 대한 지식은 우리네 옛날 철학자들이 가졌던 것과 비슷한 점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우리네 옛날 철학자들의 의견이 구구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의 철학가들도 어떤 새 학설이 나오면 그걸 토론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구구하더군요.

도덕적 철학이론을 캐는 것을 보면 그들이 캐는 이론은 우리가 논쟁하는 점과 같습니다. 착한 것이 참된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표면이 선한 것도 그냥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혹은 표면에 나타나는 선이나 악은 단지 마음의 움직임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그들은 토론합니다. 덕의 본성은 과연 무엇이고 쾌락의 본질은 또 무엇이나 하는 문제도 그들은 해명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인간의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것의 구성 요소는 단 한 가지인지, 혹은 여러 가지인지를 문제로 삼고 검토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행복, 그렇잖으면 대부분 행복의 근저는 유쾌한 생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쾌락철학의 타당성을 그들은 종교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즉 진실하고 준엄하며 가혹하고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종교로 쾌락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행복을 논할 때에는 철학의 합리적인 원칙들과 종교에서 빼낸 원칙들을 반드시 결합시켜가면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근저를 두지 않은 행복은 어디까지나 박약하고 불완전한 행복이지 참된 행복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원칙들은 이렇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이요,

인간의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저승에 가면 이승에서 덕행과 선행을 한 자는 포상을 받고 죄지은 자는 형벌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이런 신앙은 종교에 소속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성과도 일치되는 것이므로 이런 신앙을 지지하고 또 인정해야만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만일 승인하지 않으면 옳은 쾌락이건 그릇된 쾌락이건 가리지 않고 쾌락이란 쾌락은 다 맛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할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그들은 주저 없이 단언합니다. 옳은 쾌락과 그릇된 쾌락을 분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자들은 조그만 쾌락이 큰 쾌락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쾌락 뒤에 고통이 따르는 류의 쾌락은 추구하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성과 일치되는 쾌락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주장이지요. 그리고 아무런 쾌락이라도 붙들여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누가 어렵고도 깔깔한 덕행을 추구할 것이며 인생의 쾌락을 거부하면서까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고통과 불행을 기꺼이 참아낼 것인가?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될 우려성이 많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승에서는 아무런 쾌락도 맛보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만 했는데도 죽은 뒤 저승에 가서 아무런 포상도 못 받는다면 세 상에서 무슨 희망을 걸고 살아나가겠느냐는 이론입니다.

모든 쾌락 속에 행복이 깃들어 있다고는 유토피아 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쾌락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덕성이므로 이 덕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최고의 선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을 가져오는 요소는 단지 덕 하나뿐이라고 주장하지요.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곧 덕 있는 생활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연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해주셨다고 그들은 말하지요.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찾는 것과 피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성애 순응하는 생활이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성의 첫째 명령을 이런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여하한 행복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들여 사랑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이라고. 그 다음 둘째로 우리더러 될

수 있는 대로 고즈넉하고 유쾌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는 자가 이성이요, 그런 생활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연의 벗으로 여겨 그들을 도와주고 경고하는 자도 바로 이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쾌락을 증오하고 고생과 철야 기도와 공상스런 자아부정을 우리에게 요망하는 동시에, 박애심을 발휘하여 빈곤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남들이 진 짐을 가볍게 해주는 덕성을 기르라고 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성과 인인에(隣人愛)에 입각한 올바른 일이라고 유토피아인들은 찬동해마지 않습니다. 남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슬픔을 쫓아버려 삶의 희열을 되살려주는 것—이것이 바로 지상최고의 쾌락이다—이것이 인간성의 영광이라고 덕성의 찬미가는 외치지요. 그런데 유토피아인들은 그 외침을 따져보는 거예요. 남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열을 되살려주는 것이 지상 최고의 쾌락이라는 말이 정말이라면, 자연은 우리 자신들의 고통도 우리 자신이 덜어주고, 자신의 삶의 희열을 되살리라고 고무해 줄 것이 아닌가? 즐거운 생활(즉 쾌락의 생활)이 만일 죄악이라면 남들로 하여금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시 죄악일 것인 만큼 고통스런 생활을 하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도리어 적선일 것이 아니냐고 그들은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즐거운 생활이 선이라면 남들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적선일진대 남들은 도와주면서 우리 자신의 즐거운 생활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어떻게 성립되나? 인간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도와주라고 가르쳐주는 자연이 어떻게 우리 자신들에게는 거칠고 잔인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인간생활의 목표는 즐거운 생활(쾌락의 생활)에 있다고 자연이 지령을 내린다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곧 덕이라고 말하는 저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상호 간 협조해야 된다고 타이르는 자연은, 다시 우리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남들의 쾌락을 망쳐놓거나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또 누누이 부탁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자연은 공평무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연의 총애를 독점할 수 있도록 월등하게 잘난 사람

이란 하나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형태 · 모습 ·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전부를 동일시하는 자연은 인류 전체를 꼭 같이 소중하게 다루어준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개인들끼리 사사로이 맺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동시에, 착한 통치자가 공포한 정당한 법령 또는 아무런 압력도 받지 않고 부정수단의 작용도 없는 자유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재가를 얻는 국민의 법률들을 국민 전체가 준수해야만 한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특히 유쾌한 생활의 전제조건은 물품의 공정한 배정이니만큼 물자 분배방법을 규정지는 법들은 모두가 다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각 개인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일을 추진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공중의 이익증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공경할 만한 선행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쾌락을 위해 남의 쾌락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그릇된 처사이지만, 자기 한 사람의 쾌락을 감소시켜 남들의 쾌락을 증가시키는 일은 인간다운 박애정신의 발로라고 그들은 믿는 동시에,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과거에 그가 베풀었던 친절의 보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답 받는 일이 설혹 없아 할지라도 자기는 남에게 좋은 일을 했거니 하는 기억이 남는 동시에, 그의 도움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고맙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때 그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한 데 대한 불쾌성보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는 쾌감이 더 한층 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작고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크고 영구한 쾌락으로 보상해주시는 사실을 신앙심이 돈독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면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태를 신중히 저울질해 본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지요. 우리의 덕행도 물론 포함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궁극 목표는 쾌락과 행복의 추구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인간이 자연히 즐기는 모든 행동과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그

들은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쾌락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쾌락은 상당히 국한되어 있는데, 자연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욕망들에 국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즐거움들이란 우리의 관능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즐거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까지도 옳다고 인정해 주는 쾌락으로 국한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을 해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작은 쾌락을 찾아 헤매다가 큰 쾌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즐거움, 즐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즐거움 등이 참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는 동당지 않는 여러 가지 흥미, 극히 공허한 허구로부터 받는 사이버 희열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이것은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고치면 성격까지도 변경시키는 줄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쾌락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가득차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쾌락과 순수한 즐거움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즐거움이란 조금도 내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쓰라림이 가득차 있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욕망의 변태적인 유혹에 빠진 자들은 그런 데서까지 커다란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인생 생활이 요구하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목표라고 극구 찬양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남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유토피아 인들은 이런 부류의 인간이라고 규정지었지요. 자랑하는 자들은 두 가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은 옷이 남이 입은 옷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과오요, 남보다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 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둘째 과오입니다. 의복의 효용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곱게 뽑은 양털 실로 짠 모직감으로 만든 옷이라고 해서 거칠게 뽑은 실로 짠 감으로 만든 옷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 잘 입고 잘난 체하는 자들은 자기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를 더 잘나게 만들어준 것이라는 착각에 팔려 고개를 쳐들고 뽐내며 다니는 것입니다. 자

기가 나쁜 옷을 입고 다녔던들 바랄 수 없었을 존재였건만, 옷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이어서 존대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던 자가 한번 멸시를 당할 때 터무니없는 화를 내는 거지요.

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다만 겉으로나마 존경하는 표시를 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은 위에 말한 엉터리 쾌락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자가 모자를 벗어 맨머리를 보여주거나, 혹은 무릎까지 꿇고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경례를 받는 것이 당신의 관절에는 통증을 덜 아프게 해줄 수 있으며 약간 돈 머리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자기 옛날 조상이 귀족이었었다는 것을 팔아 가지고, 그중에도 특히 굉장한 부자였었다는 것(요사이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귀족 되는 유일한 방법이니 말입니다)을 자랑삼아 자기를 스스로 추켜올리며 자화자찬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자들도 있는데, 그런 자들도 쾌락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구나 우스운 것은 그자들의 선조가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못하고 죽었거나, 혹은 물려받은 재산을 깡그리 자기가 탕진하고 나서도 자기는 귀족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덜 느끼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꼴입니다.

보석에 흠뻑 반해 자기 나라에서 그 당시 가장 값진 진귀한 보석(시대와 장소에 따라 보석 값은 변동이 심하니까 말입니다)을 사가지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유토피아 인들은 그릇된 행복관을 가진 자들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런 자들이 보석을 살 적에는 반지에 끼워 놓은 보석을 빼내서 살살이 살펴본 뒤에도 파는 사람더러 진품이라는 보증서를 달래가지고서야 사는 것입니다. 자기 눈은 가짜에 속을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으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식별하지 못하는 바에야 가짜를 사가진다고 행복감이 줄어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보석 감정에는 장님인 사람에게서는 진짜건 가짜건 귀중하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재물을 쓰려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들여다보는 재미로 모으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자들이 참된 쾌락을 맛보는지 거짓 쾌락에 속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재물을 모아만 놓고 영 쓰지 않고 몰래 감추어 두고는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은 숨겨 보관하는 데 항상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실은 쾌락을 잃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자는 금은보화를 자꾸 긁어모아 남들은 못 가지게 해놓고는 그걸 도로 땅 속에 묻어 자기에게도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어 놓지요. 그러면서도 그게 영원토록 있으려니 하는 안도감으로 행복을 느끼지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도둑놈이 와서 그 묻어놓은 보화를 훔쳐갔는데 주인은 십 년 동안이나 도둑맞은 걸 모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십 년 동안 그 돈이 도둑맞았건 안 맞았건 주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도둑 안 맞았어도 주인에게는 소용없는 돈이요, 도둑맞았어도 주인에게는 소용없는 돈이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쾌락들 중의 한 가지로 도박을 유토피아 인들은 추가합니다.(도박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단지 들은 풍월로 짐작이나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만.) 그리고 짐승 사냥과 새 사냥도 어리석은 쾌락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주사위 던지는 데서 무슨 쾌락을 느낀단 말입니까? 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혹시 약간의 재미를 느낀다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던지면 싫증이 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해요.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 소리를 듣는 게 무엇이 그리 즐겁겠습니까? 개가 산토끼를 따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다른 개를 따라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재미있단 말입니까? 짐승들 뛰어가는 것을 보고 즐긴다면 개가 산토끼를 따라가는 것을 볼 때나, 개가 개를 따라가는 것을 볼 때나 마찬가지로 즐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자기 눈앞에서 산토끼 한 마리가 갈갈이 찢겨지는 꼴을 보는데 쾌락을 느끼는 자가 만일 있다면, 그는 태도를 바꾸어 수줍고 무해한 산토끼 한 마리가 결국에는 그를 물어 죽이고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려고 따라오는 사냥고 잔인한 사냥개에 쫓기어 도망가는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고 불쌍히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냥이면 어떤 종류이든 자유인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저속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유토피아 인들은 사냥질을 백정들에게만 시킵니다. 백정들은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노예입니다. 천한 백정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사냥은 가장 천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가축을 길러 필요할 때에만 도살하

는 것이 사냥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도 점잖은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무력하고 조그만 동물을 살육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행동에서 완전한 쾌락을 찾으려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죽는 꼴, 심지어는 짐승들이 죽는 꼴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타고난 잔인한 성격에 기인하거나 그렇잖으면 잔학한 행동을 자주 하고 또 봄으로써 이루어지는 잔인한 습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믿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몇 가지 그릇된 쾌락들, 그리고 그 밖에도 수다한 사이비 쾌락들을 인류의 대다수는 참된 쾌락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참된 쾌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서 얻는 감정은 자연히 오는 즐거움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참된 쾌락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 일들이 가끔 관능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작용은 쾌락과 비슷하기는 하다)은 사실이지만 관능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참된 쾌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일들 자체에는 쾌락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풍습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라도 쾌락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요. 임신 중이어서 심한 입덧을 하는 여인들이 역청이나 수지 따위를 꿀보다도 더 달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들은 쓴 맛이 나는 걸 가지고 단맛이 난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요. 한 인간의 객적인 취미는 질병 혹은 풍습의 영향을 받지만, 그런 영향을 받은 개인의 취미가 쾌락의 본질적인 성질까지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변질된 취미가 쾌락의 본성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쾌락을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더러는 마음에 주는 쾌락이요, 더러는 육체에 주는 쾌락이지요. 마음에 주는 쾌락으로는 진리에 대한 지식 획득, 또는 진리에 대한 사색에서 오는 즐거움을 예로 들 수 있고, 동시에 건전하게 살아온 과거 생활의 회상과 장래에도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유토피아 인들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지요. 첫째 종류는 관능을 당장 즐겁게 해주는 데서 느끼는 쾌락입니다. 이런 쾌락은 먹고 마심으로써 몸에

새로운 활기가 들고 상쾌한 기분이 생기는 데서 느끼기도 하고, 또 혹은 대변을 보거나,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찌뿌드드한 몸을 주무르거나, 가려운 데를 긁어 몸에 축적되어 있는 과잉물을 배설할 때 느끼기도 합니다.

둘째 종류의 육체적 쾌락은 우리의 육체 자체의 피로나 과잉상태를 풀어주거나 경감시켜주지는 않지만,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면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떤 힘이 우리의 관능을 자극하여 안으로 돌면서 만족감을 주는 쾌락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 감상으로 얻는 쾌락이 바로 이런 종류의 육체적 쾌락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한 형식의 육체적 쾌락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건강체, 즉 언제나 편안하고 건강한 신체적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 상태가 어떤 외적 자극을 주는 일은 없더라도 건강 상태 그 자체가 내적인 쾌적감을 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당장에 강한 만족감을 주어 관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없지만, 이 건강 상태가 주는 쾌락이 다른 어떤 자극들이 주는 쾌락들보다 훨씬 더 큰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고요하게, 또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육체의 건강이 유일한 전제조건인 만큼 건강한 육체는 온갖 쾌락의 기초라고 절대 대다수의 유토피아 인들은 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건강한 육체에서 얻는 쾌락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모든 다른 쾌락들도 즐길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체는 유지하지 못하면서 단지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쾌락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단지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건강체라는 것은 건강의 반대인 질병의 위협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건강했었구나 하는 느낌을 얻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병 한 번 안 걸려 건강체라는 것이 확인되는 동시에 안정된 건강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 그걸 참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옛날 유토피아 인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들 전부가 다 육체적 쾌락들 중에서 제일 큰 쾌락을 주는 것은 건강이라는 설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쾌락(아픔의 반대현상)도 건강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론을 그들은 전개하는 것입니다. 질병 자체는 아픔이 아니요, 병날 때에만 아픔이 따르는 것이라는 다른 의견을 말하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은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결과와는 마찬가지로 반격합니다. 건강 자체가 쾌락이건 혹은 단지 쾌락의 원인(불이 열의 원인이듯이)이건 간에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체 내에 참된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건강에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지요. 배가 고파 약해졌던 건강이 식사 초에는 음식물과 합세 하에 연약에 대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투쟁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차차 정신을 차리게 되고 활기를 회복하게 되면, 이 원기회복에 우리는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싸우는 동안 기쁨을 느끼던 우리의 건강이 최후 승리를 거둘 때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건강이 완전한 활기를 회복할 때 건강은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리하여 온전한 건강이면 그 자체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에는 자기가 건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만큼 건강한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과도하게 우둔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즐거운 기분과 쾌활한 기분이란 꼭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쾌락들 중 유토피아 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쾌락은 마음의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은 덕행과 착한 생활의 인식에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인지라, 그렇게 해서 얻는 쾌락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들 중 가장 우위에 놓이는 쾌락은 건강한 신체에서 얻는 쾌락입니다.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그 밖의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은 오로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질병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병에 걸린 뒤 약을 쓰는 것보다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능의 쾌락에게 매혹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쾌락은 물리쳐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먹고 마시고 가려운 데를 긁고 해서 느끼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평생 쉴 새 없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피부가 가려워 쉴 새 없이 마시고 긁고 주무르는 생활이 가장 행복스런 생활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런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비열한 생활일 뿐 아니라 비참하기 그지없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쾌락은 여러 가지 쾌락들 중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쾌락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류의 쾌락들은 쾌락과는 반대인 고통을 언제나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먹는 즐거움에는 배고픔이 오래 연결되어 있어서, 배고픈 고통은 먹는 즐거움보다 더 강한 것이거든요. 배고픈 고통은 먹는 즐거움보다 더 강할 뿐 아니라 더 오래 계속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고 하니, 배고픈 고통은 먹는 즐거움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느끼다가 먹는 동안에도 그 고통은 줄곧 계속되며, 먹는 즐거움이 끝나는 때와 때를 같이해 배고픈 고통도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육체적 쾌락들은 생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인 이유 하에서만 용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토피아 인들은 그런 쾌락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상쾌한 감각으로 인류의 어머니인 자연이 그네의 자식들인 우리 인류를 어루만져 주는 친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상쾌한 감각들을 유토피아 인들은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쓴 약을 복용해야 고칠 수 있지만 배고프거나 목마른 데 비하면 병이란 그리 자주 걸리는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만일, 매일 경험하는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쓴 물약과 가루약을 먹어야만 고쳐지는 신체를 가지게 되었더라면 우리 생활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이 공급해 주는 적절하고도 기분 좋은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여 약 먹을 필요 없이 우리의 육체가 아름다움과 정력과 활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광경, 그리고 코로 맡는 내음에서 얻는 쾌락을 줄곧 추구하는 유토피아 인들은 그런 류의 쾌락이 인간생활에 향기와 그윽한 맛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류의 쾌락은 자연이 인류에게만 부여해 준 독특한 것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외의 다른 동물로 우주의 신비나 아

름다움을 명상하는 동물이란 하나도 없고, 다른 동물이 냄새 맡는 유일한 목적은 음식을 가려내는 데 있는 것이어서 인간처럼 냄새 자체를 감정할 줄은 모르고, 음향의 화음과 불협화음을 식별할 줄 아는 동물도 인간뿐입니다. 그러나 유토피아 인들은 보다 적은 쾌락으로 하여금 보다 더 큰 쾌락을 방해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또 고통을 키우는 쾌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쾌락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더 큰 포상을 받을 기대를 걸고 자기만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봉사를 제공하여, 공중이익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하거나, 단식을 단행하여 정력을 감소시키고 활기를 상실하고 지쳐버리는 것을 용허하지만, 그런 고귀한 동기 없이 공연히 자기학대하는 자는 미친놈이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생각합니다. 고귀한 이유 없이 자기학대하는 자는 남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공허한 그림자 같은 엉터리 덕이나 획득하거나 그렁잖으면 절대로 올 리 없는 가상적인 영광이나 불운과 싸워보겠다는 공상만을 더 굳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는 이유 없는 자기학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연이 베풀어 주는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자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자는 자연이 그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을 멸시하거나 하는 듯이 그 은총을 거부하는 망령된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이 그들이 가진 덕성 또는 쾌락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어떤 계시가 인간에게 어떤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을 주지 않는 한, 인간 자신만으로서서는 이보다 참되고 더 숭고하고 더 탁월한 관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그런 견해가 옳은지 그른지를 상고해 볼 겨를이 내게는 없으며, 내가 그들의 풍습을 이 자리에서 소개한 것은 그들의 풍습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요, 단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인 만큼 새삼스레 깊이 상고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것이 못되지만, 하여튼 그 나라 사람들처럼 우수하고 행복한 인민을 세상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만은 내가 확언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민첩성과 활기는 평균 몸집에 비해 대단히 세칩니다. 그들의 농토는 그리 비옥하지 못하고 공기도 그리 맑은 편은 못되지만, 절제 있는 생활로 탁한 공기의 해독을 극복하고, 근면으로 토지를 개량했으므로 세상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곡물과 가축 생산율이 더 높고, 신체가 더 건강할 뿐 아니라 질병 이환율이 아주 낮습니다. 박토를 개량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술은 어느 나라 농민들 못지않게 강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의 삼림 전체의 수목을 뿌리째 뽑아 경작지로 만들고, 다른 지역에는 수목을 새로 심어 조림을 하지요. 이 삼림지대를 옮기는 이유는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려는 데 있다기보다도 바다나 강, 혹은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조림하여 목재와 장작 운반을 편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육로로 먼 거리의 목재나 장작을 운반하는 것보다 곡식을 운반하는 것이 힘이 덜 들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빨리 배우고, 마음씨가 착하고, 솜씨가 교묘하고, 시간의 여유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장시간 어려운 노동을 잘 견디어 내는 그들이지만 평상시에는 중노동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배움의 쾌락

지식탐구에 그들은 피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문학과 학문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서 들은 그들이(로마 문화 얘기를 들려주었겠자 역사가들과 시인들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로마 문화를 존중하지 않을 것같이 보였으므로 그리스 문화에 대한 얘기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만) 얼마나 진격한 태도와 열성으로 그리스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달려드는지 참말로 경탄할 만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그리스 책들을 읽어 들려주었겠자 그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우리는 그들의 추근추근한 요구에 못 이겨 조금만 읽어 들려주기 시작했더랬어요. 그러나 잠시 뒤 배움에 쏟는 그들의 열성과 부지런함에 감복된 우리는 그리스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도로(徒勞)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 가르쳐주지도 않았건만 그들은 그리스 문자 형태들을 술술 베껴 쓰기 시작했고, 발음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의미의 기억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암송하는지 기적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리스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비상한 재주를 가진 성인들이었기에 말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말 기적이었을 거예요. 더러는 자발적으로 와서 배우고, 더러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시회(市會)가 선택해 보내서 배우고 있어요. 3 년이 채 차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 서적 원문이 가진 흠에 방해받지 않는 한,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책들을 술술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어를 그렇게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데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들의 언어는 대체로 페르시아 언어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유토피아의 도시들과 관리들의 명칭에는 그리스어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배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네 번째로 그 나라로 향해 향해 갈 때에는 상품 대신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책들을 배에 싣고 갔어요. 네 번째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서는 마지막 방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플라톤의 저서와 좀 더 많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그들에게 갖다 주었지요. 테오프라스토스가 쓴 《식물론》도 한 권 갖다 주었지만 미안하게도 책장 몇이 찢어져 없어진 책이

있어요. 항해 도중 나의 부주의로 그 책이 아무 데나 놓여 있었는데, 장난꾸러기 원숭이에게 발견되어 짓궂게 그 원숭이가 책 여기저기 몇 페이지를 찢어버린 것이었어요. 문법책으로는 라스카리스의 저서 한 권 밖에 더 못 갖다 주었어요. 테오도루스가 쓴 문법책은 내가 가지고 가지 않았고, 사전류는 헤시키우스의 저작과 디오스코리데스의 저작 두 권만 가지고 가고요. 플루타르코스의 저서들을 그들은 무척 애독했고, 루키아노스의 저서의 문장이 기지와 해학에 가득차 있는 것이 그들을 매혹시켰지요. 시인들이 쓴 작품으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것, 호메로스의 것, 에우리피데스의 것, 그리고 알두스 판인 소포클레스의 것들을 갖다 주었지요. 역사책으로는 투키디데스의 저서, 헤로도토스의 저서, 그리고 헤로디아노스의 저서를 갖다 주고요. 의학서적은 내가 갖다 주지 않고 그때 나와 동행자였던 트리키우스 아피나투스가 갖다 주었는데, 그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쓴 짤막한 책 한 권과 갈레노스의 《미크로테크니》 한 권이었지요. 신체가 모두 건강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의학 서적은 그리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과학 연구의 한 분야로서 의학은 가장 유쾌하고도 유익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다른 분야의 학문들보다 의학을 더욱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그래서 내 동행자가 갖다 준 두 권의 의학 서적을 그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더군요.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학연구에서 그들 자신은 더할 나위 없는 쾌락을 느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런 연구는 자연을 창조한 조물주를 기쁘게 해주는 연구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 명장들이 그러한 것처럼 최고 명장인 조물주도 이 우주의 구조를 인간 앞에만 가린 데 없이 그냥 전부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만 드러내 보여주었는가 하면, 세상 만물 중 오묘하기 그지 없는 우주를 고찰하고, 또 막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동물은 인간 하나뿐이라고 조물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재주껏 창조해 낸 우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진지하게 감탄하는 자는 인간 하나 밖에 없으며, 그가 만들어 놓은 가장 위대한 구경거리인 우주를 아무런 사고력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둔하고도 감탄할 줄 모르는 다른 동물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연구하고 감탄하는 인간에 대한 조물주의 친밀감이 더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구정신에 한번 자극을 주기만 하면 유토피아인들의 마음은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나 물질을 발명하는 데 굉장히 빠른 작용을 합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들과 물질들 중 인쇄술과 종이 만드는 방법의 한 반은 우리가 좀 가르쳐준 셈이고, 나머지 반은 그들 자신의 창의성과 재주로 발명한 것입니다. 알두스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 몇 권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종이 만드는 방법과 종이 위에 글을 인쇄하는 기술을 설명해 주었다기보다는 말만 해주었는데(우리들 중에 종이를 만들어봤거나 인쇄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줄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대충 말만 해주었더니 종이 제조과정과 인쇄과정의 원칙들을 그들은 금세 포착하더군요. 그리하여 그때까지는 양가죽 나무껍질, 혹은 갈대에 글을 써오던 그들이 종이를 제조하고 인쇄기계를 만들어 종이 위에 글을 인쇄하더군요. 처음 얼마간의 결과는 물론 실패가 못했어요. 하지만 몇 차례 시험해본 결과, 그들은 두 가지 기술을 다 상당히 빨리 체득하고 성공했어요. 우리가 갖다 준 그리스 서적들 외에 판 책들이 있었더라면 인쇄술의 발달로 그들은 굉장한 수의 책을 인쇄해 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위에 내가 언급한 바 있는 서적들은 각기 수천 부씩 이미 인쇄해 내놨어요. 어떤 방면에 비상한 재주를 가졌거나, 여러 나라 인민들의 풍속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대환영합니다(우리 일행이 그 나라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다 알고 싶어 하는 열의를 가진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건을 팔러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장사꾼은 극소수입니다. 쇠 밖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는 팔지 못할 것이요, 금과 은을 가지고 가면 팔수는 있지만, 금이나 은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으로 수출하길 원치 않고 자기가 그냥 소유하고 있고 싶은 것이 상정(常情)이 아닙니까? 그리고 유토피아인들이 물건을 수출할 때에는 다른 나라 선박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라 선박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나라 선박에 물건을 싣고 세계 각지로 가보는 것으로 근린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동시에 자기네 항해술을 더 발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

전쟁 때 자기 나라 군대가 사로잡은 포로가 아닌 다른 포로는 종으로 삼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의 법입니다. 종의 아들들도 종으로 삼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도 이 나라에 오면 종이 아닙니다. 이 나라 시민으로 어떤 죄를 짓고 노예로 전락시키는 선고로 받은 자들과, 다른 나라에서 사형선고 받고 이 나라로 도망해 들어오는 자들만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형선고 받은 자들을 싼 값으로 사들여서 종으로 부리는데, 대개의 경우 돈 한 톨 안 주고 그냥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종이 되었건 종들은 전부 사슬에 매인 채 쉴 새 없이 노역에 종사합니다. 유토피아 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으로 종이 된 자들을 외국에서 데려온 종들보다 더 심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유토피아 인이면 누구나 우수한 교육을 받고 도덕생활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런 혜택을 못 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한층 더 비열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중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리 천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계를 이어 갈 수 없는 극빈자는 자발적으로 유토피아로 와서 종살이를 자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들의 대우는 대개 유토피아 인과 별 차이가 없는 좋은 대우를 해 주지만 본국 시민들보다 좀 더 많은 일을 시키지요. 그러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그런 고된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불평 없이 일을 잘들 합니다. 그리 혼한 일은 아니지만 외국인으로 자진해 와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혹시 이 나라를 떠나가려고 할 때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강제로 붙들지 않는 유토피아 인들은 흔연히 떠나보내되, 빈손을 들고 떠나가게는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간호와 고통 없는 죽음

앞서 말씀드렸거니와 유토피아 인들은 환자들을 극진히 돌봐주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이나 음식물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써보고 먹여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환자 곁에 앉아 말동무해주고, 그 밖에도 환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다 써봅니다.

그렇지만 불치병일 뿐 아니라 잠시도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부들과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그토록 아픈 병을 더 조장해 더 고생할 필요 없이 목숨을 끊어 아픔을 영원히 잊어버릴 결심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병이 나을 가망이 전혀 없는 만큼 살대로 다 산 그런 환자는 삶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자기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공연한 짐만 되고 있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이렇게 괴롭기만 할 바에야 죽은 뒤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죽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해 줍니다. 고통스런 이승의 재앙과 감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좋을 것인즉, 남의 손에 의해 해방될 생각은 말고 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승에서 놓여나 사후 복락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냐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잊어버릴 것이라고는 고통 하나뿐이니 죽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불치병 환자가 죽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신부들의 충고로 행한 결심인 만큼 그의 행동은 옳고 덕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권고에 설득당한 환자들은 자의에 의해 굶어죽거나, 그렇잖으면 의사에게 부탁하여 치사량의 아편을 받아먹고 고통 없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설득당하지 않는 환자가 있는 경우 그 당자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죽이는 일은 없고, 그렇다고 간호를 소홀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주위 환경 아래서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부들이나 사회 의원들의 허가

없이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불명예스런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명예스런 자살을 한 자의 시체는 땅에 묻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인지라 자살자의 시체는 그냥 도랑에 던져버려 시체에게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풍속

여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결혼할 수 없고, 남자는 만 22세 미만이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결혼하기 전에 몰래 간음한 사실이 발각되면 남녀 가림 없이 호된 처벌을 받고 죽을 때까지 결혼 못 합니다. 단지 시장이 내리는 특사에 의해 형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결혼할 권리가 생깁니다. 결혼 전 간음하는 불상사를 낸 가정의 가장 부부는 자녀를 감독하는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비난을 받아 크게 망신 당합니다. 이런 탈선행위에 가혹한 벌을 가하는 이유는 만일 그런 난잡한 간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지 못했다가는, 결혼생활에 수반되는 갖가지 성가신 일을 끝까지 견디어 낼 각오까지 해가면서 결혼하여 부부애로 백년해로 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수효가 줄어든 것을 우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 그들이 보이는 주의 깊고 신중한 풍속이 우리에게서 어리석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에게 결혼을 신청하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어떤 동정녀 혹은 과부로 책임감이 강하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중간에 나서서 처녀의 별거벗은 몸을 총각에게 선보이고, 그 뒤에는 어떤 고결하고 덕망 있는 남자가 나서서 총각의 별거벗은 몸을 처녀에게 선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풍속을 비웃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욕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유토피아 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선보이는 풍속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도리어 흥을 봅니다. 조그만 이해관계에도 극단의 주의를 아끼지 않으면서 결혼이라는 중대사건에는 별로 조심하지 않고 막 해치우는 것을 홍보는 것입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면, 망아지 한 마리 살 적에는 흥터가 혹시 가리워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말안장과 마구 고삐까지 다 벗기고 몸을 살살이 살피고 나서야 흥정하는 사람들이, 한번 결정할 때 잘 결정하고 잘못 결정하는 데 따라 일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홍보는 거예요. 전신은 옷으로 감싸고 한 뼘 정도 밖에 더 안 되게 내놓은 여자의 얼굴만 보고 판단을 내려 결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선보고 결혼한 부부지간 어느 쪽에서든 상대방

의 몸에서 기분 잡치는 흠점을 발견하게 될 때 일평생 서로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결혼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언행만을 좋게 보아 육체적 흠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해로하는 현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정신적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별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진 때 아내가 입은 옷 속에 매복해 있는 육체적 흠점, 혹은 불구를 발견하게 될 때 그 부부 사이의 의가 그냥 좋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불구가 결혼 뒤에 발견되는 경우 남편은 일평생 불행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체념하고 아내와 동거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몸의 결점을 숨겨 속이고 결혼하는 폐단을 법률로 금지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히 남달리 이 점에 큰 관심을 쏟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근방의 여러 나라들 중에 일부일처제를 존중하는 나라는 유토피아 하나뿐입니다. 그 나라 가족제도는 일부일처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해소는 오직 죽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간통을 하거나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있어서 이혼하게 된 때 피해자만은 딴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사회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지만, 가해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품행이 나쁜 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재혼을 못합니다. 결혼한 후 아내의 몸에서 어떤 결점을 발견했다거나 병들었다거나 하는 이유만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병이 들거나 늙어갈 때(늙는 자체가 곧 질병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노쇠한 몸을 으레 따르게 마련이니까요), 즉 어느 때보다도 위안이 더 한층 요구 되는 때에 배우자를 버리는 일은 잔인하고 불성실한 행동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혹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서로 원만히 동거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데다, 둘이 다 어떤 딴 사람과 결합해 살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들은 합의로 이혼하고 둘이 다 각기 딴 사람들과 재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매번 시

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소청이 시회에 올라가면 사회 의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부인들까지 다 나서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세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나서야 허가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확실해 이혼을 허가하기는 하되,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지못해 허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근거가 확실해서 이혼과 재혼을 허락해주는 것이라도 이런 허가를 자주 내리는 날에는 결혼해 잘 사는 부부들에게 쉽게 이혼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넣어주어 부부애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데 범법자는 죄하급 노예로 만들어집니다. 아내 있는 남자와 남편 있는 여자가 간통했을 때 두 가족 부부가 다 이혼하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끼리 재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딴 사람과 재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히 혹시 배신한 배우자를 그냥 계속 사랑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치는 허락하되, 배신한 배우자가 노예형을 받아 혹사당하는 노동을 거들어주는 조건하에 동거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배우자가 정을 떼버리지 못해 노예의 고역을 함께 감수해주는 데 그만 감복하여 참회하는 빛을 확실히 보이는 자에게는 시장이 동정을 베풀어 다시 자유인으로 승격시켜주는 예도 있습니다. 간통죄 재범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합니다.

처벌 소송수속과 기타 문제

어떤 고정된 형벌의 양을 부과한다는 명문이 씌어 있는 법조문이 유토피아에는 없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르는 적절한 형량은 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있기는 있지만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해 처형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중죄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처벌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처벌합니다. 가장 중한 범죄는 노예로 전락시키는 벌로 처형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범죄자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사형에 처하는 벌보다 가벼운 것이라고는 그들은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자를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살려두고 종으로 부려 일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노예가 된 범죄자들은 일터에서 남들에게 오래 구경시키면 시킬수록 그 종이 범한 죄와 비슷한 죄를 다른 사람들이 지으려 들지 않게 하는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노예형 연도를 받고도 반역을 꾀하거나 노역에 종사기를 거부하는 자는 감금으로나 쇠사슬 결박으로도 횡포를 억제할 수 없는 맹수마냥 그냥 죽여 버립니다. 종살이를 참고 견디어 가며 일을 잘 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어려운 종살이 고역으로 길이 들고 현재 받고 있는 육체적 형벌의 고통보다도 범죄한 것을 뉘우치는 마음의 고통을 더하는 기색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노예의 신분 일부를 변경하여 좀 덜 고단한 일에 취역시키거나 혹은 아주 사면해버리는 특전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특사는 시장의 특권 발동으로 내릴 때도 있고 국민 투표에 붙여 결정짓는 예도 있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다가 실패한 사나이도 유혹에 성공하여 여자를 농락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당합니다. 범죄 시도가 범죄 자체보다 가벼운 죄가 될 수 없고, 범죄를 성공으로 이끌려고 재주껏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만 가지고 범죄 안 한 것으로 여겨 처벌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보들과 사귀는 데 그들은 쾌락을 느낍니다. 바보들을 학대하거나 놀리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지만, 바보들의 얼굴이 짓을 남들이 즐기는 것은 막지 않고, 바보들의 어리석은 짓에 남들이 웃어주는 것이 바보들에게는 유익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저지르는 우스운 행동이나 우스운 농담에 웃지 못할 만큼 성질이 근엄하고 냉혹한 사람들이 일꾼을 구할 때 바보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바보가 가진 유일한 재주인 얼간이 연행을 즐길 줄 모르는 딱딱한 사람은 바보를 으레 불친절하게 다룰 것이 뻔해서 안 보내는 것입니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를 보고 조롱하는 것만은 나무라지 않는 그들이지만,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지르는 얼빠진 일을 호되게 꾸짖는 자는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타고난 미모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게으름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지만 얼굴에 연지 칠하는 것은 질색입니다. 육체미가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 할지라도 아내 삼으라고 추천하기에는 정직하고 고결하고 순종 잘 하는 여자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 알고 있습니다. 미모만 가지고 남자들을 얹매놓은 여자들이 더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덕과 순종에 반하지 않는 남자란 하나도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범죄를 처벌하여 억제하는 동시에, 그들은 덕을 행하는 사람들을 공중 앞에서 포상하여 덕행을 장려합니다. 시장마다 나라에 공헌하여 포상 받을 만한 공적을 세워 이름을 낸 사람들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의 선행을 영원토록 기억에 남기는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영광을 상대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겨루는 자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리들 선거전이 벌어질 때 자기 자량을 너무 열심히 하며 돌아다니는 입후보자는 반드시 낙선합니다. 모두가 화합하여 평화스럽게 사는 사회에서 관리들이 건방지거나 잔인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관리들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아버지라는 존칭으로 부르는데, 관리들은 그런 존칭을 들을 만한 덕을 다 가지고 있지요. 관리들이 시민에게 존대받기를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래야 할 것처럼 시민이 자진해서 관리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시장 자신까지도 곤룡포(袞龍袍)를 입거나 면류관을 써서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의 앞을 서 걸어가는 사람이 한 줌의 곡식을 들고 가는 것으로 그의 뒤를 따라오는 이가 바로 시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부들도 무슨 특별한 법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밀초 한

자루를 들고 앞서 가는 사람 뒤를 따라 신부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에는 성문화된 법률이 별로 없고, 그들의 사회제도나 기관들은 법을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률들을 제정해놓고, 법조문 해석들을 구구하게 많이 늘어놓지 않고는 살아 나가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 인민을 유토피아 인들은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하는 데 벌써 지쳐 버리고, 즉각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하고 애매한 문구들이 나열된 수많은 법률들로 인간을 얹어매는 것은 절대로 부당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소송 사건들을 교활하게 다루고, 법조문 해석을 교묘하게 하는 데 뛰어난 재간을 가진 변호사라는 것이 유토피아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직접 법정에서 나가 변론하지 않고 변호사를 대신 내보내 발언하게 하지만, 유토피아에서는 원고건 피고건 각기 자신이 법정에 출두해, 저 할 소리 다하고는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에 임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토피아에서는 공판을 질질 끄는 일이 없이 진상은 급속히 드러나고 맙니다. 변호사의 책략적인 변론의 도움을 받음이 없이 당사자 본인들이 솔직한 발언을 하고 쌍방 발언의 요점을 주의 깊게, 세밀히 검토하는 재판관은 교활한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여 솔직한 사람을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 다단한 술한 법률들에 얽매인 다른 나라 법정에서는 도저히 구경할 수 없는 공판 진행을 유토피아에서는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시민 각자가 다 법률에는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률 수는 극히 적은 데다 조문을 가장 쉽고 명백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온갖 법률을 발표하는 유일한 목적은 국민 각자에게 그 가 맡은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법조문 문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의 뜻을 알아듣도록 가르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보다 더 단순하고 보다 더 명백한 문구들의 뜻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지요. 법조문들의 뜻이 명백하지 못한 이상 법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더구나 법의 지도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만 될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훈련을 쌓은 사람이라야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법조문 해석에 전적으로 몰두할 만한 두뇌의 소유자가 아닐 뿐 아니라, 매일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법률 공부에 몰두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방교(邦交)

폭군의 포악한 전제정치 아래서 신음하는 몇 이웃 나라 국민들의 해방투쟁을 유토피아인들이 도와주어 성공시킨 일이 옛날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의 이런 선행을 감탄하고 송양하게 된 외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표를 뽑아 유토피아에 보내 가지고, 유토피아인들 중에서 그 나라 통치자 될 사람을 뽑아 파견해 달라는 간청을 한 일이 있었어요. 유토피아에서는 그런 나라들에 통치자들을 파견했는데, 어떤 나라는 1년만 다스려주고, 또 어떤 나라는 5년까지 한 통치자가 다스려주었습니다. 외국 통치를 끝내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유토피아인들은 누구나 다 그 나라 국민의 칭송과 존경을 담뱃 안고 귀국했고, 그들을 대신할 통치자들을 다시 뽑아 보내곤 했어요. 유토피아인들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온 나라 국민들은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하는 훌륭한 계획을 발견했다고 보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행복하게 사느냐 혹은 불행하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통치자의 도의심 유무에 있는 것인데, 돈으로 매수하려는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유토피아 사람들을 모셔다가 통치권을 맡기는 것보다 더 현명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토피아인들은 외국에서는 혹 몰라도 본국으로 돌아오면 돈이 한 톨도 필요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유토피아인들은 다스리러 가는 나라 토착민이 아닌 고로 세력 부식(扶植) 경쟁이나 파쟁 등에 휩쓸려 들어가는 일이 없거든요. 세상의 두 가지 최대 악인 탐욕과 편견이 재판관들을 괴롭힐 때 그 사회의 주된 공통 계약인 정의가 말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나라를 유토피아인들은 이웃 나라라고 부르고, 통치자를 정말 파견해서 도와준 나라는 친구 나라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들끼리는 동맹을 맺었다가는 결렬시키고, 다시 맺었다가는 또 결렬시키기를 반복하고 있는 데 반해, 유토피아는 아무 나라와도 동맹조약을 맺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연이 인간들 상호 간의 우정을 맺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들끼리 맺는 동맹이 우정을 돈독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비롯한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말로만 맺은 약속을 존경할 것이냐 하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유토피아를 제외한 다른 이

웃 나라들끼리는 연방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왕들끼리도 계약을 맺어놓기는 하지만, 그 조약이나 계약을 주의 깊게 준수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번번이 깨지고 마는 실제 예들이 수도룩하여 그것이 유토피아인들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여러 나라 간에 맺어진 국제조약들은 신성불가침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약을 신성불가침이라고 믿고 지키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유럽 여러 나라 왕들이 대개 다 외롭고 착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어떤 종류의 조약이건 종교 신앙과 마찬가지로 엄하게 준수하는 교황을 두려워하고 또 숭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직자들이건 한번 교황 자리에 취임하게 되면 한결같이 모든 나라 왕들에게 어떠한 약속이든 꼭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교황의 권세로 그 왕을 근책까지 하여 약속을 엄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특히 ‘성실한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만일 조약을 위반하는 배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런 일이라고 교황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견의 이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적도 저편에 있는 지역은 지리상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도 서로의 풍속 습관의 간격에 비교하면 문제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제아무리 신성한 식을 거행하고 맺은 조약일지라도 그 조약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애매한 문구들을 삽입해 가지고 맺는 조약들이 많은데, 이런 조약의 조인식이 정중하면 할수록 더 교묘하게 조문의 뜻을 비틀리게 해석해 가지고 파기해버리는 속도도 더 빠릅니다. 제아무리 튼튼한 사슬로 엮어맨 조약이라 할지라도 한쪽 정부가 위반하고 싶은 마음만 먹으면 제멋대로 파기해 버릴 뿐 아니라 신의마저 저버리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맺는 매매계약서에서 만일 그렇게도 교활하고 부정한 문구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때위 계약서를 꾸민 장사꾼들은 교수대로 보내야 마땅하리만큼 큰 죄, 즉 신성을 모독한 죄를 지은 더러운 놈들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정치가들 자신이, 왕의 앞에서는 국제조약 맺는 데는 교활하고 부정한 문구를 많이 삽입하는 것이 득이라고 진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의라는 것을 한

날 비천한 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들은 정의가 있을 곳은 높은 위엄을 가진 왕의 위엄 밑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들 정치가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인민들에게만 통용되는 일종의 정의로, 정의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비천하며, 사면이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어서 아무리 애써도 담을 뛰어 넘지 못하는 종류의 정의인 데 반해, 왕들에게만 통용되는 일종의 정의는 무척 장엄할 뿐 아니라, 인민에게만 통용되는 정의보다는 훨씬 자유스러워서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담을 넘어 뛰는 종류의 정의 이렇게 두 가지란 말입니다. 유토피아가 어떤 나라와도 동맹조약을 맺지 않는 이유는 이웃 나라들이 서로 맺은 조약들을 그처럼 마구 다루는 것을 보아 조약을 맺어도 소용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혹시 유럽에 와 살게 된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맺어 놓은 조약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조약을 체결하는 풍속 그 자체가 나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산 하나, 혹은 강 하나를 국경으로 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이 자연적인 연대에 의한 단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즉 무슨 조약을 맺어야만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평화를 유지해갈 수 있는 것이 만일 인간의 본질이라면, 인간이란 천생 원수들이란 나쁜 인상을 주겠기 때문에 조약 체결을 유토피아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국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약 조문들을 초안할 때부터 벌써 어떤 문구에겐 조그만 뒷구멍도 뚫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문화 해놓고도, 약차하면 한 나라가 상대방 동맹국에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행사할 권리를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유토피아 인들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나라라면 어떤 외국이건 원수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고, 인류 간의 우애는 조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연히 존재해 있는 것이며, 인간을 더 한층 단결시켜주는 힘은 조약이 아니라 호의이며, 말로 한 약속보다 가슴으로 한 약속이 단결력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유토피아 인들은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전쟁이란 어디까지나 잔학한 행동이라고 보아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들이면서도, 어떤 종류의 짐승보다도 더 심하게 국민들에게 계속 전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전쟁에 이기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불명예스런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일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유토피아 남녀들은 어떤 날을 골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혹은 어떤 적국의 침략을 받는 우방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포악한 왕의 폭정 아래서 탄압받고 노예 생활하는 어떤 우방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목적 아래서만 그들은 전쟁에 참가하되, 지극히 신중하게 또는 마지못해 가담하는 것입니다. 우방의 영토수호를 돕기 위해 전쟁에 가담할 뿐 아니라 우방 국민들이 타국에 의해 손해를 받는 경우 보복전에도 유토피아는 가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국이 호소해 올 때에 한해 전쟁 가담 여부를 고려하되, 사건의 전모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 받은 사실이 확실하다고 증명되고, 갇탈해 간 재산을 피해국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뒤에야 침략국에 도전해 싸우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침략국이 우방으로부터 재물을 노략질해 간 증거가 확실할 때에 한해 전쟁하기로 결정하고, 외국에 가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 나라의 그릇된 법 해석으로 인해 탄압을 받는다는 확증이 입수된 뒤에야 전쟁에 가담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외국 상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법 해석을 멋대로 하는 것은 외국을 직접 침략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에 도착하기 얼마 전 그 나라가 네펠로게트 인⁶을 위해 알라오폴리트 인⁷들에게 도전해 전쟁을 일으킨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알라오폴리트에 가 살면서 장사하는 네펠로게트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알라오폴리트 정부가 법 해석을 비틀게 한 데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유토피아가

6 '구름나라 사람'이라는 뜻.

7 '암흑의 도시인'이라는 뜻.

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알라오폴리트 인이 네펠로게트 상인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탄압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 치열한 전쟁이 불의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쌍방이 다 자연자원을 낭비했고, 제3국 국민들의 증오감을 증가시킨 결과가 맺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쟁 통해 어떤 나라들은 아주 망해버리고, 어떤 나라들은 망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계속되는 일반의 재난을 겪은 결과로 네펠로게트 인에 비해 훨씬 더 번영했었던 알라오폴리트 인은 패배 정복되어 네펠로게트 인의 속국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승전한 나라 측을 도와 싸워준 유토피아는 전리품의 일부를 주장할 자격은 물론 구비하고 있었지만 전리품이나 배상금을 한 톨도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외국에 가서 장사하는 유토피아 상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들의 목숨에 피해가 없는 한, 선전포고까지 하지는 않고 그 나라와의 통상을 단절하는 조치로 분노를 새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상인들이 외국에서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도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자기 나라 국민을 돌봐주는 성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가 통상을 단절하는 경우 상대방 상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잃는 것이니까 큰 손해를 보지만, 유토피아 인들은 손해를 받는다고 개인의 재산 손해가 아닌 공동 소유 재산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토피아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자가 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은 잉여물자 뿐이기 때문에 수출을 중지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자가 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도는 잉여 물자가 없는 때에는 그 물자는 수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영업상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다한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 죽이는 방법으로 복수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죽을 때 목숨과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유토피아 인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뿐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사는 유토피아 인들이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피살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민간끼

리의 사사감정에 의한 것이었건, 그 나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것이었건 불문하고, 유토피아 정부는 특명전권대사를 그 나라 정부에 파견하여 가해자들을 체포해 인도하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해자 신원 인도가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선전포고를 하지요, 그러나 가해자 신원 인도를 받으면 본국으로 압송해다가 사형에 처하거나 종으로 삼아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격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유토피아인들의 마음을 괴롭혀줄 뿐 아니라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인이 물건을 살 때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실정입니다. 전쟁 대신 외교술과 교묘한 책략으로 적국을 누르고 승리할 때에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며, 온 국민이 통틀어 나와 경축대회를 열고, 그렇게 유효적절한 수단방법을 써서 승리를 거둔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들입니다. 전쟁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정정 당당한 설득공작의 힘(다른 동물들에게는 불가능하고 인간만이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만)으로 승리를 거둘 때에는 참말로 대장부다운 용감성을 발휘한 성사라고 큰 자랑거리로 삼는 그들입니다. 곰·사자·산돼지·이리 떼·개 등 흉악한 짐승들은 육체의 완력만 가지고 싸우지만(그들이 사용하는 완력이나 사나움은 인간을 능가한다), 인간은 설득과 논쟁으로 싸우는데 다른 짐승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정당한 요구가 수락되지 않는 때에 한해서 유토피아는 최후수단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가 수락되기만 하면 전쟁을 피하고 원만히 수습된 것을 무척 기뻐하는 그들입니다. 정당한 요구가 수락되지 않아 부득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시는 유토피아인들을 상해할 엄두도 못 낼 만큼 철저히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책은 자기 나라가 당면하는 위험을 피하는 노력의 최후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승전 후에 영광이나 명예 따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적국 국내 도처에는 유토피아 정부의 관인이 버젓이 찍힌 선포문이 극비리에 붙습니다. 적국 안에 있는 꼬나불들을 이용하여 몰래 첨부하는 선포문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소형으로 만든 전단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국의 왕을 죽이는 자에게는 거액의 상금을 지불하고, 유토피아 침략계획을 꾸미는 책임자들로 왕 바로 밑자리에 있는 고관들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을 죽인 자에게 주는 상금보다는 약간 소액(소액이라고 하지만 왕을 죽이는 자에게 주는 상금에 비해 소액이란 말이지 사실은 막대한 금액입니다)의 상금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하는 선포문입니다. 왕은 물론, 선포문에 지목된 고관들을 생포해다 바치는 자에게는 죽이는 자에게 주는 상금보다도 더 큰 상금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목되어 있는 고관들 중 누구든지 조국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전범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큰 상금까지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포고문의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며칠 못 가서 포고문에 지목된 고관들 간에는 상호 의심, 상호 불신이 퍼지게 될 뿐 아니라, 제각기 언제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르는 공포심으로 정신착란증을 일으킵니다. 과거의 실패로 보아 고관들이 가장 신임하던 하급 공무원들, 아니 왕의 가장 깊은 신임을 받아오던 자들까지도 왕과 상관을 배반한 예는 수두룩합니다. 두둑한 상금을 바라는 자들은 세상 어떤 범죄건 가리지 않고 감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토피아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대금을 상금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남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당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고려하는 그들은 위험 정도에 알맞은 상금을 약속하고, 상금으로는 거액의 금은, 그리고 이웃 나라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막대한 재산까지도 상금으로 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들을 성실히 지킵니다. 암살행위에 여러 층의 상금 가격까지 매겨놓고 적국 국민들을 매수하는 방법을 써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은 비열한 마음을 가진 자나 해낼 수 있는 잔인하고 악독한 고안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유토피아 인들은 이런 전략이 가장 현명하고 가상할 만한 책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방법을 씀으로써 전투는 한 번도 아니하면서도 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 좋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수의 악한 놈들만 죽이고, 교전국 쌍방 전선에서 공연히 죽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주는 전법을 쓰는 것은 오히려 인도주의적이고 자비스런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대부분 청장년은 자기들이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친 통치자들의 발광으로 인해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인 만큼 유토피아 인들은 자기 나라 군인들을 동정하는 것과 꼭 같은 정도로 적국 군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국 왕의 형제들이나 귀족들을 충동하여 왕위쟁탈전을 둘러싼 불화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적국이 이 국내 파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왕들을 충동하여 적국에 대한 옛날 어떤 소유권 주장을 재생시켜 적국을 괴롭히게 하지요. 왕들에게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점유권 전쟁의 건덕지가 얼마든지 있는 법이 아닙니까.

유토피아가 어떤 나라의 전쟁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할 때 자기네 군인은 최소한으로 제공하지만 군자금은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제공해줍니다. 유토피아는 자기 나라 국민을 어떻게든 아끼고 존중하는지 자기 나라의 시민 한 명과 적국 왕과 1대1로 포로교환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은보화를 간직해 두는 유일한 목적이 전쟁 때 군자금으로 쓰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금은보화를 다 써 버리더라도 국민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소비하는 데 인색하거나 주저하는 일은 없는 그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위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토피아는 여러 이웃 나라들에 막대한 부채를 지워두고 있습니다. 그 빚지워 둔 돈만 가지고도 사방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용병 구하기가 아주 쉬운 족속이 하나 있는데, 이 족속 이름은 자폴레트⁸입니다.

이 자폴레트 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유토피아에서 동쪽으로 5백 마일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삼림과 산악지대에서 자라나는 그들은 삼림과 산을 무척 좋아하며, 기질은 무지막지하고 잔악하고 사납습니다. 몸이 건장한 그들은 더위와 추위와 고된 일에 곧잘 견디어냅니다. 사치스런 생활이란 통 모르는 사람들로 농사지를 줄도 모르고, 주택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8 '목숨 팔기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

그들의 유일한 생산업은 가축을 기르는 일이지만, 대부분이 사냥질과 도둑질로 연명해 나가는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출생된 유일한 목적이 전쟁하는 데 있는 양, 전쟁에 가담할 기회를 언제나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할 기회가 발견되기만 하면 기뻐 날뛰는 그들은 군인을 고용하기 원하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썩은 품삯으로 고용해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단 한 가지 수단을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남을 죽여서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한번 고용되면 고용주를 위해 용맹스럽게, 또는 충성을 다하여 잘 싸워줍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고용기간을 정해 놓고 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이 나라 편에 서서 싸우다가도 적군 측이 품삯만 조금 더 주면 그 이튿날은 적군에 가담해 싸운다는 조건부로 고용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에게 고용했었던 군대 측에서 샅을 일 전이라도 더 올려 주면 그날은 또 그쪽 편을 들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속이 쌍방의 전선에 가담해 싸우지 않는 전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가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는 같은 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친밀하게 협조해가며 싸운 전우들이 그 이튿날엔 더러는 적군 측에 가담하여 어제까지의 친척과 전우를 죽이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친척관계건 우정이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서로 다른 왕들에게 몇 푼 안 되는 돈에 고용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친척과 친우들끼리 싸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탐내는 사람들인지 하루 싸우는 품삯을 단 일 전만 올려 준대도 지금까지 싸우던 나라를 버리고 적군 측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의 돈에 대한 욕심은 증가 일로를 밟지만, 피의 대가로 번 돈을 순식간에 경멸 받아 마땅한 비속한 쾌락추구에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리는 그들이기 때문에 돈을 한 번이라도 요긴하게 쓰는 일은 없는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유토피아에 제일 많이 고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지요. 자기 나라 안에서는 본 국민으로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들을 찾아 일을 맡기려고 애쓰고, 전쟁 마당에 내보낼 사람은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들을 고르려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의 인사 고용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시에는 자폴레트 인들에게 막대한 상

금을 약속하여 한번 나가면 살아오기 힘든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죽지 않고 돌아오는 용병들에게는 약속했던 상금을 어김없이 지불하는 것이 유토피아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다시 위험한 지대로 보낼 때 달게 응할 욕심을 미리부터 북돋아 주는 공작이지요. 자플레트 족속처럼 야비하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전부 다 숙청해 버리는 것이 도리어 인류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유토피아 인들인지라 그 족속이 얼마나 많이 전사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플레트 인들을 고용하는 외에, 그들이 도와주는 나라의 군인들에게도 돈을 주고 그 밖의 다른 여러 우방들의 군대도 돈 주고 고용하여 원군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나라 국민들도 더러 전투에 참가시키는데, 특히 용명을 날려 자타가 인정하는 이름난 장군을 기용하여 전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 밖에 두 명의 부사령관을 임명하되, 총사령관이 건재할 때에는 사병처럼 차리고 비밀리에 종군하게 하고, 총사령관이 적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는 경우에는 부사령관 두 명 중 한 명으로 총사령관 직을 대행케 하고, 그 부사령관마저 불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사령관이 총사령관직을 대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쟁 진행 도중 총사령관이 유고하게 되거나 그 밖의 어떤 불운이 닥쳐오더라도 일사불란 전 군대는 위험에 빠지는 일없이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원군을 파견하기 위해 자기 나라 군인을 모집할 때에는 각 도시로부터 자진 지원해 오는 지원병들만 소집하는 것입니다. 누구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고향을 떠나 먼 전선으로 가서 군에 복무하도록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소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군대에 편입시키면 그 당사자 자신이 약한 행동을 할 것은 물론이요, 동료들의 사기까지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니 그런 자는 애초부터 군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 나라가 침범당하는 경우에는 마음이 약한 자일지라도 신체만 건장하면 징집합니다. 징집되어 온 마음 약한 군인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마음 강한 군인들이 타는 전선에 함께 태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망칠 가망이 전혀 없는 요새 여기저기에 배치합니다. 수치감과 눈앞에 보이는 적군에 대한 공포심과, 도망칠 방도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겹겹

은 자들의 약한 마음을 극복시키기도 하고, 또 혹은 긴박한 필요성에 쫓겨 도리어 용감해지는 군인들이 더러 생깁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 원군을 보내게 될 때 유토피아 국민으로 자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원군에 입대시키지는 않지만, 자원입대하는 사나이가 기혼자인 경우 그의 아내가 남편을 따라 전쟁터로 가기를 원한다면 선뜻 보내줄 뿐 아니라, 부부 동반해 전선으로 나가는 것을 장려하고, 또 칭찬해줍니다. 그리하여 전투지구 최전방에 부부 동반 지원병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자녀들이나, 일가친척들이나, 절친한 친구들이 동시에 자원입대하는 경우 그들 전부를 한곳에 배치합니다. 자연적으로 상호 부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피차 가장 가까운 전투지역에 배치해줌으로써 필요시에 서로 긴밀히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편이 전사했는데 아내만이 전사하지 않고 살아 있다거나, 그 반대로 아내가 전사했는데 남편만이 그냥 살아 있다거나, 또는 아버지는 전사했는데 아들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유토피아 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적군이 패주하지 않고 끝내 버티고 있는 한, 그 온 가족이 몰사할 때까지 이쪽에서도 버티면서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용병만 사서 전투지대로 파병하고 자기네 국민은 보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유토피아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투를 회피하는 데 극단의 신중성을 발휘했던 것에 못지 않은 극단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전투에 가담합니다. 전투에서 처음부터 사나운 충격을 느껴 적군을 향해 무모한 돌격을 감행하는 일은 없고,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적으로 더 씩씩하게 싸우다가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든 완강하게 싸우는 지 촌토라도 후퇴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들입니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요, 강인한 투쟁력을 가진 용사들까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후방 가족에 대한 근심 걱정을 일선에 나가 싸우는 유토피아 인들은 안 해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전사하더라도 후방에 있는 가족의 안전은 전적으로 보장되고, 고아가 될 자식들의 행복된 생활도 보장된다는 신념

을 가진 군인들이므로 그들의 마음은 더 강해지고 자존심도 더욱 높아져서 적군에게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그들에게 배전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렸을 적부터 받은 교육이 주입해 준 건전한 사상과 그 나라가 가진 현명한 사회제도와 기관들이 그들의 용기를 더욱 더 고무시켜주는 것입니다.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활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의무가 목숨의 희생을 요구할 때에는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목숨을 이어가길 원치 않고 초개처럼 버리는 그들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같이 살고 함께 죽자고 맹세하고 뭉친 가장 용감한 청년들이 합세하여 적군의 총지휘자를 때려잡거나 죽이는 전략에 총집중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총사령관을 공공연하게 습격하기도 하고, 숨어 기다리다가 기습하기도 하며, 단병접전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계속되는 투쟁에 지친 전우들에게 휴식시간을 주기 위해 싱싱한 젊은이들이 교체해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중국에 가서는 적장이 도망가지 않는 한 틀림없이 죽이거나 사로잡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들은 대량 학살하는 대신, 많은 수의 포로를 잡는 데 더 열중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할 때 그들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자기네 군세를 질서정연하게 배열해 놓고 나머지 군대로 추격하게 하지, 온 군대를 다 풀어 추격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침은 철저하여, 예비병만 내놓고 정규군 거의 전부가 붕괴하였을 때 그 예비군을 투입하면 승리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예비군의 진용을 깨뜨리고 적을 추격하기보다는 차라리 적군을 고스란히 도망치게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겪은 경험에 의해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적군 대부분이 붕괴된 것이 확인되자, 자기네 군대도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예측 못하고 단지 승리감에 도취된 유토피아 군대가 후퇴하는 적군을 추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주하는 적군이 추격해 오는 유토피아 군을 기습할 기회를 노리기 위해 복병을 매복시켜 놓았다가 기회가 오자 기습을 감행하는 바람에 전세는 역전되고 말았지

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던 유토피아 군이 별안간 패배하고, 패배당한 것처럼 보이던 적군이 갑자기 승리했으니깐요. 매복전술을 사용하는 데 빈틈없는 그들은 적군의 매복 전술을 회피하는 데도 빈틈이 없습니다. 참 의도는 탄 데 있으면서도 후퇴 준비를 하는 척 가장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정말 후퇴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감쪽같이 준비하는지 적군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군세로 보나 지세로 보나 적군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진지를 밤중에 몰래 옮기기도 하고, 그 밖의 다른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여 슬그머니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대낮에 공공연히 후퇴하되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그때 만일 적군이 공격을 가해오면 그것은 전진할 때 공격하는 위험 못지않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적군이 깨닫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구축하는 진지 사방 둘레에는 으레 주의 깊게 넓고 깊은 참호를 파 방호선을 칩니다. 참호 파는 데서 생기는 흙은 진지 안쪽으로 던져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참호 파는 일에 종들을 동원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참호 파는 동안 있을지도 모르는 적군의 기습을 감시하기 위해 성벽 앞에 세우는 보초병들만 제외한 전 군대가 참호를 파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을 풀어 파는 참호인지라, 상당히 넓은 진지 사방을 둘러막는 일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단시일 내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갑옷은 아주 튼튼하여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하면서도 그 갑옷을 입은 군인의 신체 동작은 조금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지 그들은 갑옷을 입은 채 헤엄까지 칠 수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 헤엄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그들이 받는 군사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전투를 할 때에 그들은 화살을 사용하는데, 보병이건 기마병이건 모두 명사수들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할 때에 그들이 쓰는 무기는 칼이 아니라 날이 잘 선 무거운 도끼인데, 그 도끼로 적병의 가슴을 찌를 수도 있고, 위로 쳐들었다가 머리 위로 내리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고안해 만든 새로운 군기들은 그것들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적군에게 탐지되어서는 안 되겠으므로 주의 깊게 감추어

듭니다. 새로 만든 군기들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적군이 알게 되면 그 군기들은 사용가치를 상실할 뿐 아니라, 적군의 놀림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 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기를 제작 고안할 때 가장 깊은 사려를 기울이는 것은 운반하기 쉽고 조종하기 쉬운 점입니다.

유토피아가 휴전에 동의하는 경우 휴전조약을 어떻게든 엄수하는지 상대방의 도전을 받고도 유토피아는 조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적국 영토 안으로 군대를 진격시킬 때 아무리 적국이라는 하지만 그 나라 농토를 황폐시키는 일이 절대 없고, 식량을 불사르는 일도 없습니다. 적국 영토 안을 행군해 가는 그들의 군대는 군인이건 말이건 막론하고 곡식 심은 농토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 걷게 합니다. 일후 그들 자신에게 그 곡식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깐요. 비록 적군이라 할지라도 간첩이 아닌 이상 무장해제를 당한 군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도시들이 항복해 오면 즉시 그 도시들을 유토피아 군대 보호 아래 둡니다. 어떤 도시나 지역을 이쪽에서 강습해 빼앗아 점령하더라도 그곳 주민을 약탈하지는 않으나 항복을 반대한 자들은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종으로 삼고, 일반 주민은 조금도 해치지 않습니다. 강습해 빼앗은 지역으로 진주해 들어가 그곳 주민 중 항복하기를 권고한 자들이 발견되면 전리품 얼마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외국으로부터 파견되어온 원군 군인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줍니다. 유토피아 인으로는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패배한 나라에게 전비 전액을 물게 하고, 유토피아가 지원해 준 나라에게는 한 푼도 물리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현금으로도 받고, 토지 얼마를 떼어 받기도 하는데, 현금은 장래 또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조금도 다치지 않고 전액 보관해 두며, 배상조로 떼어 받은 토지에서는 사용료를 매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유토피아는 이런 류의 세금을 여러 나라 토지로부터 거둬들이고 있고, 이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과세원천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액수가 차차 불어 매년 수입이 무려 70만여 듀캣⁹ 이상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바치는 이 세금을 징수

9 옛날 유럽 여러 나라에 유통된 금화로 1듀캣은 현재 영국 돈 약 7실링에 해당됨.

하기 위하여 유토피아 인 몇 명을 뽑아 출장 보내곤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명사답게 유복한 생활을 보냅니다. 해당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징수원들이 실컷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도 남는 돈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데, 그것은 본국으로 가져다가 국고에 넣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유토피아가 소용될 때 반환한다는 조건부로 세금 바치는 바로 그 나라 정부에 대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토지 사용료로 거둬들이는 돈을 전액 다 본국으로 가져가는 일은 드물고,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적국 국내에서 유토피아의 승리를 위해 비밀공작을 해 준 원주민들에게 사례조로 토지 일부씩을 분양해주는 예가 더 많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유토피아를 무력으로 침범하려고 준비하는 기색만 보여도 유토피아 인들은 자기 나라 영토 밖에 있는 제3국 군대를 매수하여 그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선수를 쓰곤 합니다. 자기 나라 영토 내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는 동시에 아무리 시급한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외국 원군이 그 섬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의 종교

유토피아 섬 전체 국민은 물론, 개개 도시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들도 있으며, 또 다시 유성들 중 하나를 골라 신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는데, 남보다 유달리 우수한 덕을 행하고, 혹은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여 명성을 날린 인물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최고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유토피아인들 그중에도 특히 가장 현명한 인사들은 위에 예를 든 여러 가지 형태들 중 하나도 참말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영원무궁하고, 무한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어떤 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여 전체 우주에, 물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덕과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것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의 창조·생성·발달·변화·사멸은 오직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은 여하한 신이건 그들은 신성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구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우주를 창조하고 또 다스리는 최고의 힘을 가진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견해를 가진 현명한 유토피아인들입니다. 이 유일의 최고신을 그들은 자기네 말로 '미트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일의 최고신이 누구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참말 유일한 최고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유일한 최고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유일한 최고신이라고 믿건 간에 그 최고신은 전체 우주를 다스리는 세력이요, 제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유토피아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견해입니다.

여러 가지 미신들을 점차적으로 타파해가는 유토피아인들은 이성에 비추어볼 때

여러 다른 종교들보다 더 우수하게 보이는 한 가지 종교로 귀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종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어찌다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원인이 우발적인 사고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가 이때까지 믿어오던 신을 배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신이 진노하여 내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폐단이 있어서, 한 가지 종교로의 귀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종교들은 유토피아에서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숨겼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생활양식과 그가 행한 기적과, 그리고 여기저기 널리 있는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 달갑게 피를 흘려 자야 희생한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유토피아인들에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탓인지, 혹은 그리스도교 교리가 그들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랬는지 꼭이 알 수 없지만, 우리 얘기를 그들이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으며 수긍해준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얼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설교가 효과를 나타냈으니 말입니다. 모든 것의 공유 제도를 주장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지금 세상에서도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도들 사이에는 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유토피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유는 하여간 많은 유토피아인들은 우리들의 종교를 믿기 시작했고, 영세까지 받았어요. 유토피아 섬에 함께 기향한 우리 일행이 도합 여섯 명이었는데, 그중 두 명은 죽었고, 나머지 네 명 중 유감된 일이었지만 신부라고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신부들만이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성사 혜택을 유토피아인들은 받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가르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사가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이해하게 되는 동시에 성사를 베풀어 받기를 무척 갈망했어요. 신도들끼리 선출한 신부가 교황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도 참된 신부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활발한 논쟁을 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논쟁 결과 신도들끼리라도 신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이 보였지

만, 내가 그곳을 떠나는 날까지 신부 한 명도 선출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개종했다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단 한 명의 그리스도교 교도가 처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 영세 받은 그 신도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교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방법이 현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었어요. 전도 도중 열을 지나치게 올린 그는, 남들도 다 그리스도교를 꼭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의식은 신성을 모독하는 못된 의식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다른 종교의 의식을 주재하는 사제들은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사악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욕을 퍼부었어요. 이런 열띤 설교가 꽤 오래 계속 되었는데, 참다 참다 못한 그곳 사람들이 그를 체포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종교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지는 않고, 단지 대중 앞에서 공중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국외 추방형을 언도받았어요. 왜 종교 훼방 죄로 고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신앙 차이 관계로 국민을 처벌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 유토피아가 가진 가장 오래된 전통적 제도를 가운데 하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 우토푸스 왕이 이 섬나라를 정복하고 들어와 본 즉, 그가 오기 전에 원주민들은 종교 투쟁을 극렬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종파들끼리 파쟁에만 급급한 그들이라 국민 단합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나라를 정복하기가 무척 쉬웠다는 사실을 왕은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국민 각자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남에게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는 강요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우호적이고도 온건한 설득 방법을 써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선포했어요. 설득이 실패하는 경우이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핏대 올리는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령으로 금지시켜 놔어요. 그래 누구건 신앙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추방형, 혹은 종으로 삼는 형을 부과하여 처벌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토푸스가 이런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되는 종교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앙심 깊은 상호 증오로 말미암아 평화가 전적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종교분쟁을 엄금한 것이고, 둘째 이유는 종교 자체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각색 다종다양의 예배를 인간으로부터 받기 좋아하여 그런 방향으로 인간을 고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종교에 대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무척 주저했던 모양입니다. 폭력과 협박까지 써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어리석기도 하고 오만불손한 자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꼭 한 가지 종교만이 진리이고 그 밖의 다른 종교들은 다 거짓이라면, 인간이 이성을 활용하면서 온건한 태도로 종교들을 평가할 때 진리는 진리 자체의 힘으로 능히 거짓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오래 그렇듯이 종교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한 종교가 가장 허실한 미신들에게 밀리어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밀밭에 자라난 밀이 사방에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 등살에 질식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나라 국민에게 어떠한 종교만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고, 단 한 가지 예외를 조건부로 개개인이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란 무엇인고 하니,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죽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주 운행이 섭리의 지배를 받음이 없이 단지 우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성의 존엄성을 맨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만은 용납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별주는 엄격하고도 가혹한 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서 이승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벌을 받고, 덕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포상을 받는다고 유토피아 인들은 꼭 믿습니다. 저승에서의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이 혹 있으면 그런 자는 인간의 영혼을 짐승의 신체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떨어뜨린 자라는 비난과 함께 인간 이하의 동물로 취급 받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인간사회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런 자를 사회에 그냥 남겨 두면 그 사회가 존중하는 모든 법과 모든 풍속을 속으로 비웃을 것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승에 살고 있을 때 무서워하는 것이라고는 법률뿐일 거고, 죽은 뒤에 생길 일에 대한 아무런 염려도 안 하는 그런 인간이라면, 자기 한 몸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나라 법을 비밀리에 업신여기고, 기회만 있으면 폭력행사까지라도 해서 법을 어기려들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확실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견해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직장에서도 채용하려 들지 않고, 어떤 관청에서나 공공 단체에서도 책임지는 일을 맡기지 아니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직책도 맡기지 않고 전혀 무가치하고 천박한 기질의 소유자라는 낙인을 찍어 온 국민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처벌은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건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다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품은 생각을 꼭 마음속에 숨겨두어야 한다고 강요하려고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강제로 숨겨두라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거짓말할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거짓말하는 것을 사기 다음 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에게도 거짓말할 수 있는 구실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공개석상, 특히 평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의견을 논증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그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지 신부들과 그 밖의 유식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자기의 그릇된 의견을 진술하고, 또 토론하는 것은 허락할 뿐 아니라 도리어 장려합니다. 현명한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토론할 기회를 자주 주면 줄수록 그런 미친 자가 품고 있는 미친 생각이 결국에 가서는 이성 앞에 굴복하고야 말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과의 토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사망과 함께 죽어 없어진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는 반면에 극단적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동물들도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비교해 볼 때에는 그 우수성이나 커다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형

편없이 모자라는 영혼이긴 하지만, 동물의 영혼도 영원불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도 않고 이지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보지도 아니하며,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지도 아니합니다. 유토피아 인들 거의 전부가 죽은 뒤에 영원무궁한 행복을 누린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병 걸리는 것은 슬퍼하지만 죽는 것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죽었을 때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해 줍니다. 임종 시에 죽기 싫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필유곡절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즉 죽으면 영혼이 절망에 빠지리라는 매우 불순한 생각에 사로잡혔거나, 그렇잖으면 반드시 영혼이 벌을 받을 어떤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야 죽기를 싫어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달려가지 않고, 기피하다가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죽은 사람 꼴을 볼 때에 그들은 공포의 전율을 느끼며 슬픈 마음으로 시체를 장지로 옮겨가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용서하시라고 침묵의 기도를 올리고, 시체는 땅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임종 시에 기쁜 희망을 안고 즐겁게 죽어간 사람의 시체를 옮길 때에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을 불러 진지한 사람의 태도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시체를 화장하는데, 슬피 울며 태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태도로 태우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쌓았던 자리에 비석을 세우지요. 그 비석에는 죽은 사람의 공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은 죽은 사람의 생전 선행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즐겁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즐겁게 죽음에 임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공적을 길이 기억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충동인 동시에, 죽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즐거운 명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무디어 죽은 사람들이 바로 곁에 와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하나, 죽은 이들이 산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유토피아 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

문에, 그들이 가고 싶은 데는 어디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생전에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 또는 존경했던 사람들을 사랑스런 의리심을 가지고 두루 찾아보고 유토피아 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애정은 죽은 뒤에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도리어 증가되고,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의 언동을 관찰하기 위해 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준다고 믿는 그들은 보다 더 큰 자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선조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신념 때문에 비밀리에라도 나쁜 짓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성행되는 길흉판단술이니, 점을 쳐서 길흉을 예언한다느니 따위 여러 가지 미신들을 유토피아 인들은 비웃기만 하지요. 그러나 자연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기광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요, 또 증거 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기적을 무척 존중하지요. 기적이 상당히 자주 있었다고 그들은 말해요. 기적이 일어날 줄 확신하고 국민 전체가 공개리에 기도를 드리면 커다란 위험은 스스로 물러가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성사된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들을 하지요.

자연을 세심히 관찰하며 곰곰 생각하노라면 자연을 숭배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솟아나는데, 이런 종류의 자연숭배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준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신앙문제에 몰두하여 그 결과 학문을 등한히 하고 아무 공부도 안하며, 자신에게 시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착한 일 하는 데만 시간과 정력을 쏟는 사람들이 유토피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선행이 죽은 뒤 행복을 증가시켜 준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는 환자들을 방문·위로해주고, 더러는 길을 수리하고, 더러는 개울을 치고, 더러는 다리를 수리하고, 더러는 잔디 뗏장과 자갈과 돌을 파내고, 더러는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더러는 시골로 내려가서 장작과 곡식, 기타 물자를 수레에 실어 끌고 도시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개인 집으로 가서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공공사업 공사장으로 가서 일을 해주기도 하는데, 종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어렵고 더럽고, 너무 고되고 기분이

나쁘고 낙담시켜주는 노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만은 자진해서 유쾌하게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실 새 없이 일을 계속 하여 남들에게는 시간의 여유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면 서도 품삯은 한 푼도 안 받고 남들이야 어떤 생활을 하건 탓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생활을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아니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에 대한 온 국민의 존경심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금주의 독신생활을 하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류는 절대로 먹 지 않고, 그들 중 더러는 육체적 쾌락은 어떤 것이건 다 거부합니다. 이승에서의 쾌락을 전부 거부하는 그들은 죽은 뒤 저승에 가서 가지게 될 즐거운 생활만을 위 해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저승에서의 쾌락을 하루 속히 얻기 위해 잠도 별로 자지 않으면서 격심한 노동으로 육체를 혹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류에 속하 는 사람들은 첫째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일하는 열이 좀 부족하고 결혼도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얻는 위안을 경멸하지 않는 그들은 자연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자연으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일), 모국 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생산해 인구를 불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쾌락을 회피하지도 아니합니 다. 육류를 먹으면 금식만 하는 것보다 신체를 더 건강하게 해주어 노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육류 먹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유토피아 인들은 후자 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 을 보다 더 거룩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생활보다도 독신생활을 더 좋아하 고, 단일한 생활보다 고생스런 생활을 더 좋아하게 된 원인이 이성에서 우러나오 는 이지적인 면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유토피아 인들은 그자를 비웃습니 다. 그러나 종교의 감화로 그런 생활을 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에 유토피아 인들은 그를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 기를 무척 신중히 하는 그들인 만큼 이 금욕주의자들을 자기네 말로 그냥 ‘부트레 스카’라고 부르는데, 이 낱말을 번역하자면 ‘종교적 성직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성직자들은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효가 매우 적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한 도시 안에 13개 이상의 사원을 짓는 것은 허가되지 않고 한 사원에 사제 한 명씩 배치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성직자 일곱 명이 군목으로 종군하며, 그들이 비우는 자리는 남아 있는 성직자들이 임시로 겸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종군했던 성직자들이 본래 맡았던 사원으로 복직하지요. 성직자가 죽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 성직자들을 선출해 두는데, 사원의 사제직을 맡을 때까지 수석 성직자와 함께 합숙하고 있습니다. 합숙하는 동안 후보 성직자 중에서 지도자를 하나 뽑습니다. 성직자들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체 시민이 비밀투표로 성직자들을 선출하는데, 선거방법은 공무원 선거방법과 같습니다. 선출된 성직자는 성직자들로 구성된 종교단이 사제직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단이 종교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예배식을 감독하며, 전체 인민의 감시자가 되기도 합니다. 명예스럽지 못한 생활을 한다는 혐의를 받아 종교단에 불려가는 것을 일반은 큰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직무는 국민들의 자문에 응하고 지도하는 데 국한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처벌하는 일은 왕과 관리들이 하고, 나쁜 생활을 하는 자들을 파문하는 권리는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파문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벌은 없습니다. 못된 짓 하다가 파문당한 자들은 종교적인 불명예가 두려워 심적 변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빨리 회개했다는 증거를 성직자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경우 육체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빛이 없는 자는 불경죄로 체포되어 사회의 판결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은 청소년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예의범절과 덕행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유순하여 영향 받기 쉬운 소년들의 마음에 건전한 신앙과 개념을 차근차근 가르쳐 터득시키는 데 가장 큰 노력을 성직자들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사상을 뿌리 깊게 불어넣어주면 그 깊은 인상이 평생토록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국가의 복지를 보전하는 데 가장 가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라

가 쇠퇴하게 되는 이유는 도덕관에 대한 그릇한 관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데 있다고 믿는 그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때 올바른 도덕관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성직자 자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선되는 예가 드물고, 피선되더라도 나이 많은 과부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자 성직자들만 제외하고는 성직자의 아내가 전국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성직자들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는 관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직자들 중 혹 범죄하는 이가 생기더라도 국가 재판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처벌하는 대신 하나님의 처벌, 그리고 당사 자신의 양심의 처벌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신성한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인지라 성직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국민의 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직자 수요가 극히 적은 데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에 말한 관습을 지켜나가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인정을 받고, 특별나게 좋은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아, 국민이 선출해 높은 지위에 앉은 성직자들인 만큼 부패해지거나 악해지는 일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질이란 변하기 쉬운 것이라서 혹시 타락하는 성직자가 더러 있습니다만 그들을 국가에서 처벌 안 한다고 해서 국가에 무슨 큰 해를 미치리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 수요가 극히 적은 데라 그들이 가진 권세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 존경하는 데서 생기는 권세뿐이요, 그 밖의 어떤 특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평범한 덕만 가진 사람은 성직을 맡기가 불가능한데, 그렇듯이 존엄한 직위를 맡을 자격을 가진 인물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너무 많은 수의 성직자를 뽑아 놓으면 그 직위의 존엄성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들은 극소수의 성직자들만 두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성직자들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래에 예거하는 풍습이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거룩한 법복을 입은

성직자들이 군대 진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두 손 다 하늘을 향해 치켜든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평화가 오길 빌고, 그 다음 전쟁을 꼭 해야만 된다면 자기 나라가 이기되, 전쟁하는 쌍방 군대가 다 그리 많은 피를 흘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이긴 때에는 성직자들은 자기 측 군대에게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승리한 기분으로 적군에게 난행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적군 중 어떤 군인이 유토피아 성직자들을 보고 그들에게로 달려오기만 하면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패배한 군인일지라도 유토피아 성직자의 범복을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하여도 그들의 재산은 침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토피아 성직자들은 그 신세계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고 있고, 이쪽 군대가 승리했을 때 적군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막아 주었던 보답으로 유토피아 군이 패배할 때 적군은 유토피아 군인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혹 유토피아 군의 전선이 무너지고 더 싸워 볼 희망마저 상실하고 있을 때 적군이 맹렬한 기세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살육과 약탈을 감행하게 되면, 이들 성직자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하여 피를 더 안 흘리게 하고, 양쪽 군대를 분리시켜 원만하고 공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아무리 흉악하고 잔인하며 야만적인 족속이라 하더라도 유토피아 성직자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초하룻날과 그믐날을 유토피아 인들은 공휴일로 만들어 쉽니다. 일 년을 여러 날로 쪼갠는데, 일 년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고 달은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기준 삼아 정했습니다. 매달 초하룻날을 그들은 키네메르니이라고 부르고, 그믐날은 트라페메르니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첫 공휴일과 마지막 공휴일이라는 뜻입니다.

웅장한 사원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원 건축은 어느 건물보다도 더 큰 노력을 들여 짓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도록 굉장히 크고 넓은 건물들입니다. 사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라도 지을 때에는 넓게 지을 도리 밖에 없겠지요. 사원 내부는 으레 약간 어두침침한데, 그것은 설계가 잘못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요청에 의해 일부러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방이 너무 밝

으면 생각이 분산되기 쉬운 반면에, 어둡침침한 방에서는 생각이 집중되고 신앙심도 더 고조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점에는 모든 국민이 다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갈래의 길을 골라 가기는 하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인 최고의 자연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원 안에서는 각기 다른 종파 신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예배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답니다. 특수한 종교가 요구하는 의식은 각기 자기 집에서 사적으로 거행하고, 시민 전부가 모이는 사원 내의 대중예배는 각자의 사적 의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행되는 것입니다. 사원 안에는 우상이라고는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여기 모여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르지 않고 미트라라는 통일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마음속으로는 어떤 종류의 신을 그리고 있건 상관없이 미트라라고 부르는 최고신을 신성한 황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원 안에서는 어떤 종파 신자이건 한 사람의 기분이라도 상하게 하는 종교의식은 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달 그믐날 저녁에 그들은 사원에 모입니다. 그 축제일을 즐기는 그들은 이날로 끝나는 지년간 한 달, 혹은 한 해 동안 잘살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혹은 다음 해 축제일인 첫날 아침에 다시 회당에 모여서 앞으로의 한 달 혹은 일 년 동안의 번영과 행복을 점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혹은 매해 마지막 날인 축제일에 온 가족이 회당으로 가기 전에, 아내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에 잘못된 일, 혹은 실패한 일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며, 자식들은 부모 앞에 꿇어앉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한 가정 내 불화를 제거하는 동시에 흐트러지지 않고 침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까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채 예배를 보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향했던 증오심과 분노심을 가슴에 품은 채 예배를 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예배 보기 전에 서로 화해하여 모든 악감정을 깨끗이 씻고나서 예배를 보지 않으면 어떤 큰 재앙이 금세 내릴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원 회랑에 들어가 앉을 때 남자들은 남자석으로, 여자들은 여자석으로 따로 가 앉습니다. 남자들은 회랑 바른 쪽에 자리 잡고, 여자들은 왼쪽에 자리 잡고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 남자 가족들은 가장 나이 많은 남자 어른 앞에 앉고, 여자 가족들은 가장 나이 많은 여자 어른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석을 정함으로써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중 앞에서도 최고 연장자인 어른들이 가족들의 언동을 살피고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될 수 있는 대로 연장자들과 연소자들이 마구 섞어 앉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일 연소자들끼리만 몰려 앉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자리에서 쓸데없는 장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이 덕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통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동기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죽여 제물로 쓰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짐승들에게도 목숨을 부여해주신 친절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죽여 제물 바치는 것을 즐겨할 리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볼 때 향을 피우고 향수도 뿌리고 밀초에 불도 켜놓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성한 자연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전연 생각하지 않으며, 기도까지도 하나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을 피우고 향수를 뿌리며, 촛불을 켜는 것이 예배를 보는 데 무슨 해를 미칠 것은 아니고, 냄새와 불빛과 의식이 인간에게 어떤 경건한 생각을 일으켜주어 예배를 보는 데 더 진지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 국민은 흰 옷을 입고, 성직자는 대단히 훌륭하게 보이는 솜씨 좋게 만든 알록달록한 두루마기로 된 법복을 입습니다. 이 두루마기가 보기에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리 값진 옷감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두루마기를 감은 금실 따위를 섞어 짠 천은 물론 아니고 보석 따위로 장식을 단 옷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새털을 묘하게 기술적으로 누비어 넣고 짠 천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바느질 기교의 가치는 세상 어떤 가장 비싼 천 값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복을 만드는 천에 새털로 누빈 여러 가지 모형은 각기 어떤 독특한 신비적

인 상징적 부호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리고 그 상징의 원 의미는 성직자들 간에 주의 깊게 전달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성직자들에게 그 모형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은혜,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에 맺어진 의무감을 회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합니다.

그런 두루마기를 입은 성직자가 환의실에서 나와 회장 안으로 들어설 때 전체 회중은 경건한 마음을 품고 묵묵히 그의 앞 방바닥에 엎드리는데, 이 엄숙한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어떤 신령님이 강림해 있는 것 같은 경외심을 자아내게만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동안 방바닥에 엎드려 있던 회중은 성직자의 손짓에 따라 모두 일어섭니다. 일어난 그들은 곧 찬송가를 합창하는데, 합창에 반주하는 악대가 연주하는 악기들의 모양은 우리 고장 것들과는 판이합니다. 그들이 가진 대부분의 악기들은 우리의 악기들보다 더 청아한 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의 어떤 것은 우리 것보다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이 우리 것보다 월등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육성이건 악기로 내는 소리건 막론하고 그들의 음악은 그때그때 특수한 경우와 목적에 꼭 알맞은 감정을 그대로 모방하고 또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찬송가의 기분이 명쾌할 때면, 애처롭게 탄원하는 기분이건, 고통을 호소하는 기분이건, 슬픈 기분이건 혹은 분노하는 기분이건 간에 음악은 그 모든 기분을 듣는 사람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만들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찬송가 부르기를 끝내면 끝으로 성직자와 회중은 함께 경건한 기분으로 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문 작성이 어떻게 묘하게 되었는지 회중 전체가 한꺼번에 외우면서도 각자의 경우에 잘 적용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이며, 모든 좋은 일들의 창시자요, 주인공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이 보내주는 특별한 호의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유토피아에 태어나게 된 것과, 그리고 많은 종교들 중 가장 진실된 종교라고 생각되는 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요, 그들이 믿는 종교가 가장 진실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일 착각이라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보다 더 행복한 나라와, 보다

더 진실한 종교가 만일 있다면, 그들은 그의 지시를 언제나 따를 용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더 좋은 사회와 더 진실한 종교를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조직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조직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가 제일 진실한 종교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재 사회제도와 신앙을 단호하게 지켜나갈 성의와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토피아의 생활법칙을 자기들만이 향유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에게 그런 양식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현재 유토피아의 종교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교들이 병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한다면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신에 대한 관념과 같은 것을 온 세계 인류가 가지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죽은 뒤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한도 정하지 아니하여, 빨리 죽어도 좋고 늦게 죽어도 좋지만, 신성한 하나님의 기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바라노라고 그들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번영하는 유토피아의 생활일지라도 지상 생활을 더 오래 계속하는 것 보다는 죽는 날이 빨리 오는 것이 더 좋다고 비는 그들은, 죽는 날이 빨리 오기만 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임종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끝내면 방바닥에 한 번 더 엎드려 잠시 있다가 도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는 점심 식사하러 집으로 돌아들 갑니다. 점심 먹고 나서 오후 한나절은 여러 가지 게임과 군사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나라의 국가형태와 그 조직을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야말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공중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구호로 외우기는 하지만, 실은 대개 다 개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에서는 공동사업에만 모두가 열중하고 있는 만큼 그 나라

만이 참말로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결합된 공동사회 국가라고 불리울 자격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른 고장들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설혹 번영하는 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 대부분은 자기 혼자만의 장래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지 못하면 결국 굶어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 아래에 살고 있어서, 부득이 남들을 돌봐줄 생각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서 개개인이 모든 것들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유토피아 국민들은 창고와 곡창에 물자 외 곡식이 가득차 있는 한, 개인적인 소비생활에 아무런 부족도 없을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인들 간에는 물자공급에 있어서 부정분배가 절대 없고, 따라서 가난하거나 군색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생계를 이을 방도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고, 돈에 대하여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일이 없는 사회에서 모두가 다 유쾌하고 명랑하게 삶을 즐기는 것보다 더 풍부한 생활이 어디 다른 데 또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가난하게 살게 될까봐 걱정하거나, 딸을 시집보낼 때 가지고 가야하는 특참금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개개인의 생계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의 친척들과 아내와 아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과, 그리고 상류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면 으레 기대하는 영구히 계속 번식하는 후예들까지의 생계가 모두 보장되어 있는 사회가 곧 유토피아입니다. 그뿐 아니라 늙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하는 사람들과 꼭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개개인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토피아 인들이 누리고 있는 공평한 생활을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비교해 볼 엄두라도 내볼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에서건 공정하고 평등한 생활의 흔적이라도 보여주는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런 나라로 가서 살다가 내 명 다 채우지 못하고 죽더라도 한이 없겠습니다! 귀족, 금융업을 겸한 금세공업자 ·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그 밖에 자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이 변동변동 노는 자, 혹시 일이라도 하노라고 하기는 하지만 공

동사회에는 무익한 일만 하는 자들만이 호화스럽고도 멋진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무슨 공정성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에 언급한 자들은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반면에, 하인·운전수·대장장이·농부 등이 짐승들 못지않게 고된 일을 해주지 않으면 단 1년도 생존할 수 없는 나라 주재건만, 그 일꾼들에게 주는 품삯은 너무도 적어서 사역시키는 짐승들의 생활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짐승들은 인간인 노동자들처럼 종일 쉴 새 없이 일 안하고도 노동자들의 생활 부럽지 않은 생활—아니, 사실에 있어서는 노동자들 생활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은 통 안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인 노동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쓸모없는 중노동에 허덕거리면서도 늙마에 굶어 죽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받는 날품삯은 그날그날 생활비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저축해 둘 돈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귀족들(소위 귀족이라고 불리는 족속 말입니다)과 금융업을 겸한 금세공업자들과, 그 밖에 남에게 아침을 잘 하거나 그렇잖으면 백해무익한 쾌락을 남들에게 마련해주고 돈 뜯어먹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막대한 국고금을 낭비하는 정부는 부정하고 염치없는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부들과 솥굽는 사람들과 하인들과 운전수들과 대장장이들, 즉 그들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귀한 일꾼들의 복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정부를 그래 공정한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창 젊은 나이, 좋은 시절을 중노동으로 썩히고, 나이 늙자 남들보다 더 지치고 쇠약해지고 병이 든 때 그들 수중에는 돈 한 푼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친 여러 가지 위대한 봉사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정부, 감사할 줄 모르는 정부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는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이만 정도로도 만족을 못 느끼는 부자들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직접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혹은 법률을 악용해서까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품삯, 창피할 정도로 낮은 품삯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별의별 궁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유익한 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한 그들이라, 정

부로부터 제일 큰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가진 그들에게 너무나 싼 품삷을 지불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부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리어 부당한 법을 통과시켜 불공평한 처사를 ‘공평’한 처사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번영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참된 가치를 내 마음속에 저울질해 볼 때, 좀 과한 독설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화국이란 미명하에서 오직 자기네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자들의 어떤 종류의 음모라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자들이 부정한 짓을 해서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싼 값으로 흥정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자들만을 위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국민들까지 공평하게 보호해주어야 하는 사명을 띤 정부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만의 손으로 꾸며진 법령을 통과·실시하는 편벽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정부들이란 말입니다. 공평한 물자분배만 한다면 모든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돌아갈 물자를 이 만족을 모르는 탐욕자들인 악독한 부자들끼리만 찢고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한 수단방법을 써서 부자가 된 그들의 생활 상태를 살펴볼 때, 돈의 유통을 폐지해 버린 유토피아인들의 행복스런 생활과 비교해 보면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불행한 생활을 다른 나라 부자들은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돈이 쓸데없게 되어 탐욕도 없어진 유토피아인들에게 비기면 다른 나라 부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모든 악을 잘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도둑질·싸움·논쟁·반란·살인·배반, 그리고 독살 등(이런 모든 사회악을 처벌하는 법이 아무리 엄하다고 해도 예방은 하지 못하고 범죄 후에 처벌이나 하는 효과 밖에 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사회악은 돈의 사용만 폐지됐던들 자연히 시들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날 모든 공포·불안·근심·걱정·염려·고된 일, 그리고 잠 못 자는 밤 등이 동시에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돈이 제일 많이 소용될 것처럼 보이는 빈민구제사업도 돈을 없애는 날 빈민

도 없어질 것이니 구제 사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의 뜻을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천 명의 사람이 굶어죽은 해가 있었다고 가상해 봅시다. 그해 연말에 누가 부자들의 광을 뒤져 보았다면, 흉작 때문에 굶어죽은 사람들은 물론, 기종 뒤에는 으레 따르는 전염병에 걸려 죽은 술한 사람들까지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넉넉한 곡식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으리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구득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태환권에 불과한 돈 자체가 우리의 기를 꺾지만 앓았던들 최저생활에 필요 되는 물자가 얼마나 쉽게 공급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도 이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물자를 극소수의 부자들끼리만 나누어 가지지 말고 개개인에게 생활필수품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술한 재물을 몇몇 곳에만 집중해 쌓아두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악을 근절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라는 것까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동시에 앞잡이인 자존심이라는 괴물이 금지하지만 앓았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온 세계는 유토피아가 가진 식의 법률들을 채택했을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각 개인의 참된 이익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지적으로 자각했거나, 그렇잖으면 지극히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며,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벌써 오래전에 온 세계는 유토피아인들의 생활양식을 본받았을 것에 틀림없으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은 자존심이 가로막고 훼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자신의 번영을 재는 척도를 자신의 이익에 두지 않고, 남들의 비참과 불이익에 두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자신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정복해 개가를 올리고, 또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한, 유쾌할 수가 없고, 신처럼 군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지위를 비교해 볼 때라야 비로소 자존심은 자신의 행복을 명쾌하게 발휘할 수 있고, 자존심이 자신의 번영을 더 자랑할 때에는 빈궁한 다른 사람들은 빈곤에 더 한층 속박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마련이지요. 자존심은 인간의 마음속으로 몰려 기어 들

어오는 독사뱀 같은 것이어서, 인간이 보다 더 좋은 생활을 택하려는 것을 방해하여 주저하게 만들어주는 악입니다.

자존심이란 인간의 마음에 너무나 뿌리 깊게 파고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뽑아버리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 인들이 자존심을 무시해 버린 훌륭한 사회조직체를 구성해 놓은 것을 나는 진심으로 치하하는 동시에, 온 인류가 그들의 사회조직을 모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제도와 기관들이 그들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또는 사회적 기초를 구축해 주었으며, 그런 제도와 기관들은 영원토록 계승·존재하리라고 나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예언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제도와 기관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존심과 분쟁,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회악을 뿌리째 뽑아 없앴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날 위험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안전한 것같이 보이는 나라들이 내란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 일이 많이 있는데, 망하게 되는 원인은 자존심과 분쟁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악을 근절시키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인들은 그들이 가진 건전한 제도와 기관들을 잘 보존해 나가는 동시에, 동포 간의 조화를 유지해 나가는 한, 시기심이 강한 이웃 나라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침범해 들어올지라도 유토피아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여러 차례 유토피아를 정복 하려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 것이 사실입니다.

라파엘의 이야기는 끝났다. 유토피아 인들의 생활양식과 법률들 중에는 상당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도 더러 있다고 내게는 보여졌다. 예를 들자면 그들의 전쟁방법·종교의식 그 밖의 몇 가지가 내게는 부조리하게 보였는데, 그중에도 특히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공공생활 같은 것은 근본원리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화폐라는 것이 한 민족의 참된 장식물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고귀성·장려성, 화려한 것과 위대한 것의 상징이라는 관념이 대중 여론에 의해 상식화되어 있는데, 그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모든 장엄성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반대의견을 좀 연설해보고 싶기는 했지만, 긴

이야기를 하노라고 상당히 피곤해진 것 같이 보이는 라파엘이 내 반박에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들 중에서 비평할 점을 발견 못 하는 사람들은 현명치 못한 자들이라고 아까 그가 비난했던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토피아의 제도와 기관들을 칭찬해 주고, 또 그 나라 사정을 자세히 잘 이야기해 준 그의 노고를 치하해 주고, 저녁 식사나 하자고 그의 손을 잡아끌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이후 어떤 기회를 보아 유토피아인들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자세하게 토론하자고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나는 잊지 않았다. 언제고 그런 기회가 오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런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유토피아에 대한 그의 지식이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온 세계 사정에도 통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얘기 한 것을 전부 다 찬동할 수는 없는 나다. 그렇지만 유토피아라는 나라의 국민생활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본받을 만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토피아인들의 생활을 본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본받아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지은이 소개 | 토머스 모어(1478~1535)

영국의 정치가, 법률가, 인문주의자. 옥스퍼드대학에 진학했으나 중퇴한 후 변호사가 됐다. 헨리 8세의 신임을 받으며 대법관·하원의장을 지냈고 기사 작위도 받으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통상문제의 탁월한 협상가였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청백리였다. 그러나 헨리 8세가 영국국교회의 수장이 되는 종교개혁에 반대했고,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휴머니즘과 르네상스의 주역이었다고 평가받는다.

옮긴이 소개 | 주요섭(1902~1997)

《사랑 손님과 어머니》와 《인력거꾼》을 쓴 소설가 겸 영문학자. 평양 출생. 중국 상하이 후장대 학사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베이징 푸런대와 경희대 교단에 섰다. 코리아타임즈 주필을 지내고 영자지 코리아헤럴드의 전신인 코리아리퍼블릭의 이사진을 역임했다. 리얼한 하층민의 생활을 그린 작품부터 휴머니즘과 애정을 다룬 작품까지 폭넓은 창작 세계를 선보였다.

유토피아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2년 11월 15일

펴낸이 | 홍정옥

기획·편집 | 이상민 주준형 박경림

교열 | 서보상

편집디자인 | 캠퍼스헤럴드 (02-727-0681)

아트디렉터 | 김용덕

디자인 | 이현주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67860-7-8 04100

*표지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남게 있습니다.